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 석사 학위논문

양양 지역 서핑관광에 따른 경관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김 정 태

양양 지역 서핑관광에 따른 경관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 욱 주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김 정 태

김정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배정한 (인)
부위원장 정 욱 주 (인)
위 원 조 경 진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서핑관광으로 활성화된 양양 지역, 특히 죽도·인구 해변의 하향식 개발위주 하드웨어 사업이 무비판적으로 수행되며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은 형성과 발전, 쇠퇴의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기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요구되지만, 현재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양지역 서핑관광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서핑관광지의 태초 형성 과정부터 물리적인 변천, 사회문화적인 과정과 이슈에 집중해 공간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로서 시사점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은 4개 단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는 죽도해변 일대의 점적인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서, 스노우보더들이 서핑을 시작하면서 죽도해변에 매년 1-2개의 서핑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부산과 제주 등에서 활동하던 서퍼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며 서퍼가 운영하는 서핑샵, 음식점 등이 생겨나고 점적인 변화가 인구리 마을까지 확산된 시기이다. 주로 리모델링을 통해 샵을 오픈했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인테리어와 파사드를 만들면서 지역의 경관을 재구성해나갔다.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캠핑장 등의 인프라가 신축되었으며, 이주민들은 지역 정착을 위해 원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했고, 이주민 서퍼들은 연합회 구성을 통해 페스티벌과 비치클린 등의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을 가꿔나갔다. 이 시기 서퍼들은 수도권 접근성, 해변 이권이 적은 점, 선배 서퍼들이 노력으로 만든 정착에 유리한 인문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지역에 정착했으며, 토박이 서퍼 중재자의 도움으로 외지인 서퍼들의 마을 정착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는 죽도해변 포화에 따른 인구해변 공지에 신축 건물이 다수 건설되며 지역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핑의 표면적인 이미지와 결합해

파티, 바비큐 문화 등이 지역에 생겨났다. 또한 행정과의 중재자로서 (전)○○○면장이 부임하면서 군청, 의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서퍼들의 요구를 전달해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는 서핑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서핑의 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 자본이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 상업적 다양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방송 매체에서 지역과 서핑을 다루면서 인식이 확산되고 방문객 급증에 따라 기반시설이 더 확충되었으며,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생활이 어려워진 원주민과 서퍼들이 지역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종합하여 10년에 거쳐 현재 지역에 나타난 경관 형태와 변화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 개발과 차량 관련 시설이 밀집되면서 지역 경관에 대한 재고 없이 개발 방식이 점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되며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던 오래되고 한적한 경관에서 신식의 다채로운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해 왔다. 둘째, 서핑이 가진 자유로운 이미지에 편승한 파티문화를 접목시키며 파티는 지역의 서핑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활용되어왔다. 인구 해변의 파티문화를 주도하는 그룹이 있었으며 거리 전체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양리단길'로 불리기 시작했고, 서핑과 연관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셋째, 가로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공적 활동이 이뤄지며 서핑문화가 가로 환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수 년에 걸쳐 밀도있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공공간이 부족해졌고, 개별 상점은 가로와의 경계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전이공간이자 공공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역이 가진 공간적 한계와 개발 양상, 서퍼의 공간 활용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가로에 서핑문화가 자리잡으며 경관이 재구성된 것이다. 넷째, 자체적인 환경활동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초창기 정착했던 서퍼들이 형성한 자생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활동과 개별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의식을 갖고 지역 내 자체적인 문화 행위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죽도·인구 해변은 서핑관광으로 인해 단계적인 상업화와 발전을 거치며 농어촌 마을에서 서핑관광지로 지역성과 경관이 재구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 서퍼들의 공동체 활동과 지역 정착 노력, 그리고

중재자들의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응해왔다. 또한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아직 일반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지역의 발전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내 환경적, 경관적 이슈 등이 등장하면서 지역활성화의 정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죽도·인구 해변은 실적 위주의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넘어, 양양의 대표로 자리 잡은 서핑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을 위한 재고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연구대상지는 지역 경관과 문화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지역 활동가들로서 이주민 서퍼에 의해 상향식으로 활성화 되었기에, 활동주체들과 공동체, 그리고 서핑관광의 역량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해 중재자로서 매개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 내 자생적인 공동체 문화의 강화, 그리고 지역의 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 및 경관적 지향점 수립의 필요성과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즉, 본 연구는 죽도·인구 해변 공간생태계의 변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를 위한 시사점을 검토했으며, 지방 해안 지역에서 서핑관광지화에 따른 과정과 이슈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여타의 해안 지역에서 유사한 과정을 겪을 때 실질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 경험적 변화의 특성과 요인을 통해 서핑관광지의 관리 및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도시 및 농어촌 외부공간의 미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추구하는 조경학 본연의 학문적 연구 성과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의의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양양군, 죽도·인구 해변, 서핑, 서핑관광, 지속가능한 발전
학 번 : 2019-26328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4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문헌고찰과 기초연구 ····· 9

제1절 서핑과 서핑관광 ····· 9

1. 서핑과 서핑문화 ····· 9

2. 서핑관광 ····· 15

제2절 양양군 개요 및 관련연구 검토 ····· 18

1. 양양군과 현남면 ····· 18

2. 2010년 전후 양양군의 변화 ·····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 26

제3장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 ····· 28

제1절 공간적 변천 과정 ····· 28

1. 2010년 이전의 죽도·인구 해변 ····· 28

2. 일반현황 ····· 32

3. 시기별 변화 과정 ····· 41

제2절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특성 ····· 54

1. 정착 계기와 지역의 매력 ····· 55

2. 정착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노력 ····· 57

3. 중재자와 행정의 지원 ····· 60

4. 지역의 상업화 과정과 현재 ····· 63

제3절 서핑관광지화의 흐름 종합 ····· 66

제4장 서핑관광에 따른 변화와 특성 ····· 70
제1절 죽도·인구 해변의 경관 변화 ····· 70
1. 가로별 입지 형태 ····· 70
2. 지역 경관의 변화 양상 ····· 81
3.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변화 ····· 84
4. 입면 환경의 변화 ····· 92
제2절 지역에 나타난 서핑문화와 이슈 ····· 96
1. 경관 구성 요소로서 서핑문화 ····· 96
2. 지역의 환경변화와 대응 노력 ····· 105
제3절 서핑관광에 따른 특성 ····· 110

제5장 결론 ····· 112
제1절 연구 요약 ····· 112
제2절 시사점과 한계점 ····· 115

참 고 문 헌 ····· 118

Abstract ····· 121

표 목 차

[표 2-1] 서핑관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17
[표 2-2] 양양군과 현남면의 인구 증감 ····· 18
[표 2-3] 양양군의 관광자원 ····· 19
[표 2-4] 양양군의 주요 축제 ····· 19
[표 2-5] 연구대상지와 서핑을 소재로 한 영상자료 ····· 24
[표 2-6] 연구대상지 관련 사업 현황 ····· 25
[표 2-7] 연구대상지 관련 선행연구 ····· 27
[표 3-1] 건물 용도별 분포 형태 ····· 35
[표 3-2] 건축물 층수별 구성 비 ····· 36
[표 3-3] 건축물의 용도 분류 ····· 41
[표 3-4] 건축물 용도별 분포 비율 ····· 42
[표 3-5]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물 변동 건수 ····· 51
[표 3-6] 연구대상지 부동산 거래 리스트(2016-2020) ····· 52
[표 3-7] 심층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 54
[표 4-1] 가로별 상업시설 분포 표(2020. 9. 기준) ····· 79
[표 4-2] 연구대상지 경관의 변화 ····· 82
[표 4-3] 연구대상지의 계절별 경관 형태 ····· 83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 8
[그림 2-1] 서핑의 인기 증가와 양양 일대 해변 이용객 추이 ····· 14
[그림 2-2] 현남면, 현북면 주요 관광지와 죽도해변 ····· 21
[그림 2-3] 구글트렌드 검색 관심도 추이 ····· 22
[그림 2-4] 국내, 양양군 내 서핑 스팟 ····· 23
[그림 3-1] 대동여지도와 양양읍지도에서 죽도 위치 ····· 28
[그림 3-2] 1900~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대상지의 변천 ····· 30
[그림 3-3] 2010년대 이전 연구대상지의 모습 ····· 31
[그림 3-4] 죽도·인구 해변의 일반현황 ····· 32
[그림 3-5] 연구대상지 지적편집도 및 주 용도 이용 ····· 34
[그림 3-6] 연구대상지 내 건축물 층수 비교(2010/2020) ····· 36
[그림 3-7] 양양군 내 다른 서핑 스팟의 지역 구성 모습 ····· 39
[그림 3-8] 양양군 내 다른 서핑 스팟의 지역 구성 형태 ····· 40
[그림 3-9] 연구대상지 내 건축물의 용도별 분포 ····· 42
[그림 3-10] 1단계(2010년~2012년) ····· 47
[그림 3-11] 2단계(2013년~2015년) ····· 48
[그림 3-12] 3단계(2016년~2018년) ····· 49
[그림 3-13] 4단계(2019년~2020년) ····· 50
[그림 3-14] 평당 표준지공시지가 변화 추이(2010-2020) ····· 51
[그림 3-15] 최근 10년간 유사부동산 거래분포 ····· 51
[그림 3-16] 죽도·인구 해변 서핑관광지화의 흐름 종합 ····· 69
[그림 4-1] 연구대상지 내 가로 현황 ····· 71
[그림 4-2] 죽도해변 일대의 인구중앙길 현황 단면 ····· 72
[그림 4-3] 죽도해변 일대의 새나루길 현황 단면 ····· 72
[그림 4-4] 인구리 마을 일대의 인구중앙길 현황 단면 ····· 73
[그림 4-5] 인구해변 일대의 인구길 현황 단면 ····· 73
[그림 4-6] 가로별 입지 형태 파악을 위한 가로 영역 ····· 74
[그림 4-7] A-A', B-B'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 76

[그림 4-8] C1-C1', C2-C2'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 77
[그림 4-9] D-D', E-E'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 78
[그림 4-10] 리모델링 건물에서 닫힌 입면의 소거 단면 다이어그램 ···· 85
[그림 4-11] 리모델링 건물에서 닫힌 입면의 소거 ····· 86
[그림 4-12] 신축 건물에서 전면 공간의 확보 단면 다이어그램 ····· 87
[그림 4-13] 신축 건물에서 전면 공간의 확보 ····· 88
[그림 4-14] 건물 영역의 인접 가로까지 확장 단면 다이어그램 ····· 89
[그림 4-15] 건물 영역의 인접 가로까지 확장 ····· 89
[그림 4-16] 건물 영역의 건너편 가로까지의 확장 단면 다이어그램 ···· 90
[그림 4-17] 건물 영역의 건너편 가로까지의 확장 ····· 90
[그림 4-18] 건물의 입면과 이용 행태 관계 ····· 91
[그림 4-19] 서퍼의 개성이 표출된 인테리어 ····· 94
[그림 4-20] 인구리 마을 내 경관의 변화 ····· 95
[그림 4-21] 인구리 마을 내 벽화 조성 현황 ····· 95
[그림 4-22]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서핑 ····· 97
[그림 4-23] 해양관광 활동 유형별 만족도 ····· 97
[그림 4-24]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캠핑 ····· 98
[그림 4-25]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스케이트보드 ····· 99
[그림 4-26]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바비큐 및 파티 ····· 100
[그림 4-27] 양양서핑페스티벌 현장 사진 ····· 101
[그림 4-28] 그랑블루 페스티벌 현장 사진 ····· 102
[그림 4-29] 보드스왑데이 현장 사진 ····· 103
[그림 4-30] 새해 일출 서핑 현장 사진 ····· 104
[그림 4-31] 해외와 양양지역 서핑 스팟 비치클린활동 ····· 105
[그림 4-32] 갯마을해변의 과거와 현재 모습 ····· 106
[그림 4-33] 바다의 쓰레기와 의류 교환 캠페인 ····· 10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올림픽 개최와 교통 접근성의 개선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서핑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양양 지역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지방도시는 국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지역이 대부분이고 이 지역들은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며 농산어업 쇠퇴와 고령화,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공동화현상에 의해 지역사회 침체가 가중되고 있지만(농림축산식품부, 2017), 양양 지역은 오히려 젊은 인구가 모여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여타의 지방도시와 달리 수 년간의 인구 감소세를 딛고 증가세로 돌아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중이다.

지역 활성화의 중심에는 서핑이 있었다. 하향식으로 수행되는 많은 지방 소도시의 사업들과 달리, 서핑이라는 특정 요소로 인해 활동 주체가 서핑 스팟을 발굴하고 지역에 유입되면서 상향식 활성화를 주도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 차원에서도 서핑을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설정하고 여러 단위사업을 수행해왔다. 한편, 양양군 내에서도 특히 죽도·인구 해변이 속한 인구리와 두창시변리는 가장 먼저 서퍼들이 정착했으며, 가장 많은 변화를 겪으며 마을 전체가 평범한 농어촌에서 서핑관광지로 변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작은 규모의 공간에 급격한 발전 의지가 투영되고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갖춰지지 않았던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여러 단위사업과 홍보사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하향식으로 수행되는 많은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 관광객 중심의 계획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발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고, 더욱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오형은, 2015). 또한 기존 연구

에서는 적절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되면 문화를 창출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상수로 인식(모종린, 2017)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권은 형성과 발전, 쇠퇴의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홍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요 참여자(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유도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역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 활성화의 주요 요인과 과정, 현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서핑관광지의 태초 형성 과정부터 물리적인 변천과 이슈, 사회문화적인 과정과 이슈에 집중하여 공간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서핑관광으로 변화를 겪어온 강원도 양양군 죽도·인구 해변을 연구대상지로 삼아 지역이 서핑관광지로 활성화되어 온 과정과 지역 내 이슈 등 전반적인 변천과정과 구체적인 특성 도출에 대해 연구하고, 향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즉 서핑관광으로 활성화된 지역을 선정,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전에 있어 공간환경적, 인문사회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핑관광지로의 변화가 나타난 죽도·인구 해변과 인구리 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건물, 오픈스페이스, 가로 단위 등의 변화의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서 수 년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드러난 쟁점을 밝힌다.

둘째, 현 시점에서 지역에 나타난 경관 형태와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물리적인 현황과 서핑문화를 함께 살펴보고, 공시적인 관점에서 내외부적으로 드러난 현황과 이슈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지역의 변화를 이끈 주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정착을 위한 노력과 잠재해 있는 이슈 등 내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이슈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어촌 외부공간의 미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추구하는 조경학 본연의 학문적 연구 성과 축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 해안 지역에서 서핑관광지화에 따른 과정과 이슈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다른 해안 지역에서 유사한 과정을 겪을 때 실질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 경험적 변화의 특성과 요인을 통해 서핑관광지의 관리 및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도 갖는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양양군 내 여러 해변 중 서핑관광지로서 가장 활성화되어 온 죽도·인구 해변이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두창시변리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다룬다. 지역의 변화는 해변과 마을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를 해변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로 확장한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죽도·인구 해변 일대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에 집중하며, 과거의 지역 개발 과정에 대한 고찰을 위해 현남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 조선 후기와 19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행정 주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지역 활성화를 이룬 곳이 아닌 지역의 특정 환경 조건 때문에 활동 주체가 유입되어 지역이 활성화된 곳으로서 대표적인 서핑관광지인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죽도·인구 해변 활성화의 핵심 요소였던 서핑과 서핑관광, 그리고 경관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서 서핑문화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다. 또한 본격적인 연구대상지에 대한 탐구에 앞서 양양군과 현남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2010년 전후의 상황을 파악한다. 또한 연구대상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점을 도출한다.

이후 죽도·인구 해변의 입지와 공간적 변천 과정을 여러 문헌자료와 시각 자료를 통해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특성 등을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서핑관광지화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의 특성과 요인을 밝힌다.

서핑관광지로의 변천 과정을 고찰한 후, 현재 연구대상지에 나타난 경관 형태에 집중해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경관을 형성한 요인으로서 서핑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을 함께 검토한다. 이후, 이러한 통시적 분석과 공시적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환경적, 인문사회적 이슈를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안한다. 요컨대 죽도·인구 해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후, 지속적인 서핑관광지로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틀을 이룬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기록 문헌 및 사진, 통계자료, 연구대상지 관련 기사 및 영상 자료를 문헌자료로서 활용하며, 지적도와 현황도면, 현장조사를 통해 가공한 매핑자료를 활용해 분석한다. 사진 및 현황도면, 매핑자료는 수 차례의 답사를 통해 웹상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실제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되었다. 그리고 문헌 및 통계자료, 기사 및 영상자료는 웹상에 존재하는 자료들을 재구성해 사용했다.

또한 연구대상지의 변천 과정에서 내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 현장 심층 인터뷰를 수행해 자료로 활용한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죽도·인구 해변, 서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예능 등에 출연하며 지역에 대한 인식과 정착 과정에서의 노력을 보여주며 지역 활동에 어느 정도 활발히 참여했던 사람들 3명을 최초로 선정하였으며 이메일 연락 후 우선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이후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통해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내용을 적절히 구술해 줄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가로 3명을 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인터뷰는 제작된 질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공유하여 인터뷰 내용을 인지시키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진행했다. 또한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최소한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가 구성된 질문 이외에도 자유롭게 지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 인터뷰는 짧게는 40여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수행하였으며, 녹음 파일은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연구자의 개인 하드드라이브에 암호화된 채 보관하였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각 장별로 연구의 방법과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장은 본 연구의 서론에 해당하며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내용과 방법 및 연구의 흐름에 대해 서술한다.

제2장은 문헌고찰과 기초연구로서, 연구대상지의 핵심 소재가 되는 서핑과 서핑관광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우선 수행한다. 이후 문헌자료를

활용해 양양군과 현남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2010년 전후 상황을 간명히 분석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대상지인 죽도·인구 해변에 대해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문헌자료와 영상자료, 사진자료, 지적도, 현장 답사와 실측, 가공한 매핑자료 등을 통해 대상지의 일반현황을 포함해 지역 형성 초기부터 2010년대 이후 급변해온 과정을 연 단위로 추적해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분석할 수 없었던 지역 내부자들과 활동 주체와의 심층인터뷰를 주 자료로, 영상 자료를 부가적인 자료로 활용해 지역의 변화 과정에서 정착 요인과 이주민들의 노력, 행정과 중재자의 지원 등 정착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의 변화에 따른 상업화와 현재까지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통시적 변화에 따른 현황으로서 경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지를 공시적으로 분석한다. 카카오맵 로드뷰와 현장 답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경관 변화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업종별 분포와 가로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의 공간 구성과 업종 분포를 살펴보며, 지역의 경관을 재구성한 요인들을 서핑문화의 특성과 함께 파악한다. 그리고 지역에 나타난 서핑문화 중에서 특히 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지역이 당면한 과제, 이슈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연구대상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로서 제3장과 제4장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며 당면한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를 지향하기 위한 공간환경적, 인문사회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전체 연구를 요약하며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문헌고찰과 기초연구	· 서핑과 서핑관광 - 서핑과 서핑문화 - 서핑관광 · 양양군 개요 및 관련연구 검토 - 양양군과 현남면 - 2010년 전후 양양군의 변화 -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문헌 연구
제3장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	· 공간적 변천 과정 - 2010년 이전의 죽도·인구 해변 - 일반현황 - 시기별 변화 과정 ·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특성 - 정착 계기와 지역의 매력 - 정착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노력 - 중재자와 행정의 지원 - 지역의 상업화 과정과 현재 · 서핑관광지화의 흐름 종합	문헌 연구 현장 답사 심층 인터뷰 영상자료분석
제4장 서핑관광에 따른 변화과 특성	· 죽도·인구 해변의 경관 변화 - 가로별 입지 형태 - 지역 경관의 변화 양상 -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변화 - 입면 환경의 변화 · 지역에 나타난 서핑문화와 이슈 - 경관 구성 요소로서 서핑문화 - 지역의 환경변화와 대응 노력 · 서핑관광에 따른 특성	문헌 연구 현장 답사 심층 인터뷰 영상자료분석
제5장 결론	· 연구 요약 · 시사점 및 한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문헌고찰과 기초연구

제1절 서핑과 서핑관광

1. 서핑과 서핑문화

1.1. 서핑의 정의와 기원

서핑이란 서퍼가 서프보드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파도의 앞부분을 타고 경사진 면을 오르내리며 해변 쪽으로 이동하는 수상스포츠를 일컫는다. 서핑 경기에서는 선수가 파도를 타면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 경쟁의 기준으로 삼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흥분, 짜릿함 같이 긴장감을 즐기는 해양레저스포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중상류층의 스포츠로 각인된 요트류와는 달리 서핑은 서민적인 친숙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김성귀 2010, 100).

서핑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원전 약 2000년경에 타히티의 폴리네시아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한 기록에 근거하여 현재 하와이를 서핑의 발생지로 보는 학설이 인정받고 있다(김낙중 2010, 217). 당시 폴리네시아인들에게 서핑은 사회적 신분 및 정치권력을 얻는 방법이었다. 서핑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마을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고, 당시 지배층은 가장 훌륭한 보드와 해변을 소유했으며,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서핑 실력을 증명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이규현 2012, 196).

서핑에 대한 기록은 1779년 영국의 제임스 쿡(James Cook)이 폴리네시아와 하와이를 탐험하면서 작성한 항해일지에 처음 소개되었고, 1800년대에는 하와이로 온 유럽의 선교사들에 의해 원주민의 문화가 금지되어 서핑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간간이 이루어지며 기존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서핑기술과 보드제조 기술을 잘 보존한 끝에 후대에 이어졌다. 서핑이 근대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900년대 초반이다. ‘근대 서핑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올림픽 수영에서 3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수상한 듀크 파오아 카하나모쿠(Duke Paoa Kahanamoku, 1890-1968)가 1911년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와이 와이키

키 해변에 후이 날루(Hui Nalu) 클럽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핑클럽을 만들고, 호주와 미국 각 지역에서 초대를 받을 때마다 서핑을 전파하면서 서핑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서핑의 성장은 20세기에 들어서 서핑보드의 외형적인 발전과 서퍼들의 증가로 이루어졌다. 서핑의 발전과 그 문화적인 저변 확대는 하와이의 섬들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호주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김낙중 2010, 218). 특히 서핑인구는 196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음악, 영화 등의 영향을 받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이규현 2012, 197), 1964년에는 국제서핑협회(International Surfing Association, ISA)가 설립되면서 스포츠의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1.2. 서핑문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등장한 서핑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등에 의해 서핑은 전 세계의 대중음악, 영화, 패션 등 많은 문화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1]. 서핑이 하와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바다 지역에서 주로 발전하면서 미국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자기중심의 여가 문화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아갔다. 서퍼들은 다양한 보드가 지급됨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서핑보드를 소유하는 것을 개인적인 취미로 삼고 보드라는 특정한 하위문화 스타일을 형성하여 상품 지향적인 성격을 띠었다(이재정 외 2004, 250). 바다의 낭만을 고스란히 담은 미술 및 디자인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비키니와 보드 쇼츠라는 비치웨어 패션이 등장했고, 서핑이 불가능한 날에도 지상에서 서핑 동작 연습을 위해 서핑보드에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달면서 스케이트보드가 생겨났으며, 스케이트보드는 스노우보드로 분화해나갔다. 이후 이들은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며 전세계로 보급되어 갔고, 관련된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지

1) 16세 소녀가 서핑을 접하며 겪게 되는 스토리의 <기젯(Gidget, 1959)>은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딕 데일(Dick Dale)의 <Let's Go Trippin'>(1961), 서파리즈(The Surfaris)의 <Wipe Out>(1963), 비치보이스(The Beach Boys)의 <Surfin'>(1961) 등의 서프 음악이 히트를 치면서 서핑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이규현 2012, 197).

속적으로 생산되며 서핑문화는 대중화되어갔다.

한편, 서핑문화의 중요한 부분 중 두 가지는 지역주의(localism)와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이다. 지역주의는 서퍼들이 "Local respect, be humble"로 대표되는 정신을 수호하며, 자신이 활동하는 바다를 아끼고 경외하며 파도타기 좋은 바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파도를 타러 온 서퍼들에게 겸손하게 지역의 지형과 파도, 위험요소 등을 인지시켜주며 안전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좋은 의미의 지역주의이지만 한때는 자신의 파도 구역을 정해놓고 외지인이 침범하면 갈등을 빚는 현상까지 극단적인 지역주의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또한 서퍼들이 특히 환경 변화와 보호에 민감한 것은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지상의 환경오염이 흘러들어가는 최종 정착지인 바다를 주 활동무대로 하기 때문이다. 서퍼들이 파도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바다를 느끼면서, 오염된 해양 환경을 극명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오롯이 대면할 수 있다(Paul 2018, 251). 사실 역사적으로 환경운동의 태동은 스포츠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긴 서핑역사를 지닌 서양에서는 서핑활동과 자연과의 관계성 및 환경적 차원에서 의미규정이 일정부분 이루어져 왔다(Paul 2018, 251). 또한 서핑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서핑의 기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주민들이 서핑을 자신들의 문화로 존속시켜온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로 서핑행위를 통한 자연환경과의 일체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자연, 특히 바다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이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숭고함과 존중의 대상으로 서핑행위를 통해 이러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서핑이 원주민만의 스포츠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보다 근본적 이유도 서핑이 제공하는 이와 같은 심리적 요소이다. 서퍼들은 대개 서핑을 통해 바다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고, 미학화하며, 그리고 숭고함을 느끼게 된다(Paul 2018, 254).

이러한 서핑의 태생적인 특성들로 인해 서퍼들은 환경 보호와 변화에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서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비영리 환경보호단체인 Surfrider Foundation 등의 관련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International Surfing Day'로 정하고 30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로컬 해변 정화활동을 펼친다. 세계 각국의 서핑 애호가들이 서핑이 주는 기쁨에 감사하고 각자의 해변을 청소하는 것이다(이규현 2012, 106). 또한, 199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서퍼들의 환경단체 SAS(Surfers Against Sewage)는 서퍼들의 환경인식 증대를 반영하는 예이다. 이 단체는 바다와 해변, 그리고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변 청소를 벌이고 작금의 바다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제로' 공동체와 같은 이념을 표방하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과 서퍼들에게 환경인식을 고취하려 노력한다(Paul 2018, 261-262). 이렇듯 영국과 호주의 서핑단체의 활동 예에서 보듯, 서핑이 단지 지역에서 즐기는 개인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머물지 않고, 환경문제를 현장에서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전파하는 생태문화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서핑문화에 대단히 시사적(Paul 2018, 263)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핑은 단지 수상스포츠 이상으로 강한 정체성을 지닌 독립적이고 총체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편이 바람직하며, 서핑의 역사를 관통하고 모든 서퍼들이 공유하며 소속감을 즐기는 문화적 요소들을 통칭한다(박태인 2018, 191-192). 따라서, 서핑문화(Surf culture)를 요약해 정리하면, 서핑을 둘러싼 사람들, 언어,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스포츠로서 서핑 행위 이상으로 비치웨어, 서핑음악과 스케이트보드와 스노우보드 등으로 분화되어 왔으며, 나아가 지역주의와 환경주의까지 확산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해왔다[2]고 할 수 있다.

2) https://en.wikipedia.org/wiki/Surf_culture

1.3. 대한민국에서 서핑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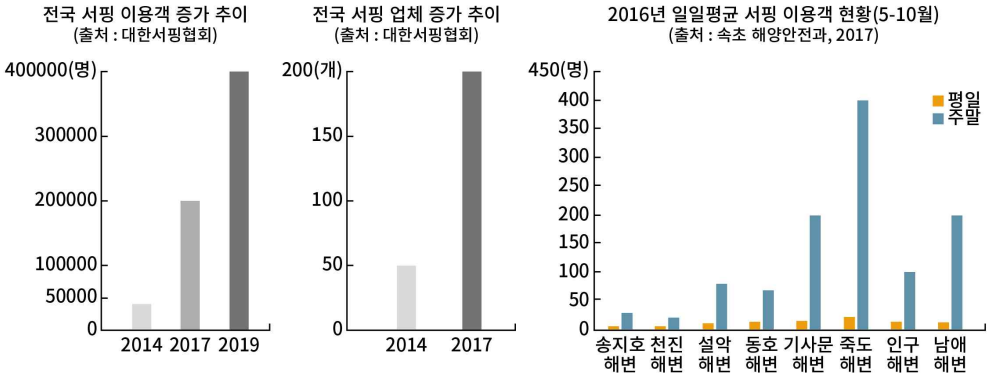
서구권 국가에서 서핑이 하나의 스포츠이자 문화로서 발달한지 수십 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 서핑이 처음 전파된 것은 1990년대 재일교포 프로서핑 선수 출신 이창남 씨가 제주도에 서핑을 보급한 뒤라고 알려져 있다(이규현 2012, 197). 그러나 당시에는 서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널리 퍼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국 유학파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의해 서핑은 서서히 전파되었다. 특히 제주 중문과 부산 송정에는 여름에 좋은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서핑샵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2001년 부산 송정에 공식적으로 한국 최초의 서핑학교 '송정서핑학교'가 생겨났다. 그렇게 한국의 서핑은 주로 제주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스팟이 형성되고 샵들이 들어섰으며, 제주와 부산 여행 중에 서핑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서핑이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서핑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던 시기는 최근 4~5년의 일이다. 4~5년 전부터 연예인들과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셀러브리티들은 서핑 취미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중에게 노출해왔다. JTBC 예능 '효리네 민박'에서 이효리가 석양을 등지고 서핑 보드 위에서 노를 젓는 멋진 모습이 연출되었으며, 배우 윤진서, 이천희·전혜진 부부, 패션디자이너 스티브J&요니P 부부, 작곡가 정재형 등은 SNS와 팟캐스트를 통해 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윤경희, 2017). 이처럼 대중적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들의 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서핑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또, 화려한 면모와 달리 실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도 서핑이 대중화되는 데 한 몫을 했다. 가장 목돈이 드는 서핑 보드의 경우 2015년부터 대형마트에서 입문용 보드는 3만~10만원대에 판매 중이며, 슈트 역시 20만~30만원대에 웬만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성신여대 이향은 교수는 "트렌드는 대중으로부터 하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동참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만들어진다"면서 "특히 하고 싶다는 욕망은 남과 내가 다르다는 거리두기인데, 최근엔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이를 갈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윤경희,

2017). 서핑의 희소성과 접근 가능성은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췄기에 셀럽들을 중심으로 대중에게 확산되며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

이렇듯 서핑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핑을 즐기는 인구 또한 급증하고 있다.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국내 서핑 인구는 2014년에 4만 명, 2017년에 20만 명을 거쳐 2019년에는 40만 명에 이르면서 5년새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서핑샵과 서핑학교 등 서핑 관련 업체 수도 2014년 50여개에서 2017년 200여개로 4배 가량 성장했다. 또한 여가·액티비티 플랫폼 프립(Frip)에 따르면 서핑 여행 상품은 2015년 3개에서 2019년 68개로 약 34배, 서핑 여행 상품 예약 건수는 2015년 7~8월 800건에서 2019년 7~8월 8800건으로 11배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서핑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Paul(2018)은 한국의 서핑문화는 생활스포츠로서 한국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을 내포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사회의 키워드중 하나는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의 'Work Life Balance'의 첫 머리 글자 조합)이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시민들은 바쁜 와중에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인다. 근래의 서핑에 대한 관심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열망의 반영으로, 서핑이 생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Paul 2018, 264)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림 2-1] 서핑의 인기 증가와 양양 일대 해변 이용객 추이

2. 서핑관광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이 서핑문화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서핑산업이 관광산업의 한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서핑에 대한 연구는 관광분야에 서핑을 접목한 서핑관광에 대한 연구가 근래 몇 년에 걸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최호수 2016, 13). 최호수(2016)는 여러 다양한 학자들이 제안한 서핑관광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다.

Buckely는 서핑관광이 모험관광의 유형들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모험관광의 특성에 입각하여 서핑관광을 연구하였다(Buckley 2000, 438). 모험관광은 도전, 자극, 위험, 불확실함, 대조적인 감정, 고귀함, 자극 등의 핵심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험관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모험(관광객의 내적 경험), 여행(교통 수단), 환경(관광지), 활동(관광객의 외적 경험)이라고 했다. 또한, 서핑관광을 레크리에이션 서핑관광과 상업적인 서핑관광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중 상업적인 서핑관광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서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현재 서핑관광객들의 생활양식이 주어진 휴일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한정된 시간과 높아진 경제수준을 바탕으로 서핑을 즐겨야 하는 형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Buckley 2002, 408). 그리고 그는 "서핑관광은 서핑관광객들이 약 40km 이상 집에서부터 떨어져 여행하며, 하룻밤을 보내고, 주로 서핑에 서핑관광객들의 활동적인 여가시간을 쏟도록 구성된 구매 가능한 휴일 패키지"라고 정의했다.

Fluker는 서핑관광을 스포츠관광의 넓은 범주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는 "서핑관광은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혹은 국외 지역에서는 12개월을 넘기지 않으며, 적어도 하루를 체류하고, 그곳에서 서퍼들은 파도의 전진하는 가속도의 힘에 의지해 서핑 스포츠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라고 서핑관광을 정의했다.

Ponting은 서퍼들의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상업적인 서핑관광의 필요에 의거하여 서핑관광을 정의했다. 그는 서핑관광의 용어 재정립을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서핑관광의 용어인 서프 투어리즘(surf tourism)에서 서핑 투어리즘으로(surfing tourism)으로 전환하여 연

구하였다. 그 이유는 서프(surf)는 오직 파도를 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서핑(surfing)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서핑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독자적인 그룹으로서의 입지와 서핑과 관련된 관광활동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핑관광의 선행연구와 동향을 언급하면서, 서핑관광을 레크리에이션 서핑관광과 상업적인 서핑관광을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onting 2008, 23-25). 그리고 그는 "서핑관광은 기본적으로 서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대와 함께 적어도 하루 서퍼들의 일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나 서퍼들에 의해 행해지는 여행과 일시적인 체재"라고 서핑관광을 정의했다.

Martin and Assenov는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파도를 찾아 이동하는 서퍼들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자는 태국 푸켓을 방문하는 서핑관광객들을 특수관심 관광객(SIT: Special Interest Tourism)으로 보았고, 서핑과 서핑관광은 함께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서핑관광객들은 자연자원과 스포츠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목적지에 집중하며, 서핑이라는 스포츠 관점에서는 새로운 서핑 목적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핑관광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모험관광(Adventure Tourism), 해양관광(Marine Tourism) 혹은 스포츠(sports),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그리고 교육(education) 등을 포함한 다른 모든 니치관광(Niche Tourism)들이 폭넓게 서핑관광 연구에 적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Martin & Assenov 2011, 77-87). 그리고 그들은 "첫 경험 서퍼(first time surfers), 초보자(beginners), 고도로 숙련된 서퍼(highly skilled surfers)를 포함한 서핑이라는 스포츠에 의도적으로 연관된 관광형태"라고 서핑관광을 정의했다.

그리고 이상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최호수(2016)는 “서핑관광은 관광객들이 서핑을 주목적으로 하고,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서핑 포인트를 관광 목적지로 하여 개별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이동 후, 서핑관광 목적지에서 서핑 관련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이론을 반영하면 서핑관광은 서핑행위 자체뿐만 아

니라 관광활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핑관광이 이루어지는 서핑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해안'이다. 즉, 서핑관광객이 서핑관광을 할 때 해양관광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관광의 범주 선상에 놓고 다양한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최호수 2016, 17-18).

[표 2-1] 서핑관광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최호수 2016, 17)

연구자	정의
Buckely (2002)	서핑관광은 서핑관광객들이 약 40km 이상 집에서부터 떨어져 여행하며, 하룻밤을 보내고, 주로 서핑에 서핑관광객들의 활동적인 여가시간을 쏟도록 구성된 구매 가능한 휴일 패키지
Fluker (2003)	서핑관광은 사람들이 관광하면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혹은 국외 지역에서는 12개월을 넘기지 않으며, 적어도 하루를 체류하고, 그곳에서 서퍼들은 파도의 전진하는 가속도의 힘에 의지해 서핑 스포츠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
Ponting (2008)	서핑관광은 기본적으로 서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대와 함께 적어도 하루 서퍼들의 일상적인 거주지를 벗어나 서퍼들에 의해 행해지는 여행과 일시적인 체재
Martin & Assenov (2011)	첫 경험 서퍼(first time surfers), 초보자(beginners), 고도로 숙련된 서퍼(highly skilled surfers)를 포함한 서핑이라는 스포츠에 의도적으로 연관된 관광형태
최호수 (2016)	서핑관광은 관광객들이 서핑을 주목적으로 하고,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서핑 포인트를 관광 목적지로 하여 개별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을 통해 일정한 거리를 이동 후, 서핑관광 목적지에서 서핑 관련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서핑관광은 기본적으로 서핑 행위 자체를 위한 목적 여행일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관련된 여러 관광활동을 하는 것 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핑관광지는 그러한 서핑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양양과 제주, 부산을 대표적인 서핑관광지로 볼 수 있다.

제2절 양양군 개요 및 관련연구 검토

1. 양양군과 현남면

1.1. 양양군

양양군은 면적 629.3㎢, 동해안에 약 50km 연하고 서측의 태백산맥의 해발 1,000m이상의 험준한 산들(약수산(1,306m), 점봉산(1,424m), 설악산(1,708m) 등)을 접하고 있으며, 오대산 두노봉을 발원지로하여 37.1km에 달하는 동해안에서 가장 긴 하천인 남대천의 하류지역이 위치하는 영동지방의 작은 군이다. 양양군은 국도 7호선과 동해고속도로를 통해 인접 동해안 시군과 연결되며, 2017년 개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부터 2시간 내외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고 있다. 양양군의 인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해 왔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딛고 2018년부터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동지방에서 강릉, 속초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중인 몇 안되는 시군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기준 전체 인구 27,868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8,217명으로서 고령화율이 약 29.5%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된 지역이며,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2-2] 양양군과 현남면의 인구 증감, 양양군 통계연보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인구수(증감)		65세이상 인구수(증감)		고령인구비율(%)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양양군	현남면
2010.8	27,802	3,349	5,885	930	21.2	27.8
2011.8	27,978(+176)	3,367(+18)	6,067(+182)	966(+36)	21.7	28.7
2012.8	27,874(-104)	3,333(-34)	6,314(+247)	1,001(+35)	22.7	30.0
2013.8	27,664(-210)	3,283(-50)	6,513(+199)	1,029(+28)	23.5	31.3
2014.8	27,596(-268)	3,214(-69)	6,696(+183)	1,067(+38)	24.3	33.2
2015.8	27,496(-168)	3.149(-65)	6,870(+174)	1,072(+5)	25.0	34.0
2016.8	27,314(-182)	3,185(+36)	6,985(+115)	1,104(+32)	25.6	34.7
2017.8	27,302(-12)	3,138(-47)	7,229(+244)	1,139(+35)	26.5	36.3
2018.8	27,319(+17)	3,125(-13)	7,471(+242)	1,149(+10)	27.3	36.8
2019.8	27,643(+324)	3,072(-53)	7,828(+357)	1,192(+43)	28.3	38.8
2020.8	27,868(-225)	3,054(-18)	8,217(+389)	1,225(+33)	29.5	40.1

관광자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양양8경(남대천, 대청봉, 오색령(한계령), 오색주전골, 하조대, 죽도정, 남애항, 낙산사 의상대)이 있으며, 15개의 산/계곡/폭포와 21개의 해변이 분포해 있다. 또한 낙산사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찰과 고인돌과 선사시대 유적지, 8개의 자연 휴양림과 온천, 약수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양양군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지역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축제의 대중화를 위하여 여러 지역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가을에 소나무 숲에서 채취 가능한 송이를 활용한 송이축제와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활용한 연어축제가 개최되어왔으며, 2014년부터는 양양서핑페스티벌이 추가되어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표 2-3] 양양군의 관광자원

구분	명칭
양양8경	남대천, 대청봉, 오색령(한계령), 오색주전골, 하조대, 죽도정, 남애항, 낙산사 의상대
산/계곡/폭포	갈천계곡, 공수전계곡, 미천골계곡, 오색용소폭포, 어성전계곡 등 15개
해변	기사문, 광진, 낙산, 동산, 물치, 죽도 해변 등 21개
휴양림/온천	미천골 자연휴양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등 8곳
문화재/유적	낙산사, 범부리 고인돌, 서림사지, 오산리 선사유적, 양양향교 등

[표 2-4] 양양군의 주요 축제

행사명	장소(일시)	행사내용	주최
송이축제	남대천 둔치 (9~10월 중 5일)	송이 채취 현장체험 및 생태견학 등 체험형 축제	양양군
연어축제	남대천 일대 (10월 중 8일)	연어맨손잡이체험 등	양양군
현산 문화제	남대천 둔치 (6월 중 2일)	불교제등행렬, 양주방어사 행차 등 제전 및 연신행렬	현산문화재위원회
양양해맞이 행사	낙산사 등 (12.31-1.1)	타종식 등	양양군, 낙산사
양양서핑 페스티벌	죽도해변 (10월 중 3일)	서핑대회, 뮤직페스티벌, 비치마켓 등 서핑 관련 대회 및 행사	강원도, 양양군
그랑블루 페스티벌	죽도해변 및 인구리, 두창시변리 일대 (7~8월 중 4일)	선셋공연, 선라이즈 요가, 마을극장 영화상영, 마을벽화제작, 비치클린행사 등	그랑블루페스티벌 기획단

1.2. 현남면

현남면은 양양군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양양군 전체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64.34㎢에 21개의 법정리로 구성된 1,733세대 3,054명이 거주중인 지역이고, 2020년 8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225명으로 전체의 약 40.1%가 고령자로서 양양군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고령화율을 보여주는 면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는 별개로 관광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양양군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강릉시와 가까워 강릉을 생활권으로 둘 수 있다는 점, 고속도로 IC가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권역 내 해안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 수심이 얕아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죽도, 인구, 동산, 남애, 지경 해변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고, 양양지역에서 유명한 서핑 스팟들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여름철 양양군의 주요 해안 관광지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권동희(2013)의 연구에 따르면, 동해안 낭만가도[3] 고성~삼척 해안에 위치한 총 80개의 바위지형경관 중 약 43개가 양양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도 죽도해변에 18곳, 동산해변에 11곳, 휴휴암에 10곳의 바위지형 노두가 관찰되었다. 즉, 현남면 해변은 단순한 해양레저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지오투어리즘 스팟으로서도 매우 가치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바위지형경관과 더불어 죽도가 섬처럼 존재하던 시절인 14세기~18세기 중반에는 해안 경관과 죽도 조망을 위한 관란정(觀瀾亭)이 존재해 왔으며, 예로부터 해안 풍치를 즐겨왔던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노재현, 2019). 이렇듯 오래전부터 빼어난 경관 감상을 위한 장소로 기능해 온 지역, 독특한 바위지형경관이 발달한 지역, 긴 해변과 해양레포츠가 발달한 지역으로서 현남면은 양양군과 강릉시 사이의 주된 관광 지역으로 기능해왔다.

---

3) 동해안 낭만가도(浪漫街道, Romantic Road of Korea)는 강원도와 6개 시,군이 60억원을 들여 2009년~2011년 고성~삼척 간 국도와 지방도 240km를 연결해 독특한 관광 루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그림 2-2] 현남면, 현북면 주요 관광지와 죽도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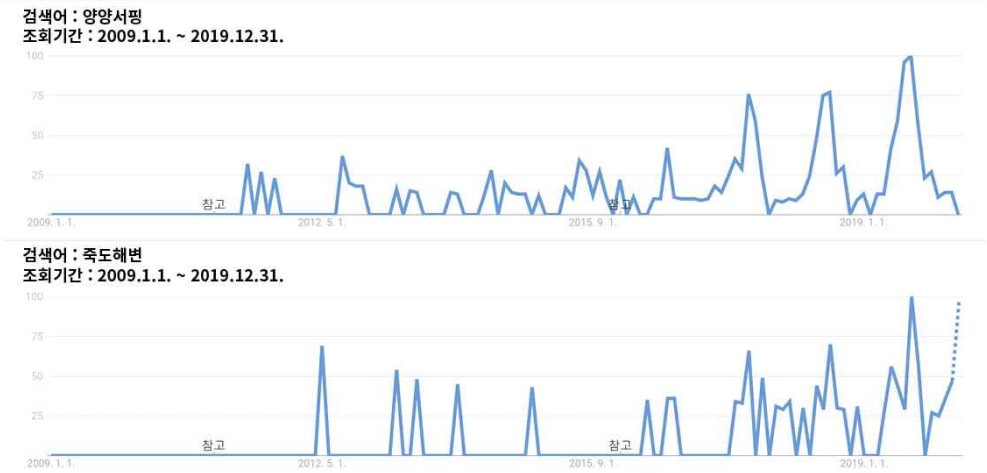
현남면은 고구려시대에는 혈산현, 신라시대에는 동산현에 속해있었으며,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강릉대도호부에 속해 있었다. 현남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동산현의 동산 남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지어졌으며, 1955년~1962년에는 강릉시 명주군 소속이었으나 1963년 양양군으로 환원되었다. 농업과 어업이 반반 정도를 이루며,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양양읍이 아닌 강릉과 주문진을 주 생활권으로 두고 있다.(양양군 홈페이지 마을안내(2020)).

현남면이 양양군에 환원된 뒤 행정구역으로서 모습을 갖춰오는 동안에 현남면의 중심 마을은 인구리였다. 현남면사무소가 인구리 19-1에 1977년 입지하고, 1981년 현남우체국이 생겨난 이래로 현남파출소, 현남면 보건지소, 현남면 복지회관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위치하게 되면서 인구리는 현남면의 지리적, 행정적 중심지로 기능해왔던 것이다.

2. 2010년 전후 양양군의 변화

자연경관과 소수의 관광자원, 그리고 가을에 집중된 축제들이 지역 관광의 주를 이루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 이슈를 함께 가지고 있던 양양군은 2010년 이후 서핑에 적합한 장소로 소수의 서퍼들에게 각광받으며 서핑 목적 방문객이 증가하고 양양군의 도시 이미지가 기존의 자연경관, 관광자원을 강조하던 것에서 서핑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갔다. 강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양양군 관광객 수는 2011년 약 550만명에서 2018년 1천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또한 양양군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통계에 따르면 양양의 서핑 활동이 SNS와 예능을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한 2014~2015년에는 양양군 해수욕장 이용객이 한 해만에 110만명 증가했다. 주요 서핑 스팟은 대표적으로 설악, 동호, 중광정리, 기사문, 남애, 죽도·인구 해변이 있으며, 특히 중광정리 해변에는 1km에 걸친 서핑 전용 해변인 Surfyy Beach가 2015년 개장했고, 해안선 길이가 긴 남애, 낙산 등의 해변에서는 해수욕과 서핑 구역을 나눠놓기도 했다.

양양이 특히 급격히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광역적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서울-강릉 KTX 고속전철,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핑 스팟을 연결하는 셔틀 서비스[4] 등으로 인해 양양 지역은 제주, 부산에 비해 수도권 접근성이 월등히 좋다는 점이 있다. 또한 민간에 개방된 21개의 해변과 군 경계철책 철거[5]로 개방될 해변까지 수많은 해변이 짧게



[그림 2-3] 구글트렌드 검색 관심도 추이

는 2km, 길게는 7km 간격으로 위치해있어 상호 연결성 또한 뛰어나다. 양양군 해안은 전체적으로 섬이 없고 수심이 낮아 파도가 형성되기 좋으며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져있어 암초로 이루어진 곳 보다 안전해 초보자가 배우기에 적합한(이규현, 2012)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다양한 해변이 존재해 미기후에 따른 다양한 파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4] 국내, 양양군 내 서핑 스팟

양양군의 여러 해변 중 죽도·인구 해변은 가장 대표적인 서핑 스팟이다. 서퍼들의 정착에 따라 문화, 상업 환경이 함께 정착하게 되면서 일대가 수년에 걸쳐 활성화 되면서 현재는 양양 지역 전체에 분포한 약 67개의 서핑샵 중 죽도·인구 해변에 약 30개의 서핑 관련 업체들이 몰려있으며(최정훈, 2019), 숙박시설, 음식점, 렌탈샵, 유흥시설 등의 발달도 뒤따

4) KLOOK, ACTRIP 등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가 존재하며 강남, 사당, 종로, 왕십리, 신도림 등에서 출발하며 동해안의 주요 서핑 스팟을 목적지로 한다.
5) 강원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군 경계철책 총 183.6km 중 64.7km를 철거했으며, 2019년부터 27.3km를 철거하는 2단계 사업과 2020년부터 38.85km를 철거하는 3, 4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르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빅데이터 통계 결과에서 죽도해변이 해양액티비티를 즐기기 좋은 해수욕장 1위에 선정되었고, 20-30대의 연간 방문객 비율이 31.4%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해 죽도·인구 해변에 대한 유명세와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서핑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가와 지역 활성화로 인해 죽도·인구 해변과 동해안의 서핑문화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 제작되었다. 또한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발생하는 이슈와 서핑문화를 담은 영화와 예능 등의 콘텐츠가 등장했으며,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정착, 원주민과의 갈등과 화해, 관광객의 유입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 2-5] 연구대상지와 서핑을 소재로 한 영상자료

장르	제목	방송 시기	제작자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 - 파도가 치면 서핑을*	2015. 10. 23.	EBS
	한국기행 - 내 맘대로 산다 1부 냉정과 열정 사이	2017. 3. 6.	EBS
	한국기행 - 나는 겨울로 살기로 했다 3부 바람 분다, 놀러 가자	2018. 2. 28.	EBS
	다큐공감 210회	2017. 8. 5.	KBS
	다큐멘터리 3일 539회	2018. 7. 29.	KBS
	특집 다큐 시티 서퍼	2019. 8. 10.	KBS
	양양서핑	2018. 10. 20.	G1강원민방
	THE WINTER SURF1	2015. 3. 11.	DGK Films
	THE WINTER SURF2 : Passion	2019. 3. 13.	DGK Films
영화	*죽도 서핑 다이어리 (감독 이현승)*	2019	스튜디오블루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감독 심요한)	2020	K'ARTS
예능	*태우로와*	2019. 5. 16. ~ 2019. 8. 16.	WSB FARM
	서핑하우스	2019. 7. 21. ~ 2019. 9. 8.	JTBC
	바다가 들린다	2019. 8. 4. ~ 2019. 8. 25.	MBN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양양군은 여러 지원사업과 발전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은 [표 2-6]과 같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요에 대응한 시설확충 사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 홍보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해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 샤워장과 관광편의시설을 비롯한 여러 기반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수행된 단위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 대부분은 지원 시설 조성과 조형물 설치, 도로 정비, 지역 홍보 위주라고 판단된다. 서핑과 서핑문화의 유입으로 활성화된 죽도·인구 해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선행 고민 없이 여러 해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러 해변에 대한 기반시설 및 홍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은 재고해볼만하다.

[표 2-6] 연구대상지 관련 사업 현황 출처:양양군 보도자료 재구성

사업명	세부 내용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 사업기간 : 2013년 - 2016년 / 사업비 : 4,430백만원 · 사업내용 ; - 녹지조성, 관광편의시설 조성 -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조성, 캠핑장, 샤워장 설치
죽도정 난간정비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죽도정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5월 / 사업비 : 118백만원 · 사업내용 ; 높이 19.3m, 상폭 12m, 저폭 7m, 4층규모 죽도를 상징하는 대나무 격자 무늬 전망대 설치
군계획도로 정비 및 주차공원 조성공사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비 : 556백만원 · 사업내용 ; - 389m 구간 해안도로 차선 연장 - 죽도해변 중심가로 폭 3-5m 도로 확장 및 차량 40여대 주차공간 확보 - 군유지 활용 차량 60여대 수용 가능한 주차장 조성 - 해양종합레포츠센터 인근 소규모 임야를 활용해 3,374㎡ 규모의 공원형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군내 13개 해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비 : 2,150백만원 · 사업내용 ; - 2019년 : 서핑 홍보간판, 조형물, 휴게쉼터, 시계탑 등 - 2020년 : 홍보 리플렛, 기념품개발, 온실돔하우스, 볼파크 등 - 2021년 : 어촌예술문화공간, 트릭아트, 파사드 정비 등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시변리 일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 조형물과 포토존을 갖춘 서핑테마거리(700m) - 프리마켓 공원 조성(1,000㎡) 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최근 10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연구대상지이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다. 권동희(2013)는 지리학의 관점에서 동해안 낭만가도의 바위지형경관을 탐구했으며, 연구대상지인 현남면 죽도해변 일대에 바위지형경관의 분포가 두드러짐을 주장했다. 또한 노재현(2019)은 죽도(竹島)에 집중해 연구대상지 일대의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죽도 경관의 올바른 인식과 경관자원 탐색의 일환으로 지명과 비정(批正)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서핑관광지화에 따른 지역에 대한 연구 또한 두 차례 수행되었다. 조영상(2016)은 관광의 관점에서 인구리, 시변리, 동산리를 대상으로 마을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테마해변 조성을 주장했다. 대상지에 대한 SWOT분석과 설문 등을 통해 지역을 분석했으며, 대상지가 서핑이외에 관광 자원이 부족함에 착안해 지역을 관광지로서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례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경관형성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마을의 경관적 가치를 발굴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엄철호(2019)는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스포츠관광 개발 초기 지역성장 및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개발에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스포츠관광 개발 이전 지역주민 간 관계는 정서적 연대에 기반을 둔 원만한 형태를 보였으며, 주민 간 갈등은 크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스포츠관광 개발 이후 금전적 문제와 결합된 주민 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 여부에 따라 기존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 2-7] 연구대상지 관련 선행연구

연구명	연구자	주요 내용
동해안 낭만가도의 바위지형경관 특성과 활용방안	권동희 (2013)	동해안 낭만가도에 발달한 총 80개의 바위지형을 조사, 분석해 학술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지형경관을 가진 장소에 대한 관광자원 고려 가능성 제안
테마 해변 조성을 통한 어촌 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중심으로	조영상 (2016)	인구리, 시변리, 동산리를 대상으로 한 마을관광 활성화 방안으로서 테마 해변 조성 제안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 :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엄철호 (2019)	스포츠관광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스포츠관광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고자 한 연구
양양 죽도의 장소성과 지형경관의 지명 고찰 및 비정	노재현 (2019)	죽도 장소성과 자연경관의 특성을 정리하는 한편 전래 문화경관에 대한 지명 고찰과 경물 비정(批正)을 추구한 연구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문헌에 제시되지 않은 공간적, 경관적 변천과정과 흐름을 고찰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직접 듣고 현 실태를 파악하여 실제적 정보를 기록하였다.

지역에 대한 일부 선행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10년 사이에 서핑관광지로 정체성이 급변해 온 죽도·인구 해변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변천 과정과 현 세태를 파악하고, 실제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서핑관광지인 죽도·인구 해변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죽도·인구 해변의 태초 형성과정부터 현 실태까지에 집중해 공간적, 경관적인 변화와 지역 내부자의 경험을 함께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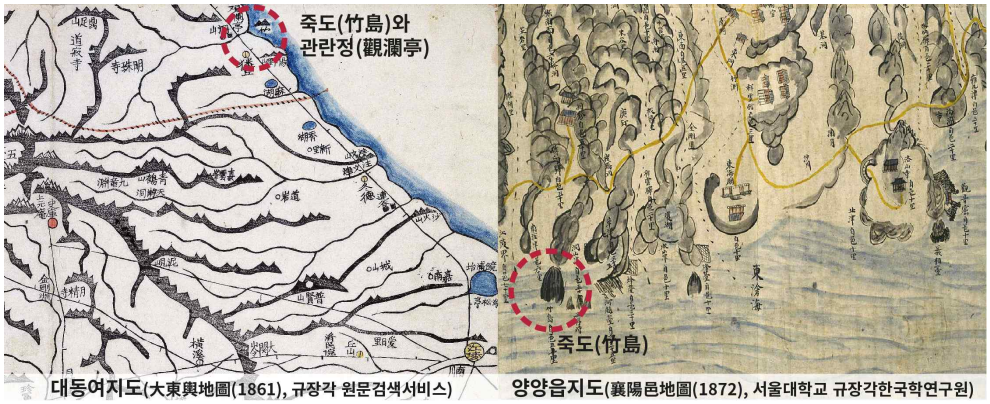
제3장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

제1절 공간적 변천 과정

1. 2010년 이전의 죽도·인구 해변

연구대상지 일대는 송림으로 인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다가 인구역(驎駒驛)이 설치된 후 민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엄철호 2019, 35). 고려말 학자인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의 시에서 관란정(觀瀾亭, 현재 시변리 46-1로 추정) 주변의 대표적 취경(聚景) 요소로 푸른 대나무와 흰 모래를 언급하고 있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권지사십사 강원도 양양도호부의 '산천조(山川條)' 죽도 기록에서도 관란정과 푸른 대나무, 죽도 아래에 즐비한 둥근 돌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이러한 기술 내용으로 보아 관란정 일대와 죽도가 바다로 인해 분리되어 있었고, 주변에 울창한 노송들이 군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되며(노재현 2019, 40-41), 19세기 이후 퇴식작용에 의해 형성된 육계사주에 의해 죽도는 육계도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현대기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성사진과 지도를 활용해 통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그림[3-2]). 1918년 지도를 보면 죽도가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가 되었으며, 지역에 정착해 살던 10가구 미만의 사람들이 육계사주를 활용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1947년의 위성사진에서는 현재



[그림 3-1] 대동여지도와 양양읍지도에서 죽도 위치

인구중앙길의 전신인 길이 새로 생겼으며, 동시에 마을이 해변가 쪽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6년 신문[6]에서는 '인구리 부인회'가 1932년 창립되었고 약 40여명의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작할 논을 얻어 경작, 분배하며 수입을 올려 자선사업, 교육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볼 때, 마을 내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며 정착해가는 시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1922년 현 인구초등학교의 전신인 인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면서 교육 서비스까지 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게 되었다.

1954년까지 마을은 지속적으로 커졌으며, 1979년 지도에서 해변과 해송천에 제방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제방으로 인해 안쪽의 마을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1979년~1999년에 인구리에는 현남면사무소, 현남면 보건지소, 천주교 인구공소, 현남중앙교회 등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인구리는 현남면의 중심지역으로 변화해 나갔다. 그리고 1998년 5월 28일에 국도 7호선의 인구리~손양면 간리까지의 14.2km구간이 개통되면서 일대 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때까지는 마을의 확산과 변화가 전면적으로 바뀌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07년 지도를 보면 인구리 일대에 8년만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진행된 해안지구 구획정리사업[7]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과 같은 도시적인 구획이 생겨났으며, 같은 시기에 진행된 인구항 건립[8]으로 인해 일대 해양 환경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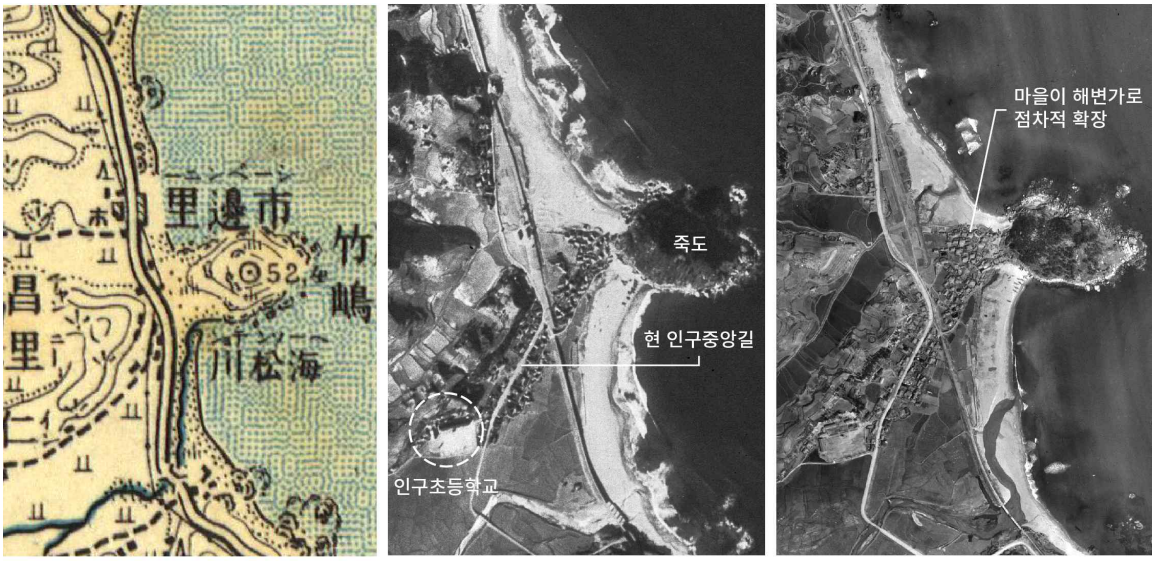
이렇듯 죽도·인구 해변 지역은 지속적으로 현대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나 2010년대 이전까지는 한적한 마을과 해수욕장이 있는 평범한 지역이었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과 어업·농업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여러 이슈가 있는 지역이었다. 지역이 서핑으로 급변하기 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마을 주민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의 한 대목이 있다.

"서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름철 한 보름정도 관광객들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절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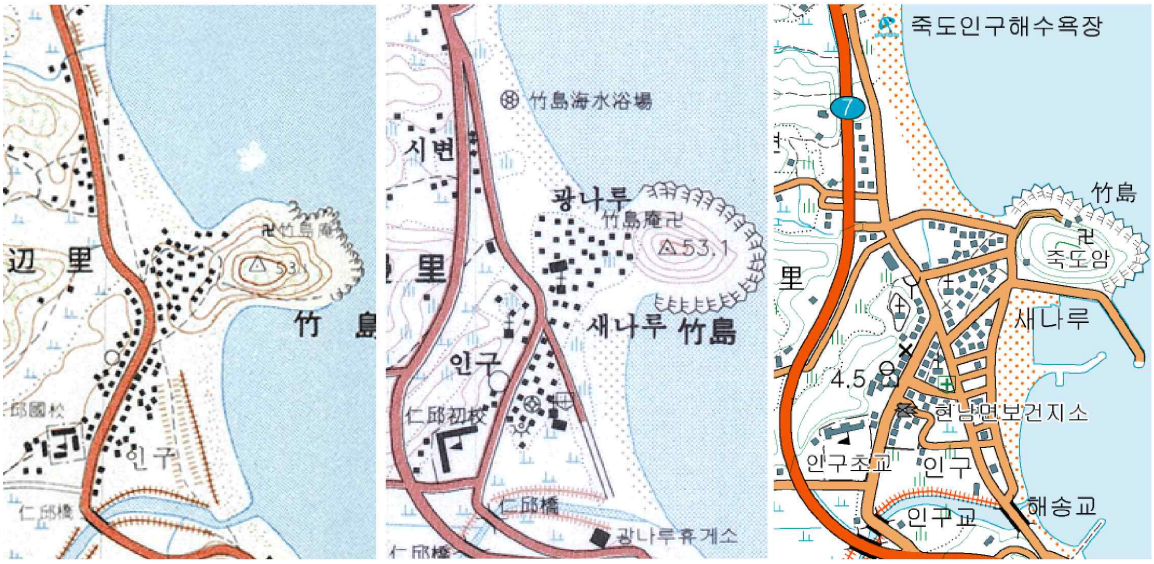
<하나뿐인 지구 - 파도가 치면 서핑을> (2015. 10. 23.), 서울:EBS.

---

6) 동아일보(1936.5.11.), "婦人會員들이 共同으로耕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7) 양양군고시 제 2002-12호, 인구해안지구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환지계획확정변경인가고시, 2002.3.2.
8) 인구항은 2010년 개발계획과 2019년~2020년 공사를 통해 추가로 연장되어왔다.



1918 1947 1954



1979 1999 2007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 해안, 강변 제방 축조
- 도로 및 환경 정비 시작

-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중심지역으로 변화
- 7번국도 완공(1998. 5.)

- 인구해안지구 도시계획수립(2002) 및 시행
- 인구해변 일대 상업구역 형성
- 어항(인구항) 건설

[그림 3-2] 1900~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대상지의 변천

평범한 농어촌 마을이었던 연구 대상지 - 현남면 추곡수매(秋穀收買) 모습(1990)
(좌:현남면사무소 앞 대로변 / 우:현남면사무소 앞 주차장 일대, 출처 : 양양군청)

인구항 건설 이전의 인구해변 (2004, 출처 : www.gangwon.to/gwtour)

군 철책 제거 이전의 죽도해변 (2007, 출처 : blog.naver.com/optos/30013813786)

[그림 3-3] 2010년대 이전 연구대상지의 모습

2. 일반현황

본 연구에서는 죽도·인구 해변 일대를 포함한 인구리, 두창시변리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공간적 변천을 검토하는데 있어 조사구역을 국도7호선 동측부터 해변까지의 마을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해당 연구대상지의 대략적인 면적은 440,000㎡이며 인구리, 두창시변리 마을과 죽도해변, 인구해변과 죽도(竹島)까지 포함한다. 연구대상지 내 전체 건물 동수는 총 267동이며, 2010년도 이후 리모델링, 신축 등의 변화를 겪어 온 건물 동수는 총 90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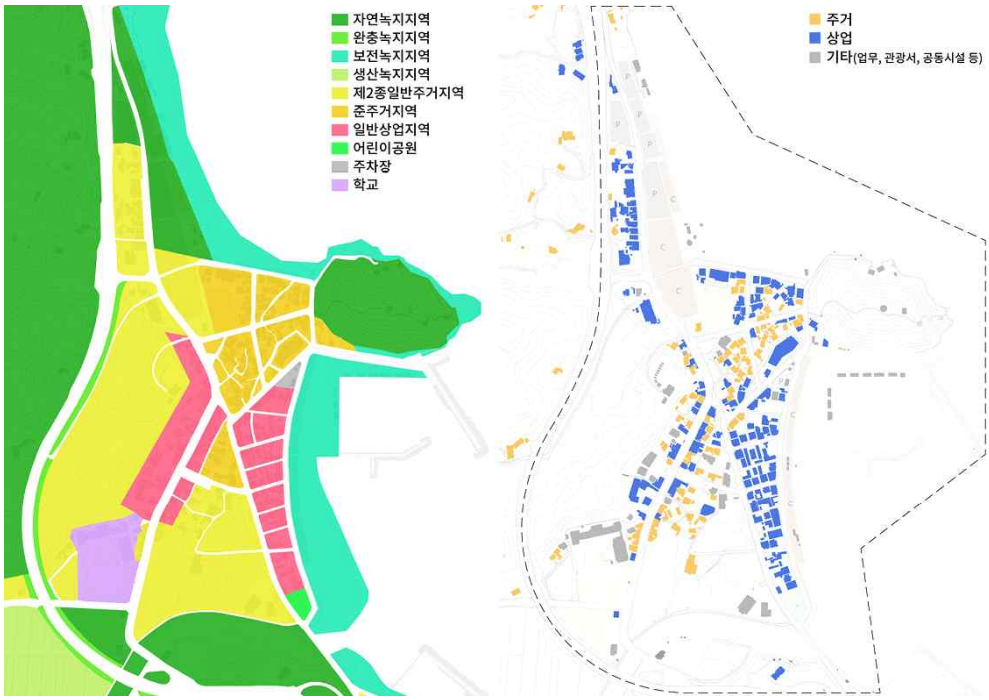
[그림 3-4] 죽도·인구 해변의 일반현황

2.1. 토지이용과 건축물 현황

지역의 물리적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 위에 건축된 건물들의 쓰임(사용 용도)를 세분화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르면 해변 지역은 공통적으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죽도해변 인근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반면에 인구해변 일대는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두 해변이 현재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중심부 일대 또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배후 주거지는 대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준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서 모두 건폐율 60%라는 높은 비율을 갖고 있어 1층부를 상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의 토지 이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는 추후 세분화해 분석하겠지만, 크게 주거, 상업, 기타서비스시설(관공서, 종교, 공동시설 등)로 나눠볼 수 있다.[9]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용도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2020년 9월 기준)해 용도를 파악하고 혼합된 용도의 경우 특정 용도의 점유비율이 높거나 1층부의 용도를 중심으로 주 용도를 결정하였다. 또한 현재 건축중이지만 용도가 확정된 건물도 포함시켰다. [그림 3-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구리, 두창시변리 지역의 총 267동의 건축물 중 51%(135동)가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33%(88동)가 주거용도, 나머지 16%(44동)가 기타서비스 용도로 쓰이고 있다.

9) '상업'에는 숙박, 식음, 판매, 서핑 및 스쿠버 관련 시설이 포함되며, '주거'에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된다. '기타서비스시설'에는 종교, 일반서비스, 공공업무, 관광휴게, 어업관련시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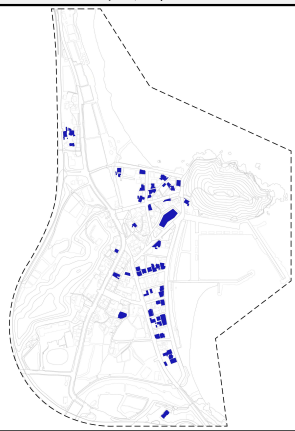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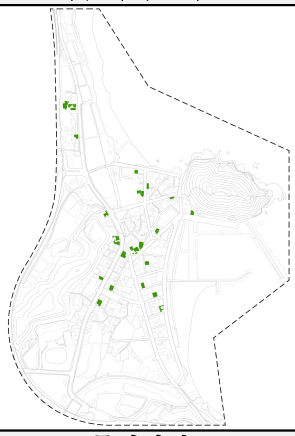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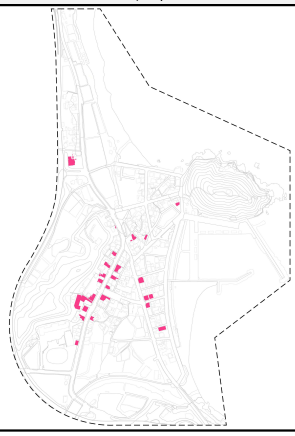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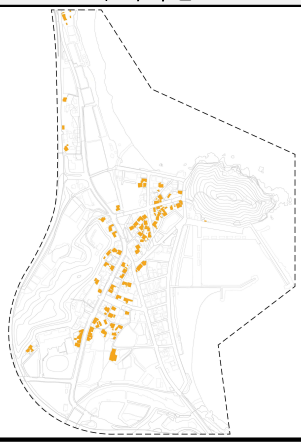


[그림 3-5] 연구대상지 지적편집도 및 주 용도 이용

구체적인 용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총 87동으로 가장 많다. 서핑관광지로 변화했음에도 현남면의 중심 주거지로서 원주민들의 거주 비율이 높기에 아직까지 주거 분포가 두드러진다. 서핑관련건물은 28개로, 대부분 죽도해변에 위치해 있어 서핑샵들이 주를 이루며, 일부 숙박시설이 입점한 특징을 지닌다. 식음서비스시설은 23동으로 마을 곳곳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자세한 업종으로는 해변쪽에는 햄버거, 양식 요리집이 자리잡고 있고, 마을쪽으로는 한식 위주로 구성된 특징을 가진다.

숙박시설은 49동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숙박시설은 인구해변에 주로 분포하고, 대부분 호텔, 모텔등 4층 이상이며, 1층부는 편의점, 상점, 서핑샵, 카페, 음식점 등의 다양한 상업용도로 활용되고 있기에 건물 용도 기준으로 집계된 판매시설(26동), 서핑관련시설(28동), 식음서비스시설(23동)의 수 보다 실제 판매시설과 서핑관련시설, 식음서비스시설의 업체 수는 훨씬 많은 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 건물 용도별 분포 형태

주용도	
서핑관련시설	숙박시설
	
식음서비스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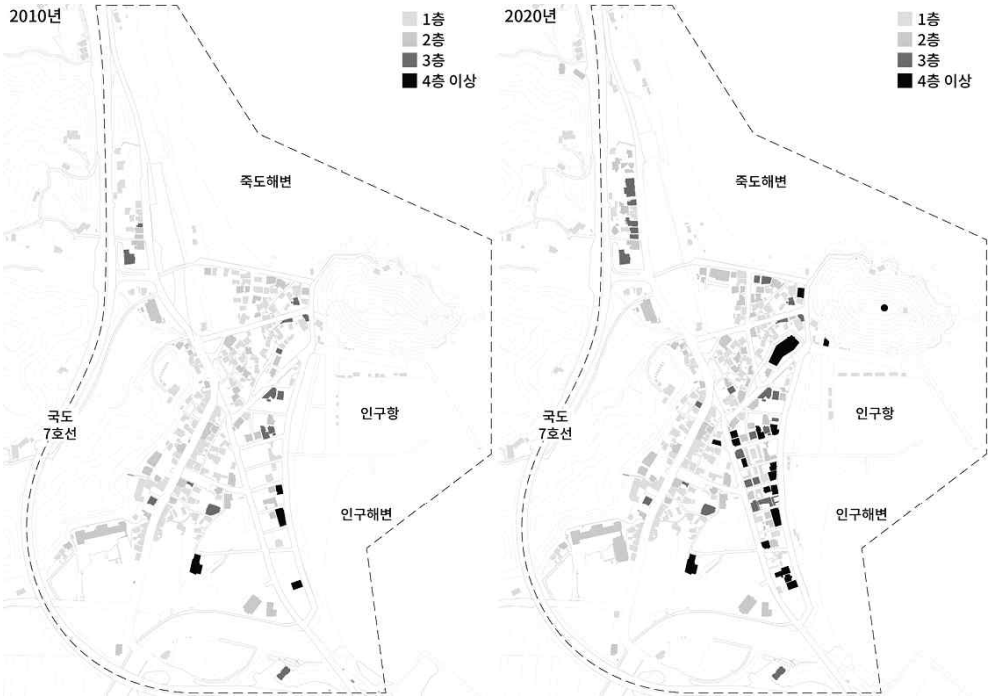
2.2. 건축물 층수 현황

건물의 높이는 지역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체감되어진다. 토지의 집약적인 이용 현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외관, 가로의 규모와 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서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좌우한다.

[표 3-2] 건축물 층수별 구성 비

층수	건물 동 수	
	동 수	구성비(%)
1층	157	59
2층	64	24
3층	27	10
4층 이상	19	7
계	267	100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체의 59%(157동)가 1층 규모의 건축물이고, 24%(64동)가 2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1~2층 건축물이 83%(221동)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3~4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은 2010년 18동에서 현재는 49동으로 증가했다. 고층건물이 주로 입지한 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인구 해변 지역이고, 죽도 해변과 마을 일대는 건물 규모의 변화는 적었다.



[그림 3-6] 연구대상지 내 건축물 층수 비교(2010/2020)

2.3. 양양 지역 내 해변과의 차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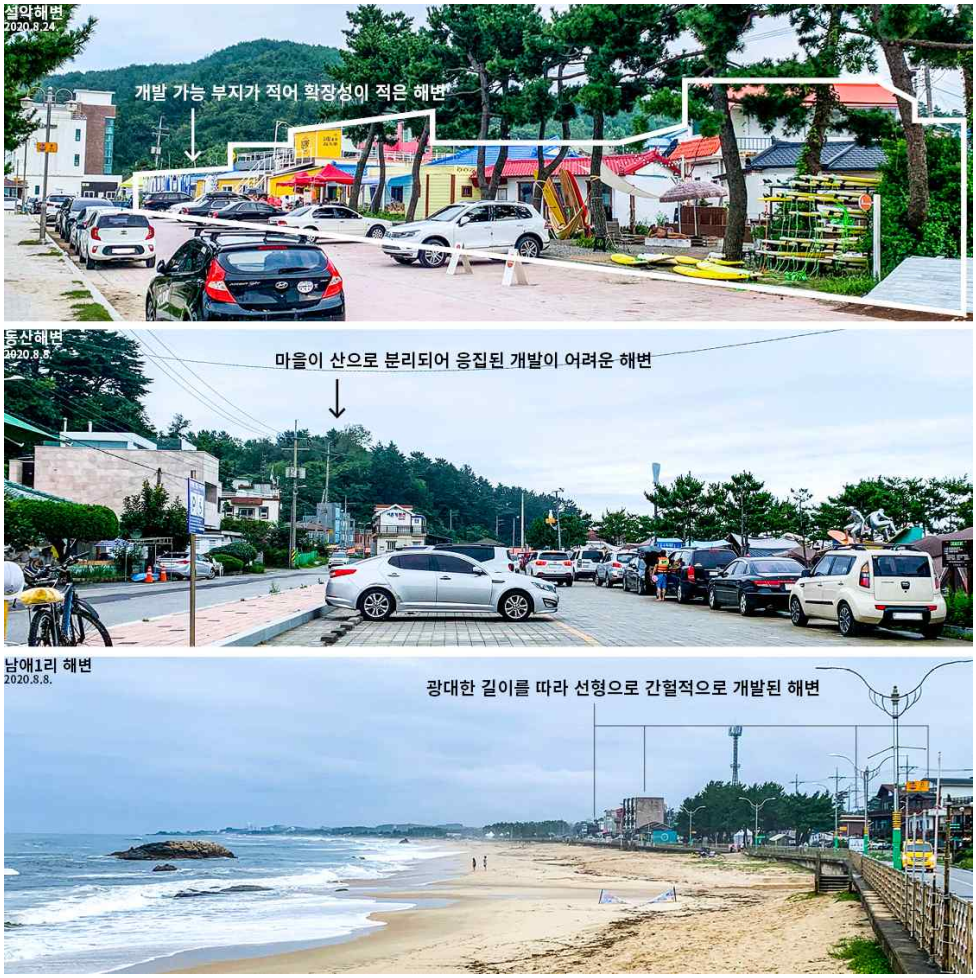
양양이 서핑으로 활성화, 상업화되며 여러 공간적 변천을 겪어왔지만, 죽도·인구 해변 일대가 특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다른 해변 지역에 없는 죽도·인구 해변이 갖는 차별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첫째, 죽도·인구 해변이 위치한 인구리, 두창시변리는 현남면의 행정적 중심지라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현남면은 19세기 후반부터 마을이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해 1970년대에 현남면사무소와 현남우체국, 현남면 보건지소 등 중요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었으며, 여러 행정과 편의 서비스가 집중되고 강릉과 양양을 잇는 시외버스의 중간 정착 지점이 되면서 현남면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행정과 서비스, 교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지역은 편리성과 접근성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사람이 몰리게 되며 점차 규모있는 정주환경을 갖춰나가게 되고, 양양 읍내보다 아래 단계에서 간단하면서 필수적인 여러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마을 단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마을이 해변 지역과 가깝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한편, 양양군의 다른 서핑 스팟들을 살펴보면, 행정, 서비스, 교통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마을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현북면의 면사무소 소재지인 하조대 해변이 유일했으나, 하조대 해변은 광정천이라는 강에 의해 해변지역과 분리된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 정착지와 관광객을 위한 해변은 다소 분리되어 다른 성격을 띄고 있었다. 비슷한 예로 낙산해변 또한 오래전 낙산사와 함께 관광지로 개발되었으나 정주지구와는 동떨어진 관광지구로만 개발되어 비수기에는 방문객이 급감하여 다소 황량한 모습을 띄기도 한다. 또한 다른 스팟들이 행정, 서비스, 교통 중심지로 함께 기능하는 곳은 없었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주민 주거지로 구성된 곳에 소수의 서핑샵들이 영업을 하며 스팟을 형성한 경우(설악해변, 갯마을해변, 기사문해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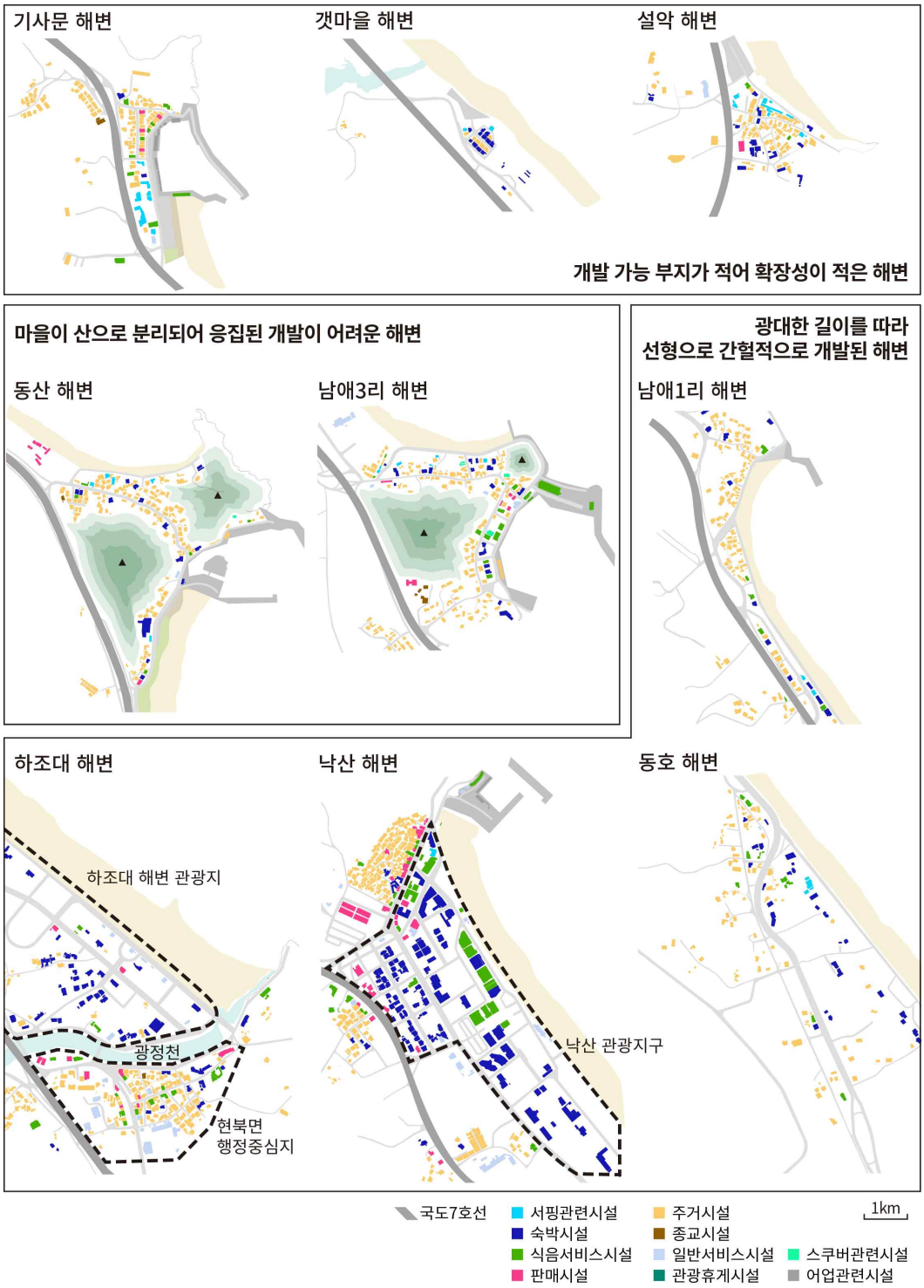
둘째, 인구리, 두창시변리 마을 지역과 죽도·인구 해변이 응집력 있는 공간구조를 갖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양양군의 대부분 해변이 긴 선형구조를 띄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애1리, 하조대, 낙산, 동호해변이 있

는데, 해안의 긴 선형구조는 시원한 개방감 있는 공간구조를 보여주는 동해안 해변만의 장점이지만, 개발 가능 구역이 좁아서 선형으로 간헐적으로 개발되어나가기 때문에 중심지가 생겨나거나, 응집력 있게 개발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형태를 갖추기 어렵다. 그렇기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어 발전해나간 지역들 위주로 서핑 스팟들 또한 먼저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대상지인 죽도·인구 해변을 비롯해 동산, 기사문, 남애3리, 갯마을 해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 응집력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결국 편의성과도 연결되며, 새뮤얼 존슨은 이 관계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도 그럭저럭 변통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이 없어 서툴게 변통할 뿐이지. ... 편리함을 낳는 것은 집중이라네."(Jane Jacobs 2010, 273). 또한 제이콥스는 도시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풍부한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사람들이 충분히 오밀조밀 집중되어 있어야 함(Jane Jacobs 2010, 210)을 지적했다. 그러나 응집력 있게 개발된다 해도 개발 가능한 부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발전의 정도 또한 달라진다. 동산, 기사문, 남애3리, 갯마을 해변은 모두 주거지를 중심으로 집중 개발되며 서핑 스팟으로 자리잡기는 했지만, 산으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어 있거나(남애3리, 동산 해변), 개발 가능한 규모가 작아서(기사문, 갯마을, 설악 해변) 확장성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인구리, 두창시변리 일대 지역은 죽도해변, 인구해변과 마을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마을 단위로 인식되며 발전했고, 개발 가능한 부지와 여유가 많았기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인구리, 두창시변리 지역은 행정, 서비스, 교통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규모 있는 정주지구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외지인의 정착과 지역 이용에 편리함이 있었다. 또한 마을과 해변을 중심으로 각각의 구역이 응집력 있는 공간구조를 갖고 있으며, 각 구역간의 이동과 연결성이 확보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많았기에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 가지 장점 덕분에 양양지역 여타의 해변들보다 외지인 서퍼들이 정착하기에 용이한 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림 3-7] 양양군 내 다른 서핑 스팟의 지역 구성 모습, 출처:필자 촬영



[그림 3-8] 양양군 내 다른 서핑 스팟의 지역 구성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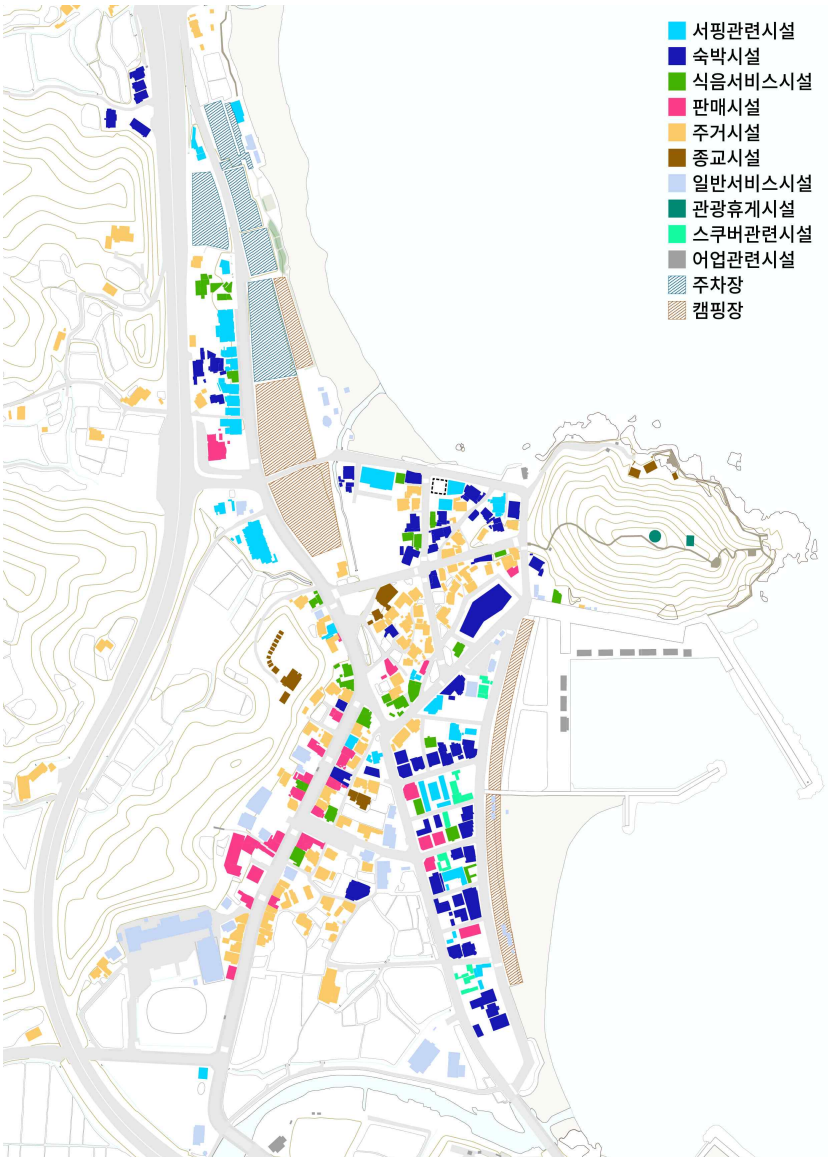
3. 시기별 변화 과정

앞서 연구대상지의 마을 형성 시기부터 2009년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서핑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주민 서퍼들과 상인들이 정착하며 지역을 변화시켜왔던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지의 건축물의 주용도와 부용도로 용도를 구분하였다. 용도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28개로 분류되어진 용도분류체계에 의거하여 2020년 9월 기준 현장 답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이용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10개의 용도로 재분류하였다. 이 중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용도로는 서핑관련시설, 숙박시설, 식음서비스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의 용도는 부용도로 구분하였다. 특별히 지역의 변화와 지역 분위기, 경관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서핑과 관련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항목으로서 서핑관련시설을 추가했으며, 해안마을의 특성상 일반적인 건축법상 용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어업관련시설과 스쿠버관련시설을 추가했다.

[표 3-3] 건축물의 용도 분류

주용도		부용도	
분류	세분류	분류	세분류
서핑관련시설	서핑강습시설 서핑관련 복합시설 장비 및 의류판매점 등	관광휴게시설	전망시설, 공원 등
숙박시설	펜션, 게스트하우스, 민박, 호텔 등	종교시설	교회, 천주교 공소, 암사
식음서비스시설	한식, 중식, 양식, 퓨전 음식점/카페 및 베이커리/펍 및 주점	일반서비스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생활서비스(보건소, 파출소 등)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시설(일반의류 소매점, 공예품점, 편의점, 낚시용품점 등)	스쿠버관련시설	스쿠버다이빙 강습 등
주거시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민 주거시설	어업관련시설	어업행위 관련 시설



[그림 3-9] 연구대상지 내 건축물의 용도별 분포

[표 3-4] 건축물 용도별 분포 비율

주용도		부용도	
서핑관련시설	28(10.5%)	관광휴게시설	2(0.7%)
숙박시설	49(18.6%)	종교시설	9(3.3%)
식음서비스시설	23(8.6%)	일반서비스시설	28(10.5%)
판매시설	26(9.7%)	스쿠버관련시설	5(1.9%)
주거시설	87(32.6%)	어업관련시설	10(3.6%)

연구대상지의 2010년 이후 공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토정보맵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공되는 위성사진 중 이용 가능한 위성사진들을 비교해 신축 및 리모델링 변화를 파악하고,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되는 로드뷰를 통해 더 정확한 시기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과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해 구체적인 사용승인 시기와 인허가 유무 등을 파악해 각 건물들의 변화와 용도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죽도·인구 해변 일대의 지역의 변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1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이다. 단계별 변화를 요약하면, 죽도해변에서부터 점적인 변화가 시작되어 인구리 마을 내부로 변화가 확산되고, 인구해변이 집중 개발되며 상업적 다양성이 증대되고 지가가 급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 1단계(2010년 ~ 2012년) : 죽도해변 일대의 점적인 변화

죽도해변에 처음 서핑샵이 들어선 것은 2008년이고(Surfer911), 죽도해변 북쪽의 동산해변에 있던 서핑샵 'Bluecoast'과 함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지역에 서핑을 알리기 시작했다. 서핑을 즐기던 매니아층이 동해안 서핑 스팟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죽도해변은 그 거점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까지 죽도해변 주변으로 매년 1개 정도의 숙박시설과 서핑샵이 기존 1970년대에 지어진 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오픈하는 매우 점적인 변화를 거쳤다. 또한 이 시기에 새나루길에 길이 200m, 폭8m의 소로 공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행[10]되며 주거지 5곳이 철거되었다. 아직까지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가 많지 않던 시기였기에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는 평년수준에서 유지되었고, 부동산 거래량도 적어 죽도해변 일대에 서퍼들이 소수 정착하면서 점적인 변화가 시작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10) 양양군공고 제2013-102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 인구 소로2류3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2013. 2. 8.

• 2단계(2013년 ~ 2015년) : 인프라 신축과 인구리 마을로의 점적인 변화의 확산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죽도해변 바로 앞쪽의 나지를 정비하여 오토캠핑장과 야영장, 주차장이 신축되며 대규모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점이다. 강원통계정보에 따르면 2015년은 양양군 관광객수가 11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10년 720만명, 2013년 860만명 수준에서 급등한 해이다. 양양 서핑이 이전보다 유명해지면서 죽도해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급하게 부지를 확보해 죽도해변 바로 앞쪽에 주차장을 확충했고 동시에 오토캠핑장과 야영장이 생겨나고, 인구해변에도 해변을 따라 캠핑장이 자리 잡으면서 서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서핑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차장 신설과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증대되었고, 경관적으로 한적한 농어촌에서 도시화된 경관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핑샵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도 매년 1~3개가 새로 생겨났으며, 죽도해변 앞쪽만이 아닌 마을 안쪽과 인구해변에도 하나 둘 씩 자리잡기 시작했다(Tyler surf shop, Surfari 등). 또한 지역에 정착한 서퍼들이 차린 음식점(Farmer's Kitchen, 나뽕남 등)이 죽도해변과 마을쪽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이 입점했다. 이 시기는 방문객 급증에 따른 인프라의 신축과 캠핑장의 도입, 그리고 죽도해변의 점적인 변화가 인구리 마을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서서히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토지거래량이 눈에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 3단계(2016년 ~ 2018년) : 인구해변 일대의 집중 개발과 죽도해변의 중형건물 입지

2015년까지는 매년 건물이 변동을 겪은 건수가 10건 내외였고, 대부분 기존 1970년대에 지어진 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축은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한 해에만 21건의 변동이 있었고, 2011년~2015년 건물 변동 중 신축 비율은

38%(12동)인 반면 2016년~2020년 건물 변동 중 신축 비율은 74%(44동)으로서 2016년부터 신축 건물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신축 건물 증가의 중심에는 인구해변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죽도해변보다도 인구해변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인구해변 일대는 죽도해변과 달리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2002년 필지 정리를 통해 구획과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활용되지 않고 있는 빈 땅이 많았다. 죽도해변 일대가 신축을 위한 필지 없이 포화단계에 이르면서 인구해변 일대의 빈 땅으로 개발 수요가 몰린 것이다. 대부분의 신축 건물은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었으며, 2층 이상은 숙박시설로, 1층은 상업과 서핑샵 등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로 건축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스쿠버샵 4곳이 신축되면서, 이전의 소수의 스쿠버샵들만 운영되던 연구대상지에 서핑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양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죽도해변에도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있었는데, 대형필지 혹은 여러 필지를 합필하여 기존의 단층 소규모 건물이 아닌 여러 상업시설과 숙박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2층 이상 규모의 중형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중형건물의 1층부는 편의점, 음식점, 서핑샵, 카페 등이 한곳에서 영업하고 2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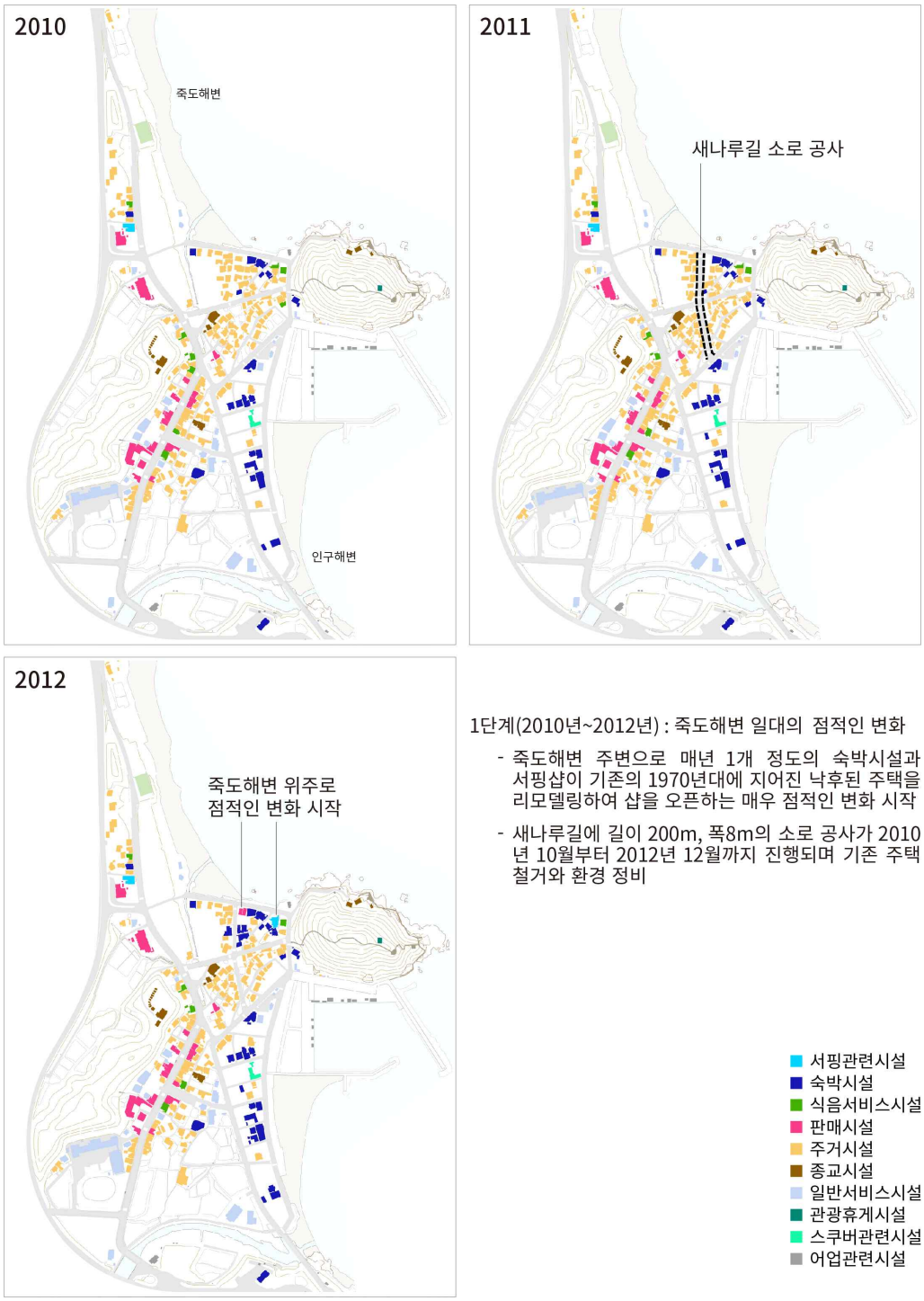
정리하면, 이 시기는 인구해변 일대의 집중 개발과 죽도해변의 중형건물이 입지하면서 상업적 다양성이 증가되고 민간 자본의 유입과 개발이 가속화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수평을 유지하던 토지의 평당 표준지공시지가도 상승곡선으로 전환이 시작되던 시기이며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한 시기이다.

• 4단계(2019년 ~ 2020년) : 상업적 다양성 증대와 인프라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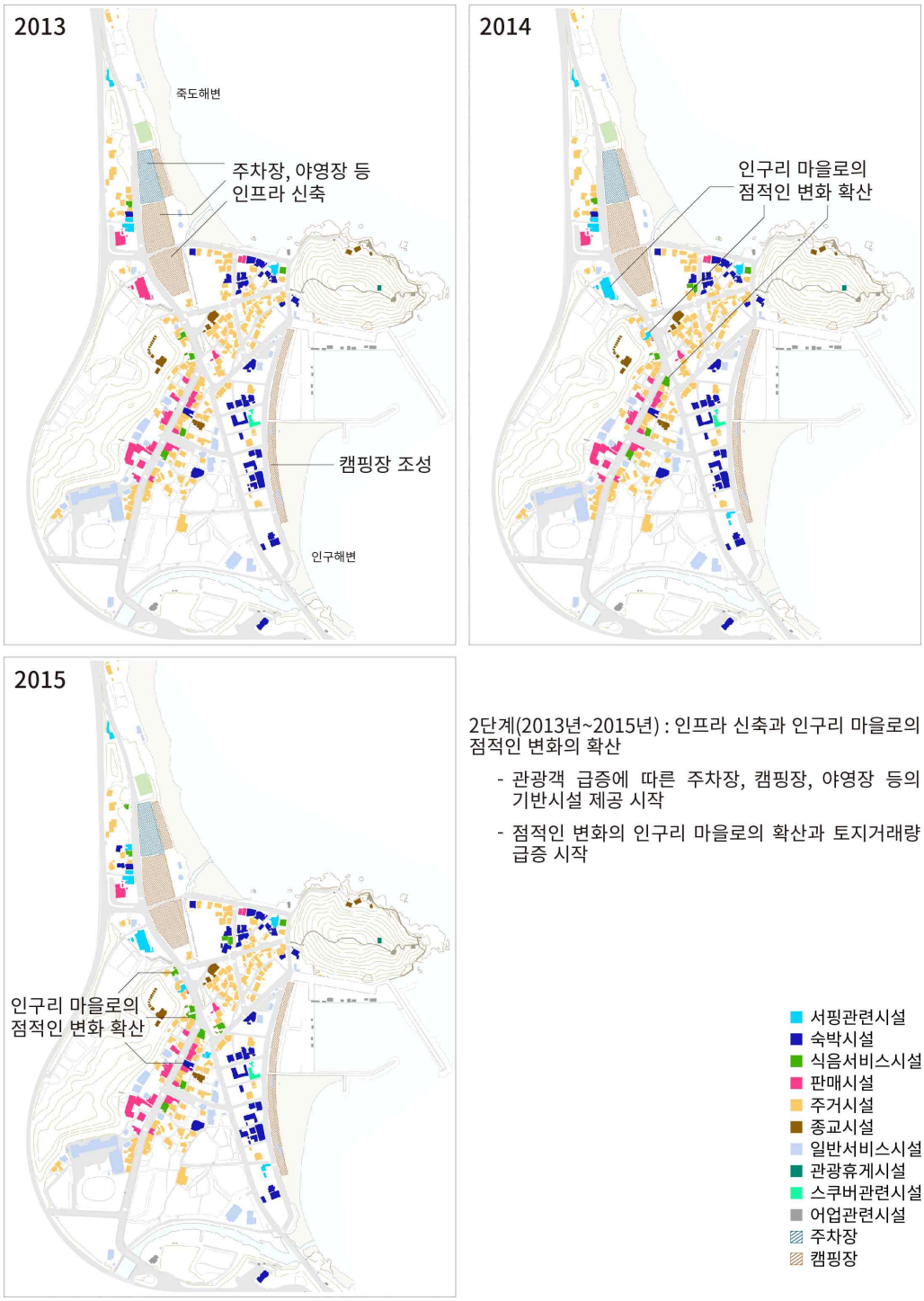
4단계에서는 인구해변 일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어가는 흐름은 이어졌지만, 대형 자본이 유입되며 상업적 다양성이 증대되어 가는 새로운 흐름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한화 LIFE PLUS 호텔'이 인구해변에 건축중이고, 인구리 마을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인구호텔'이 건축중에 있다. 또한 연구대상지의 북쪽에 접한 동

산해변에는 지하4층~지상20층의 생활형 숙박시설 '오션스테이 양양'이 건축중에 있다. 또한 BARREL, BILLABONG, SURFLO 등의 서핑의류 브랜드들이 입점하기 시작했으며, NATIONAL GEOGRAPHIC 브랜드 전개 회사인 ㈜네이쳐홀딩스는 2019년 제작된 방송사 서핑 예능 2개를 후원 제작하였고, 같은 해 NATIONAL GEOGRAPHIC 서핑 라인을 처음 론칭했으며, 죽도해변에 솔티캐빈이라는 서핑문화 복합공간을 신축해 의류 소매 및 홍보, 카페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죽도해변과 서핑문화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와 영화, 예능이 아웃도어 의류업체와 차량업체 등의 후원을 받으며 2019년에 다수 제작되었으며, 이는 대중적인 인식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편, 계속되는 방문객 증가로 인해 양양군은 죽도해변의 산을 깎고, 기존 운동장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신설했으며, 해안도로를 정비하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각종 홍보 시설물과 기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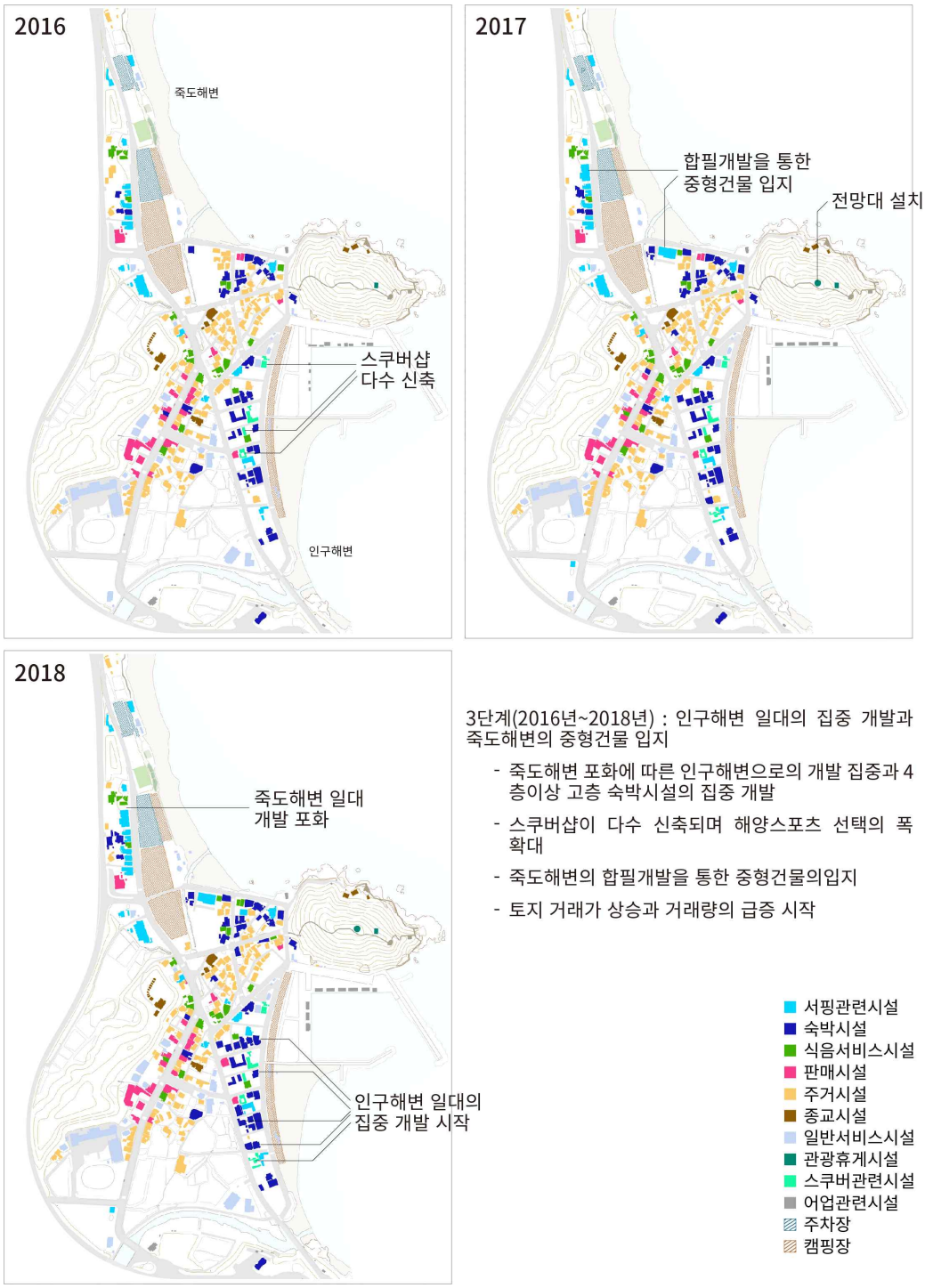
정리하면, 이 시기는 대형 자본이 유입되면서 기존 민박과 펜션 일색의 숙박시설에 더해서 큰 규모의 호텔들이 신축되었고, 주류 서핑의류 업체들이 입점하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상업적 다양성이 확장되어 갔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과 서핑문화가 소개됨에 따라 방문객이 더욱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2018년부터 인구리와 시변리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가격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지역 내 소규모 변화보다는 대규모의 변화가 주로 이뤄졌으며 죽도해변와 인구해변 일대의 개발 가능한 부지가 모두 개발되며 지역 내 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서핑과 관련된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경관이 재구성되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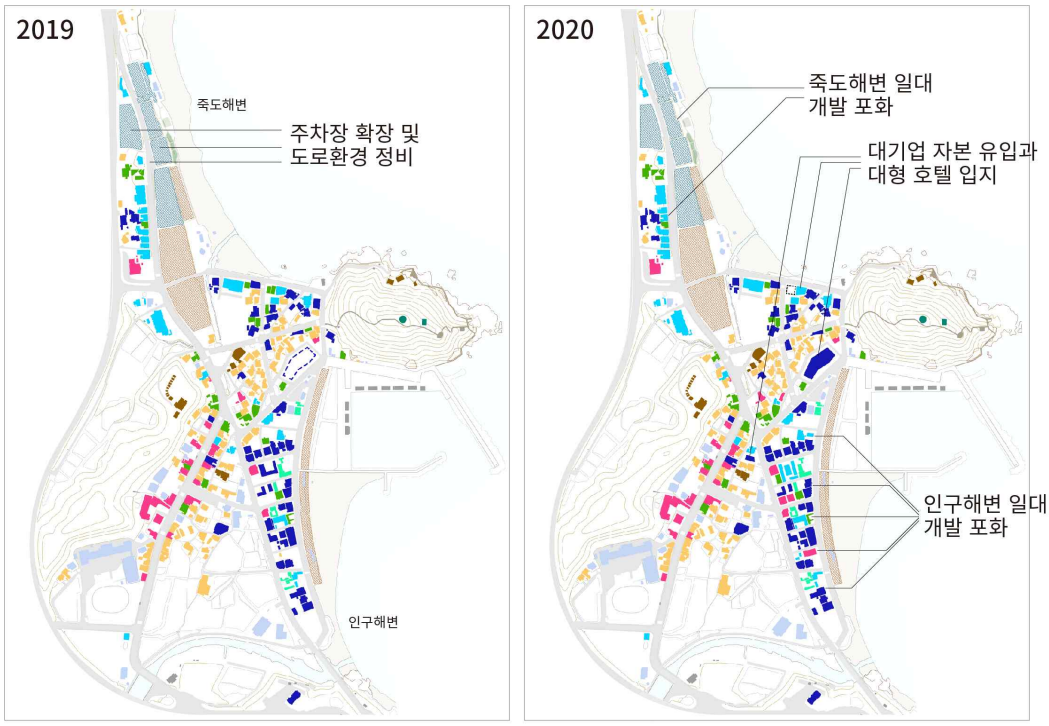
[그림 3-10] 1단계(2010년~2012년)-죽도해변 일대의 점적인 변화



[그림 3-11] 2단계(2013년~2015년)-인프라 신축과 인구리 마을로의 점적인 변화의 확산



[그림 3-12] 3단계(2016년~2018년)-인구해변 일대의 집중 개발과 죽도해변의 중현건물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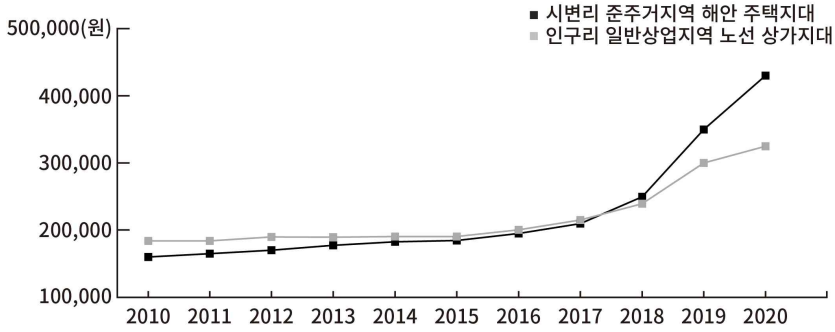


4단계(2019년~2020년) : 상업적 다양성 증대와 인프라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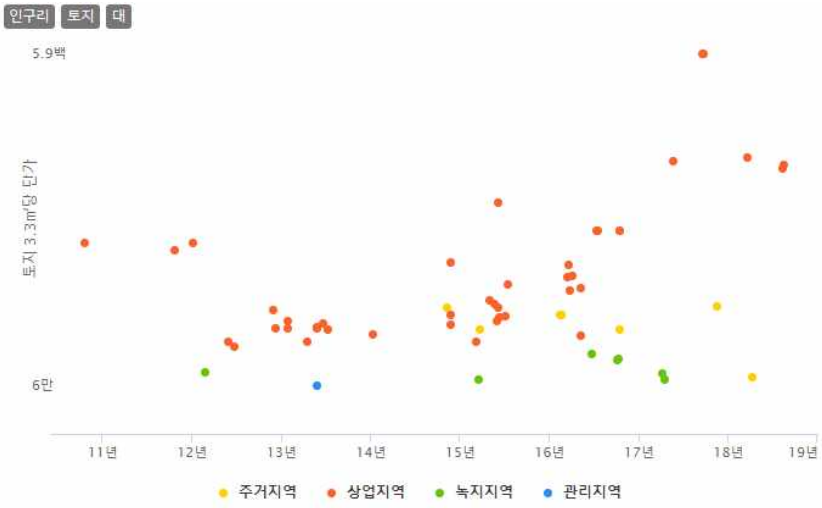
- 대기업 자본의 유입과 대형호텔 입지에 따른 지역의 상업적 다양성 증대
- 인구해변 일대의 집중개발로 포화 상태 진입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이 알려지면서 방문객의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확장
- 토지 가격과 거래량의 가파른 상승

서핑관련시설
숙박시설
식음서비스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종교시설
일반서비스시설
관광휴게시설
스쿠버관련시설
어업관련시설
주차장
캠핑장

[그림 3-13] 4단계(2019년~2020년)-상업적 다양성 증대와 인프라의 확장



[그림 3-14] 평당 표준지공시지가 변화 추이(2010-2020), 출처: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그림 3-15] 최근 10년간 유사부동산 거래분포, 키워드 '인구리' '토지', 출처:밸류맵

[표 3-5] 최근 10년간 연도별 건물 변동 건수

연도	건물			기반시설	총계
	신축	리모델링	철거	신축	
2011	1	4	5	-	10
2012	4	3	-	1	7
2013	4	1	-	4	9
2014	2	5	-	-	7
2015	3	7	-	-	10
2016	13	6	2	1	22
2017	10	5	-	1	15
2018	6	5	-	-	11
2019	4	3	6	2	15
2020	9	1	-	-	10

[표 3-6] 연구대상지 부동산 거래 리스트(2016-2020, 평단가 순, 출처:밸류맵)

소재지	유형	토지면적 (㎡)	거래년월	매매금액	평단가 (3.3㎡)	직전단가 대비 상승률
인구길 28-29	상업업무	287	2019. 6.	18억 5천	2천 1백	957% (2014 比)
인구리 633-3	상업업무	209	2017. 12.	9억 5천	1천 5백	654% (2016 比)
인구길 44	단독다가구	197	2020. 4.	5억 9천	9.9백	841% (2012 比)
인구중앙길 50-1 외	상업업무	192	2020. 5.	4억 2천	7.2백	24% (2018 比)
인구리 1-77	토지	546	2018. 2.	9억 9천	5.9백	393% (2011 比)
시변리 32	토지	536	2018. 5.	6억 5천	4백	268% (2015 比)
인구리 1-29	상업업무	321	2018. 2.	3억 7천	3.8백	187% (2013 比)

• **시기별 변화과정의 종합**

2000년대 후반까지 한적한 농어촌 마을이었던 죽도·인구 해변은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죽도해변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낙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샵을 오픈하는 점적인 변화가 시작되었고, 점적인 변화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리 마을로 확산되어갔다. 여러 서핑샵과 식음시설이 생겨났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양양군 차원에서 주차장과 캠핑장, 야영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에 따라 서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서핑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으며, 주차장 신설과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역 내 차량 통행량이 증대되었고, 경관적으로 한적한 농어촌에서 도시화된 경관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죽도해변과 마을 일대의 땅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인구해변으로 개발이 집중되었다. 4층 이상의 신축 건물이 숙박과 상업을 겸하는 형태로 건축되었고, 스쿠버샵이 4개나 생겨나면서 해양스포츠 선택폭이 넓어졌다. 또한 죽도해변에도 중형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토지의 평당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대형 자본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상업적 다양

성이 증대되고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이 더욱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양양군은 산을 깎고 기존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신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토지가격과 거래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가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즉, 죽도·인구 해변은 주거 위주의 농어촌 마을에서 서핑샵과 판매시설, 숙박, 식음시설이 갖춰진 서핑 행위 자체를 위한 목적 여행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관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서핑관광지로 변화했다. 요컨대, 지역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이슈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 개발과 차량 관련 시설이 밀집되면서 오픈스페이스와 자연환경에 대한 재고 없이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해 왔다. 서핑관광지로 지역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넘치는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아있던 해변가 공지에 주차장과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이 입지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된 필지들에는 민간 개발 건물들이 밀집해 들어서면서 활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는 점차 사라져갔고, 현재 대상지에 존재하는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는 해변과 산책로 주변의 일부 공간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일반이 이용 가능한 휴식시설이나 이벤트를 위한 공공공간이 없어 도로를 활동과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지만, 주차 인프라의 확장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급증하면서 보차통행의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변으로의 차량 접근성 증대와 주차에 따른 해안경관 고유의 매력이 경감되고 있다.

둘째, 개발 방식이 점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던 오래되고 한적한 매력에서 신식의 다채로운 경관으로 변화해 간다. 특히 해변가는 입점 업종이 대양해지며 지역 내의 다양성은 크게 증진되어 왔지만, 서핑관광지로서 지역성은 오래된 마을의 리모델링된 서핑관광지에서 과밀 개발되고 도시화된 서핑관광지로 변화했다. 점차 마을의 미개발 필지의 개발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마을을 포함한 지역 전체가 기존 양양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에서 도시화된 일반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제2절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특성

제1절에서 지난 10년간 지역이 서핑관광지로 변해온 과정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이다. 해당 절에서는 지역의 변화를 견인한 서퍼와 관련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지역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요인과 노력, 특성에 대해 밝힌다. 또한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로컬로서 바라보는 관점, 이슈 등 내부자적 관점에서 지역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죽도·인구 해변이 서핑관광지로 활성화되기까지의 과정 및 특성에 대해 변화를 이끈 주체인 이주민 서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했으며, 다큐멘터리와 각종 영상자료에서 언급된 인터뷰 내용들을 보조 자료로 함께 활용하였다.

1장의 연구 방법에서 서술했듯, 지역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사람들 3명을 최초 선정하고, 이후 스노우볼 샘플링을 통해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내용을 적절히 구술해 줄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가로 3명을 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지를 사전에 이메일로 공유하여 인터뷰 내용을 인지시키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했으며, 연구자가 구성한 최소한의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되, 상황에 따라 인터뷰 대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7] 심층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인터뷰 대상자	직업	지역 정착기간	현재 지역 내 활동 여부	인터뷰 수행 일시
Interviewee A	서핑샵 및 의류매장 운영	7년	○	2020. 9. 5.
Interviewee B	서핑매거진 편집장	7년	○	2020. 9. 10.
Interviewee C	서핑샵 운영 및 강원서핑협회 활동	12년	△	2020. 9. 10.
Interviewee D	건축가, 펜션 및 와이너리 운영	5년	×	2020. 9. 18.
Interviewee E	일식집 운영	7년	○	2020. 9. 18.
Interviewee F	은퇴한 지역 공무원	평생	△	2020. 9. 18.

1. 정착 계기와 지역의 매력

1.1. 죽도·인구 해변 정착 계기

2013년 지역이 점적인 변화를 겪으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정착한 Interviewee B는 구체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게 된 계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수도권에서 가깝기에 서핑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부산이나 제주로 가던 서퍼들이 양양으로 유입되기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 셋째는 군부대, 상인 등 해변에 이권자들이 많은 부산과 달리 해변에 대한 이권이 없었다는 점, 넷째는 다양한 해변이 존재하고, 각 해변이 받아줄 수 있는 파도의 크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날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서핑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구체적인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다큐멘터리 3일> 539회에서 한 서퍼는 “처음 터를 잡았던 선배 서퍼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원래 살던 주민들과의 융화도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로 들어오는 서핑숍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라고 하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한 선배 서퍼들의 존재가 후배 서퍼들이 정착 지역을 선택할 때의 큰 매력으로 작용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Interviewee C, Interviewee E 등 다른 서퍼들은 죽도·인구 해변에 정착하게 된 계기를 전체적으로 ‘시골스러운’, ‘조용한’, ‘한적한’, ‘작은 시골 마을’, ‘물이 깨끗하고 조용한’ 등으로 수식하며 초창기 죽도·인구 해변의 마을 풍경과 개발되지 않은 매력에 이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이 유명해지고 급격히 상업화 되어간 최근 3~4년 내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서핑이 좋아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착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nterviewee B는 최근 유입된 사람들을 “서핑’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했고, Interviewee C는 “서핑의 ‘핫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라고 언급하며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Interviewee D는 “특히 20-30대가 많이 유입되었고, 파티피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상업적으로 되어갔다”며 지역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의 변화를 설명했다.

1.2. 죽도·인구 해변의 매력

지역에 정착한 서퍼들은 지역의 가장 큰 매력으로 첫째, 정착 계기와 동일하게 양양 지역 내 선택 가능한 서핑 스팟이 다양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Interviewee C는 “서핑을 하다보면 지형과 파도가 다른 곳을 가고 싶은데, 강원도가 너무 최고의 놀이터인거에요” 라고 해변이 다양하기에 선택지가 많은 매력을 언급했으며, 이는 광역적 분석에서도 살펴본 바, 실제 서퍼들은 여타의 국내 지역보다 해변 선택의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파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큰 이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죽도·인구 해변의 해저 지형이 훼손되지 않고 둥글게 둘러싸여 있어 양질의 파도가 형성되고 다양한 크기의 파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Interviewee C는 “해변이 둘러싸여 있어 라인업[11]으로 나갈 때 이안류[12]를 타고 편하게 나갈 수 있어서 훨씬 편하다”라고 언급하며 죽도 해변이 가진 지형 조건이 서핑에 적합했음을 지적했다.

셋째, 양질의 파도를 쫓아 내려온 서퍼들이 시골에서의 외로움을 덜고자 한 지역으로 계속 모여 든 경향도 있었다. Interviewee B는 “서핑을 제대로 하던 사람들이 몰려서 부락을 이루게 된 거죠. 시골 생활이 외롭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모여 살게 되었죠”라며 지역에 모여든 서퍼들이 다른 서퍼들을 끌어들인 요인이었음을 언급했다.

“저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러나 저러나 죽도야”. ... 다양한 파도를 받을 수 있는 자연 조건이 있는 곳이 죽도에요. ... 지역의 매력은 첫 번째는 파도, 두 번째는 그걸 쫓아 모여든 사람들이죠.“ Interviewee B(2020. 9. 10.).

넷째, 스노우보드를 함께 즐기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Interviewee C는 스노우보드 선수에서 서퍼로 전향한 사람으로서, 양양 지역에 스노우보드를 타던 사람들이 서핑을 시작하면서 정착한 이들이 많다고 했으며, 산과 바다가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것이 지역의 큰 매력이라고 했다.

---

11) 부서지는 파도를 타기 위해 파도의 브레이크 포인트 주변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곳
12) 역조(逆潮), 립 커런트(rip current) 라고도 하며, 해안에서 바다 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이다.

"제주도는 이창남이라는 재일교포가, 부산은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동생이 시작했어요. 양양은 주로 스노우보드 탔던 친구들이 내려와서 시작했어요. 스키장이 가깝고, 스노우보드 업계 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보더들이 서핑을 시작하고 정착하게 되었죠." Interviewee C(2020. 9. 10.).

즉, 지역의 가장 큰 매력은 파도가 형성되는 양질의 조건을 지닌 해변이 다양다는 점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많은 서퍼들이 정착하고 지역 활성화의 주된 요소로 서핑이 다뤄지고 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결국 강릉, 속초 등 동해안 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양양의 해변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파도와 지역의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착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노력

이러한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자연환경에 더해서, 인문적 환경으로서 서퍼들의 지역 내 융화 노력이 정착에 긍정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초기에 정착한 서퍼들은 어떻게 원주민들과 동화되고 공존하며 살게 되었고, 외부인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크게 서퍼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통한 노력과 원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착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서퍼들의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

2010년대 초반 죽도·인구 해변에 서핑샵의 증가세가 적을 때에는 큰 부딪힘 없이 지냈으나, 서핑샵이 급증하던 2013년부터 안전문제, 서핑 매너 문제, 가격 문제 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서퍼들은 자체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했는데, Interviewee C는 "샵이 12개쯤 되었을 때 '올바른 서핑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목적과 서핑 룰을 정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서핑연합회'를 만들었다"며 최초로 지역 내에 등장하게 된 서퍼 공동체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서퍼들의 의지로 단체를 결성해 지역의 문화 정착과 상업화에

대응해 나간 움직임이 지역 변화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서핑관광지로의 변화가 인구해변까지 확장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서핑샵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아지게 되었고, Interviewee A는 “서핑샵이 너무 많아지면서 통제가 안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서핑의 발전을 위해 양양서핑페스티벌 대회 운영도 하고, 비치클린 행사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관공서 진행 사업에 참여해서 첨언도 하고 했죠.” 라며 서퍼 공동체의 노력이 소극적인 수준과 단편적인 활동에서 적극적인 행사 주최와 인식의 확산, 환경활동 등의 다양하고 큰 활동으로 확장되어 나갔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초기에 정착해 지역을 가꿔온 서퍼들은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자체적으로 대응해나갔으며, 현재 지역 내에서 보여지는 행사와 활동들이 관공서나 정부 주도가 아닌 자체적인 환경활동과 서핑의 확산을 위하여 행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2.2. 원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착 노력

또한 이주민 서퍼들은 서퍼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주민으로서 지역 주민과 불화 없이 융화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부터 구체적인 행사나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과 교류하고 동화되며 정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먼저, 일상적인 노력으로는 주민들이 하는 생업이나 다양한 동네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활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갔음을 알 수 있었다. Interviewee E는 “처음엔 저희도 일이 없으니까 양식하는 배도 탔고, 겨울엔 주민들이 하시는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활동도 했어요. ...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랑 자주 뵙고 가까워지고, 융화도 되었죠”라며 초기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정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Interviewee A는 “마을 자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어른들과 함께 농악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신뢰도 생겨나면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충돌이 있을 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라며 작은 소통 노력을 통해 원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일상적인 노력에 더해서,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활동해 온 Interviewee C는 특히 동네 아이들과 양양지역 청소년들을 가르침으로써 주민들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처음에는 서퍼들에게 호의적인 주민들이 적었으나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의 인식까지 바뀌며 적대적인 분들 중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서퍼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서핑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서퍼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고 했다.

"처음에 저희가 반갑고 호의적이신 분들이 반, 시끄러워지고 변하는 것이 싫으신 분들이 나머지 반이셨어요. ... 근데 서핑을 가르치다보니 아이들 태도와 성적이 달라지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죠. 그렇게 손주들이 타니까 조부모님들도 뭐라고 못하시는 거죠. ... 그렇게 손주가 좋아하다보니까 다른 손주도 타보라고 권하고, 그렇게 변해갔어요.

근데 지가가 오르면서 서핑으로 인해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저희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민들처럼 서핑과 관계없는 분들은 저희를 아직 불편하게 생각하시죠." Interviewee C(2020. 9. 10.).

또한 Interviewee B는 행사를 할 때, 마을 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고 주민들을 초대하였고 실제 주민들이 서퍼들의 행사에서 함께하며 가까워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저희가 길을 막고 보드스왑데이(Board Swap Day)행사를 진행할 때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은 '마을 주민들이 왔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인사를 드렸어요. 시끄러울 수도 있다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놀러 오시라고 했죠. 근데 정말로 공연하시는데 오신 거에요. 그래서 의자를 맨 앞줄에 깔아드렸고, 노래하시던 가수분이 어르신들 맞춤 노래도 갑자기 추가해주시고 그랬어요. 작지만 그런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왔죠."

즉, 초기에 정착한 서퍼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융화되고

배려하려는 노력을 하며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노력이 만들어낸 지역 분위기와 환경이 후배 서퍼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이다.

2.3. 원주민들의 인식

지역에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서퍼들과는 별개로, 원주민들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엄철호(2019)의 선행 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 지역주민과 외지인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특성이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외지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과 연관이 있었는데,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지역주민들은 개발 초기 유입된 이주민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개발 이후 유입된 이주민의 경우 자신의 지역을 배경으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식하여 관계 형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철호 2019, 74-75).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초기 유입된 사람들은 나도 얼굴을 거의 다 알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인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을 회의라던가, 어버이날 행사라던가, ... 거의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노인들 위주로, 지역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죠." 참여자 #11, 엄철호(2019), p70.

3. 중재자와 행정의 지원

3.1. 중재자의 지원

초기 인터뷰 대상자들 다수가 공통된 인물(전 현남면장)과 그의 활동, 노력을 언급하며 지역 정착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군과 소통하게 되는 중간자 역할을 했음을 피력했다. 특히 Interviewee B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현남면에서 면장님 하셨던 ○○○면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일일이 서핑샵들을 다니시면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

각하냐', '이 동네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게 뭐가 있겠니'. ... 서핑샵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 진짜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라며 (전)○○○면장님이 직접 모든 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묻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다고 중재자로서 지원을 언급했다.

그래서 Interviewee A의 추천으로 ○○○면장님(Interviewee F)을 만나볼 수 있었고 직접 수행했던 활동과 이유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다. Interviewee F는 "이 지역이 제가 없더라도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갈 수 있는 매개, 가교역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 서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마련과 예산 편성시에 지역에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현장감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거죠"라며 본인 임기 2년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전문가를 채용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현장감 있게 대응해 나가길 원했다고 했다.

그는 의도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서퍼들의 가게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요구를 듣고 군청과 의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언급했다. "부임 초창기에 제가 해변 청소를 자주했어요. 청소 후 한 시간 정도 남으면 A샵, B샵, C샵 들러서 찻값내고 얘기도 나누면서 주인하고 친해졌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얘기 듣고요. ... 제가 과장으로서 실무자다보니까 군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회의 들어가면 군수님에게 인지시켜드리고, 의회 가서도 인지시켜드리고, 보좌관들 만나서 미비한 것들 요청하고, 서퍼들 불러서 함께 얘기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길 바랬죠" 그러나 "실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 즉, 실행력을 갖춘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없었죠."라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의 부재에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Interviewee F의 재임 기간 노력은 서퍼들의 지역적인 노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군청, 의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서퍼들이 원하는 바를 전달해 관련된 여러 사업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Interviewee B는 "○○○면장

님 이후에는 돌아다니시는 분은 적거든요.”라며 Interviewee F의 은퇴 이후 행정과 서퍼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없어졌다고 했다.

한편, 또다른 중재자로서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서퍼가 있었다. Interviewee B는 “저희는 이주민이니까 정착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협회가 있다고 해서 정착이 쉬운게 아니죠. 결국 정착을 도와주셨던 분들 중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Seaman Surf’이 지역 토박이 서퍼 형님이에요.” 그는 스쿠버샵을 운영하다가 서핑을 배운 후 서핑샵을 운영 중인데, 후배 서퍼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마을 원주민들과의 문제나 이슈들이 생겼을 때 여러 사항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으며, 서퍼들이 마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인문적 지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처해주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마을 주민들이 믿나요? 아니죠. 그래서 형이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 이권 없이 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형한테 가서 얘기 하고, ... 큰형처럼 마을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도와줬죠.” Interviewee B(2020. 9. 10.).

3.2. 행정의 지원

이러한 중재자의 존재와 더불어 대부분의 서퍼들은 양양군이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죽도해변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이는 앞서 [표 2-6]에서 살펴본 바, 죽도·인구 해변 지역에 행해졌던 여러 사업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바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Interviewee E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양양군에서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샤워시설이나 세족시설 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생겼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요”라며 양양군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Interviewee B는 “작은 지자체이기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다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쭉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있죠.”라며 이러한 지원이 충분하지만 장기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부재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Interviewee A는 “편의시설적인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근데 발전을 좀 더디게 하고 시설 확충은 해변보다는 뒤쪽에 하는 식의 방안도 있으면 좋겠어요”라며 급하

게 해변가 위주로 시설 확충이 이뤄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즉, 지역의 변화를 체험한 서퍼들은 양양군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한 기반시설 조성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조처 없이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음을 표했다.

4. 지역의 상업화 과정과 현재

4.1. 지역의 상업적 변화에 대한 인식

한편, 지역이 상업화 되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서퍼들의 인식으로는 '리모델링은 이제 적고 신축이 많다' '너무 많이 바뀌어 놀랍다', '시골스러운 느낌이 사라졌다', '급속하게 변해 아쉽다' 등이 많았으며 대체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Interviewee C는 "동해안 해변이 많으니까 협회에서 방문객을 분산시키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릉, 고성 등으로도 갔어요"라며 방문객이 몰리고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동시에 다른 해변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을 분산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했음을 언급했으나, "결국 돈을 벌려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니까 결국은 죽도로 계속 모이게"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지역이 급격히 상업화 되어오던 2016년부터 방문객이 서핑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지역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다양한 층으로 확대되어 갔다. Interviewee A는 "3~4년 전부터 방문층이 다양해지고 가족단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핑 문화와 컨텐츠에 관심이 있고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특이한 현상이 생겨난거죠"라며 지역이 상업화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방문층이 생겨났다고 했다.

또한 Interviewee B를 비롯해 대다수의 서퍼들이 "캠핑장이 생기고 캠핑이 유명해지면서 방문 계층이 많이 다양해졌고 서퍼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 가족 단위까지 엄청 많이 오게 되었다"고 회상했으며, Interviewee D는 "무동력 판에 나만 있으면 되는 서핑과 자연에 텐트 하나 쳤다가 흔적 안남기고 돌아오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을 한다는 점에서 서핑과 캠핑이 공통분모를 갖는다"고 말하며 캠핑과 서핑이 서로 발전하

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즉, 지역이 상업화되면서 지역으로 상권이 집중되고, 캠핑 등의 액티비티와 함께 발전하면서 지역 방문 계층이 다양하게 확장되어 갔다.

4.2. 인구 해변 일대의 급격한 변화와 이슈

제1절에서도 살펴본 바, 인구 해변 일대는 2016년부터 급격히 개발되고 상업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문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서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커뮤니티 활동과 소통이 적어졌다는 점이다. Interviewee A는 "대부분이 생계가 급하니까 사업에만 집중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샵들이 적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또한 Interviewee E는 "2010년대 초반에 정착하신 분들은 오래 본 형동생 지내듯이 지내고 끈끈한 느낌이 있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들어온 분들은 커뮤니티 형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초창기분들이랑 인사는 주고받지만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다"며 표면적인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과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들었음을 언급했다.

둘째, 파티와 음주로 인한 여러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다. Interviewee D는 "인구에 파티피플이 모이고 클럽이 생겨나면서 밤새 EDM파티를 하기 때문에 놀러온 사람들끼리 마찰이나 마을 주민들이랑 마찰도 자꾸 생겨나고 있다"며 크고 작은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해변이 색다르게 발전한 것은 지역 전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Interviewee B는 "인구 해변으로 인해 여기가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 사람을 끌어오면서 마을 주민들 숙박도 채워주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인구 해변 상업화의 정점인 대형호텔인 한화호텔의 입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작은 숙소에 묵기는 힘들어요. 그런 입장에서는 호텔 생기는 것이 좋죠. 그래야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 거죠. ... 그러면서 더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기도 했다.

4.3.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영향과 자발적 이탈

지역이 상업화 되어가면서 Interviewee A는 “지역에 정착해 지역을 일궈가는 대다수는 젊은 친구들이고 임대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의해 “서핑과 관련 문화가 좋아서 정착한 친구들은 벌써 많이 떠나고 있다”고 했으며, “서핑샵들도 주인들이 여러 번 바뀐 곳이 많다”며 임대료 상승에 따른 1세대 서퍼들의 이탈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Interviewee B는 “의외로 이 마을에 땅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많지 않아서 원주민들도 많이 밀려나셨다”고 하며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Interviewee F는 “죽도 1세대 서퍼들이 아이 양육도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지속하기도 어렵다보니 애착이 줄어들면서 떠나고 있다”면서 초기에 정착한 이들의 지역 이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이탈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교육 문제나 주거 불편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이슈 또한 있었다. Interviewee E는 “초기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대략 20-30%정도는 떠난 분들이 계시는 것 같다”며 초기 정착민이 이탈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여기에 정착했던 정주인구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라며 지역 정착민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Interviewee F도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 주거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도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균형을 가지고 같이 밀어줘야” 한다며 지역 정착을 돕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즉, 지역이 상업화되며 다양한 행태와 컨텐츠가 정착하며 방문 계층이 넓어지면서 지역 내의 매력이 다양해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정착 1세대들이 자녀 교육, 주거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을 강화하면서도 지역을 일궈온 주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제3절 서핑관광지화의 흐름 종합

양양 지역은 교통환경 개선에 따라 전국 여타의 서핑 스팟보다 접근성이 좋아졌으며, 미개발된 다양한 해변이 짧은 간격으로 위치해 있어 상호 연결성이 좋았기에 한국 서핑의 시점인 제주와 부산을 넘어 주요 스팟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죽도·인구 해변은 양양군 내 다른 해변보다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로, 인구리가 현남면의 행정적 중심지로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거점으로서 갖춘 편의가 많았다. 둘째로, 인구리와 두창시변리 마을과 죽도·인구 해변이 응집력 있는 구조를 갖고 연결되어 있었기에 콤팩트하게 개발되며 마을을 형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형태를 갖출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 가능한 부지의 여유가 많았기에 다른 해변들보다 확장성에서 이점을 갖췄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67동의 건물 중에 90동이 변화를 겪어왔다.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은 4개 단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는 죽도해변 일대의 점적인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서 스노우보더들이 서핑을 시작하면서 한 서핑샵을 중심으로 후배들이 양성되며 죽도해변에 매년 1-2개 정도의 서핑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서퍼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며 서퍼가 운영하는 서핑샵과 음식점 등이 생겨나며 점적인 변화가 인구리 마을로까지 확산된 시기이다. 주로 리모델링을 통해 가게를 오픈했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인테리어와 파사드를 만들면서 지역의 경관을 새롭게 구성해나갔다. 트렌드세터들이 서핑을 알리며 일반인들의 방문이 급증하면서 주차장과 캠핑장 등의 인프라가 신축되었고 캠핑 방문객이 서핑을 함께 즐기면서 캠핑과 서핑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업화보다는 서퍼들이 서핑이 좋아서 정착한 초기 단계이며, 지역 정착을 위해 원주민과 다양한 소통 노력과 활동을 했고, 이주민 서퍼들은 연합회 구성과 활동을 통해 페스티벌 개최와 비치클린 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 노력을 하며 지역의 환경을 가꿔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서퍼들은 수도권과 다양한 해변으로 접근성, 해변 이권이 적

고 선배 서퍼들이 노력으로 만든 정착에 유리한 인문적 환경 등의 요인으로 지역에 정착했고, 토박이 서퍼라는 중재자가 존재했기에 지역 정착에 도움을 받으며 서퍼들의 정착에 유리한 환경이 갖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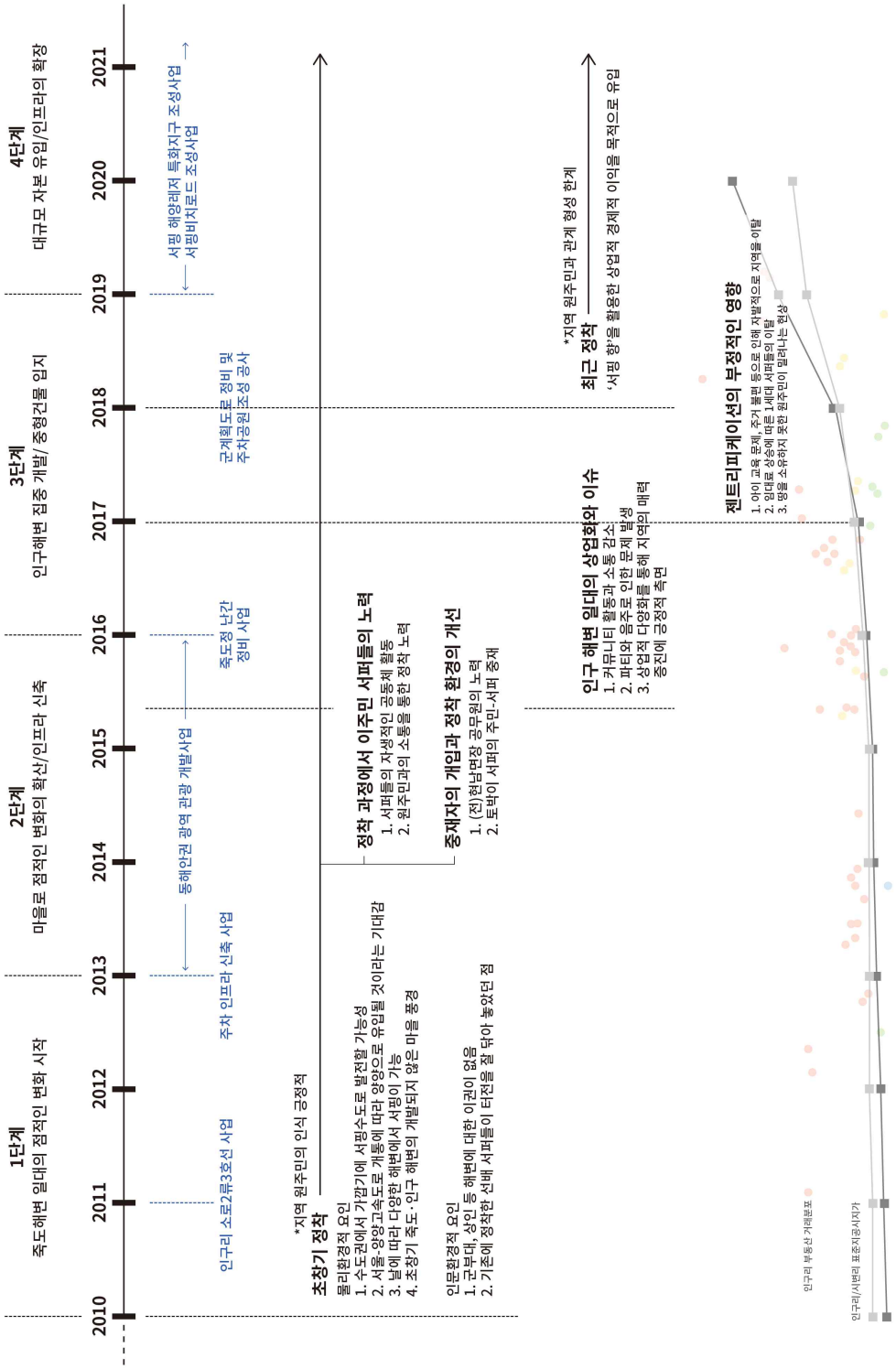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는 죽도해변 포화에 따른 인구해변의 공지에 신축 건물이 다수 건설되며 지역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핑 자체가 목적인 사람보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핑인구가 늘어나면서 서핑의 표면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파티, 바비큐 문화 등이 지역에 생겨났고, 다양한 방문층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했다. 지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면장이 부임하면서 군청, 의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서퍼들의 목소리와 원하는 바를 전달해 죽도해변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4단계는 서핑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서핑의 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서핑방송 제작지원, 대형호텔 건설, 서핑의류 출시 및 홍보 공간 개설 등 대형자본이 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다양성이 증대된 시기이다. 또한 여러 방송 매체에서 지역과 서핑을 다루면서 일반에 인식은 확산되었고 방문객 급증에 따라 기반시설이 더 확충되었으며,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생활이 어려워진 원주민과 일부 서퍼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10년간의 변천 과정을 돌아보면 지역이 개발되어 온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간 개발과 차량 관련 시설이 밀집되면서 오픈스페이스와 자연환경에 대한 재고 없이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해 왔다. 주차 수요에 대응해 해변 앞 공지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개별 필지들이 민간 개발로 채워지면서 현재 공공이 활용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휴식이나 이벤트를 위한 공공공간이 없어 도로를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늘어난 차량 통행과 충돌하며 보차통행 안전문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개발 방식이 점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던 오래되고 한적한 매력에서 신식의 다채로운 경관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해변가는 입점 업종이 다양해지며 지역 내 다양성은 증진되었지만, 오래된 마을의 리모델링된 경관에서 과밀 신축 건물들의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했으며, 인구리 마을 내부까지는 아직 변화가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10년의 변천을 거치면서 연구대상지는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했고 상업화되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원주민과 1세대 정착민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으로서 지역 활성화의 정점 근처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죽도·인구 해변의 공간적 변천 과정과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 장의 [그림 3-16]과 같다.



[그림 3-16] 죽도·인구 해변 서핑관광지화의 흐름 종합

제4장 서핑관광에 따른 변화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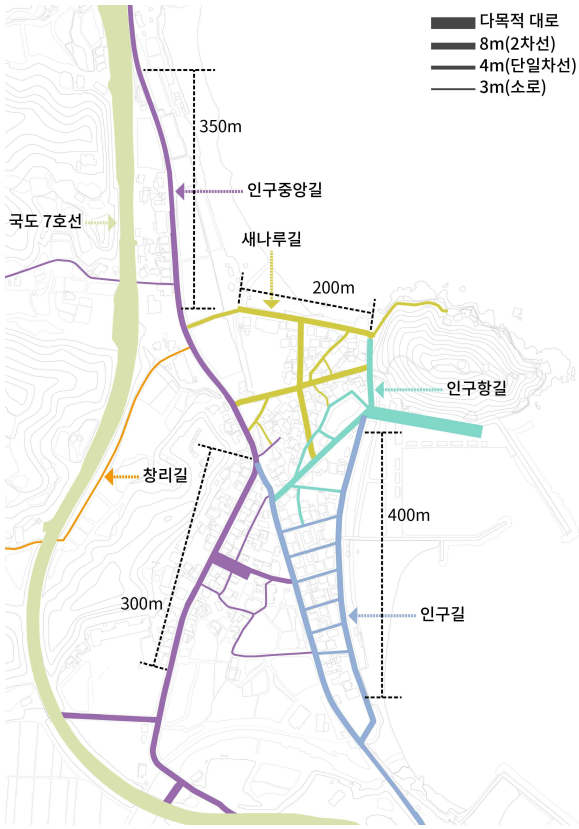
앞서 연구대상지의 최근 10년간의 변천과정과 이주민들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10년간의 변천 이후 현재 연구대상지의 경관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검토한다.

제1절 죽도·인구 해변의 경관 변화

경관은 그 자체가 경관으로 작용하면서 지피요소의 바탕이 되는 지반요소, 그 지반요소의 바탕 위에 형성된 지피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피요소로 식생과 인공물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특히 사람이 경관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요인이 된다(황기원 2011, 121). 또한 가치를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문화는 가치의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황기원 2011, 195). 따라서 경관이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가치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기에(황기원 2011, 196), 지역의 경관을 이해함에 있어서 현재 지역에 나타나는 모습과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지역에 독특한 문화를 정착시킨 서퍼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그 가치의 표현으로 나타난 다양한 문화행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의 경관 변화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경관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요인인 사람, 즉 서퍼들의 개성과 가치관이 서핑문화로 표출되면서 지역 경관에 어떻게 드러나며 변화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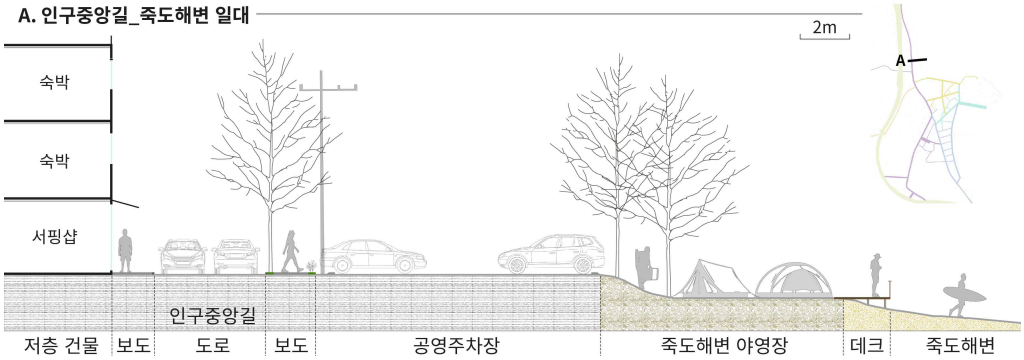
1. 가로별 입지 형태

분석의 범위는 주요 가로인 인구중앙길, 새나루길, 인구길로 한정하며, 가로의 폭은 대부분 2차선의 8m이고 200 - 400m 정도의 길이를 갖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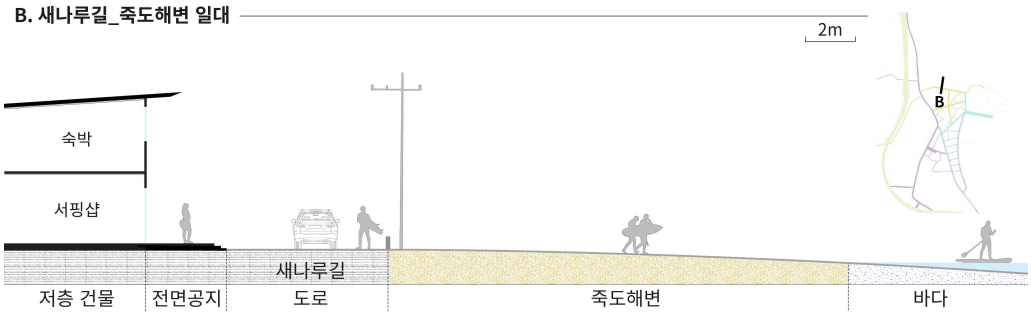
[그림 4-1] 연구대상지 내 가로 현황

먼저, 죽도해변 앞쪽의 인구중앙길 약 350m 구간은 대부분 3층 이하의 저층 건물과 주로 면하며, 각 건물의 1층부 개방감과 시원한 느낌 덕분에 좁지 않고 열린 분위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앞서 시기별 변화 과정에서도 언급했듯 해변가의 가용지가 주차장과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로 채워지면서 경관적으로 해변으로의 접근성과 개방감이 저하되었다. 또한 주차장이 건설되면서 차량 통행이 집중되고 주정차문제와 차량 밀집에 따른 보행자 안전문제 등이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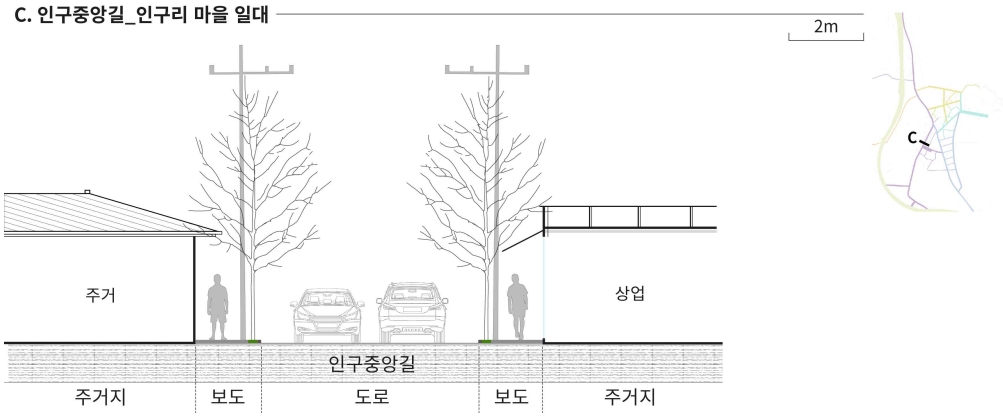
[그림 4-2] 죽도해변 일대의 인구중앙길 현황 단면

죽도해변 일대의 새나루길은 짧지만 개방감있는 건물 입면과 해변으로 인해 열린 느낌을 갖는 것은 인구중앙길 죽도해변 구간과 비슷하다. 그러나 인구중앙길과 달리 해변가 가로에 주정차 이슈와 보차 안전문제가 적고 보행자와 서핑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주차장이나 캠핑장으로 개발된 구역이 없어 경관적으로 개방감을 가지며 해변으로의 접근성 또한 좋아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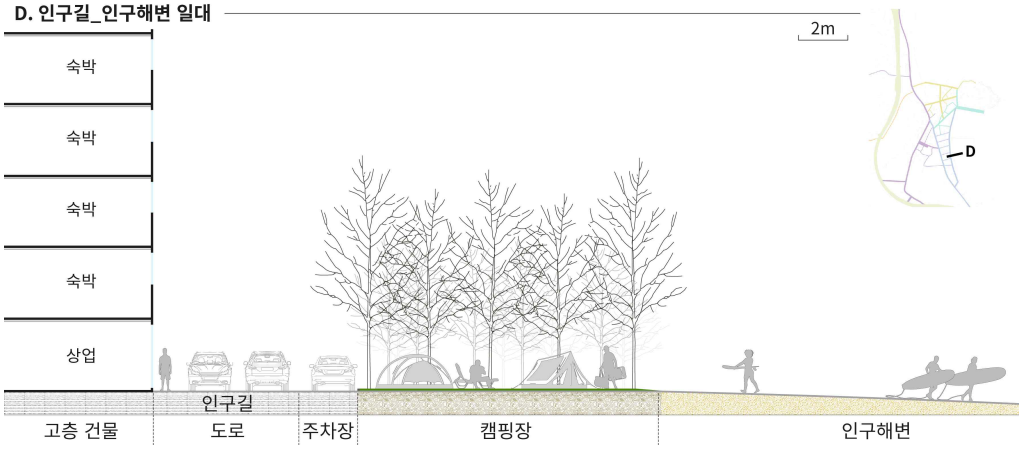
[그림 4-3] 죽도해변 일대의 새나루길 현황 단면

인구리 마을 내부의 인구중앙길은 신축건물은 거의 없으며 오래된 단층 주거와 숙박, 상업시설 일색으로 해변가와는 다른 오래되고 밀집된 가로 환경, 개방감보다는 위요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이다. 은행나무 가로수와 전신주, 2차선의 왕복차로가 가로 경관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좁은 보도를 이용해 보행이 가능하다.



[그림 4-4] 인구리 마을 일대의 인구중앙길 현황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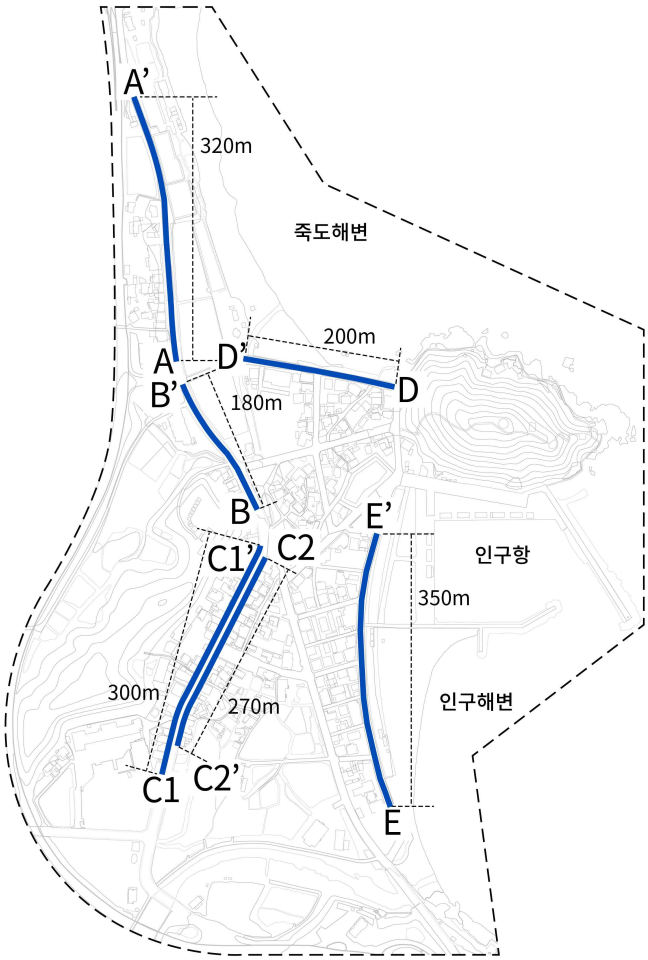
인구해변과 면하고 있는 인구길은 앞서 살펴보았듯 최근 3~4년 사이에 급격히 상업화된 지역으로서, 4층 이상 고층의 건물이 많고 해변가에 해송이 밀식되어 있다. 해송이 밀식된 구역을 따라 캠핑장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고층건물-좁은 도로-밀식된 해송과 캠핑시설로 가로 환경이 가득 차 있어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로이며 해변으로의 개방감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로환경을 갖고 있다.



[그림 4-5] 인구해변 일대의 인구길 현황 단면

주요 가로별 단면 현황에 더해서, 구체적인 건물별 사용 용도와 업종, 지역의 특색을 형성하는 가로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 요인인 건물의 파사

드를 살펴봄으로써 가로별 입지 형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가로는 죽도해변에 면한 인구중앙길(A-A', B-B')과 새나루길(D-D'), 마을의 중심 가로인 인구중앙길(C1-C1', C2-C2'), 인구해변에 면한 인구길(E-E')로서 총 3곳의 길을 6개의 구간으로 세분하여 가로별 건물의 파사드 형태와 사용 용도별 입지를 현장답사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그림 4-6] 가로별 입지 형태 파악을 위한 가로 영역

A-A' 가로는 죽도해변에 면한 320m길이의 가로이다. 2010년대 초반부터 서핑관광지로 가장 먼저 변화해 온 곳으로서 일부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중이고 일부는 신축 건물이 입지해 있다. 건물들은 모두 3층 이하이고, 건물의 1층부는 대부분 서핑샵 혹은 카페로 이용중이며 2

층 이상부터는 해당 업체의 게스트하우스로 주로 사용된다. 총합 약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과 캠핑장이 있어 서핑 혹은 캠핑 목적으로 여행을 온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로이다. B-B'가로는 단층 서핑샵과 서핑용품샵 및 음식점이 주요 업종으로 분포한 180m길이의 가로이며, 마찬가지로 1층은 서핑샵과 기타 상업용도 매장이,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한 형태를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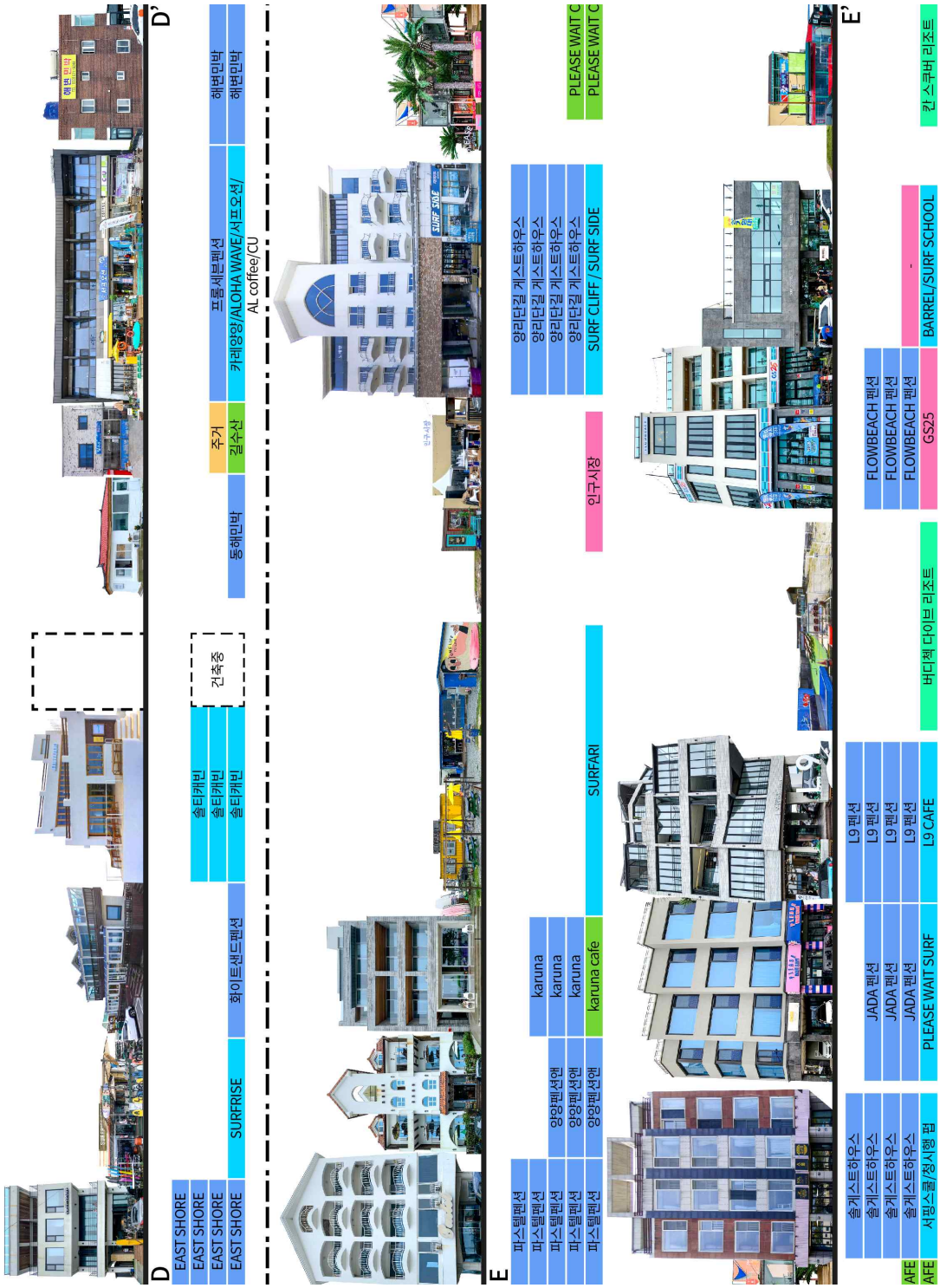
C1-C1'가로는 약 300m로서 대부분 단층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업용도와 공공 행정서비스 시설들이 이곳에 몰려 입지해 있다. C2-C2'가로도 마찬가지로 단층주거가 주를 이루며 식료품점과 주점, 음식점, 공공 행정서비스 시설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약 270m의 가로이다. C1-C1', C2-C2'가로는 오래된 저층건물이 많아 해변지역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상업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원주민들의 주거지와 지원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D'가로 또한 죽도해변에 면한 가로로서 대부분이 신축된 건물이고 숙박과 식음시설이 주가 되며 서핑 관련 시설이 일부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E-E'가로는 인구해변에 면한 가로로서 350m에 달한다. 일반상업지역이며 용적률이 높아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대부분 입지해 있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대다수이며, 1층부에는 서핑샵, 주점, 편의점 등 상업시설로 활용되며, 2층 이상부는 숙박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대상지에 존재하는 스쿠버샵 대부분이 이 가로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A-A', B-B', D-D'가로는 서핑샵과 숙박시설, 식음시설이 주용도로 분포하며 서핑관광지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가로이다. 그리고 C1-C1', C2-C2'가로는 저층 주거와 상업, 공공 행정서비스 용도가 주로 분포하는 주민 주거지의 성격이 강하고, E-E'가로는 고층 숙박시설과 1층부의 상업시설이 주로 입지해 있어 가장 상업화가 진행된 가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7] A-A', B-B'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그림 4-8] C1-C1', C2-C2'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그림 4-9] D-D', E-E' 가로의 건물 입지 형태

[표 4-1] 가로별 상업시설 분포 표(2020. 9. 기준)

가로 구분	번호	주소	점포명	현재용도	이전용도	신축/리모델링	개점 시기
A-A'	1	인구중앙길 87	농협하나로마트	판매(마트)	-	신축	2010이전
	2	인구중앙길 89	Surfer 911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숙박	리모델링	2008
	3	인구중앙길 91	NUSA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주거	신축	2013
	4	인구중앙길 91-1	YVONNEB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숙박	리모델링	2018
	5	인구중앙길 93	Candy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주거	신축	2016
	6		BILLABONG	판매(의류)			2020
	7	인구중앙길 95	다락막국수	식음(한식)	식음(Farmer's Kitchen)	리모델링	2019
	8	인구중앙길 95-1	MOCU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주거	리모델링	2014
	9	인구중앙길 97	MANGO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주거	신축	2016
	10	인구중앙길 99	FIN'S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	신축	2017
	11		YOGER PRESSO	식음(카페)			2018
	12		하씨 이자카야	식음(주점)			2018
	13		CU	판매(편의점)			2017
	14	인구중앙길 103-2	버거스테이지	식음(양식)	식음(버키나버거)	신축	2017
	15	인구중앙길 103	양양103번길	식음(양식)	-	신축	2018
	16	인구중앙길 103	Surfers	서핑샵(강습)	-	신축	2016
	17	인구중앙길 103	RIPCURL	판매(의류, 장비)	-	신축	2016
	18	인구중앙길 119	Fullmoon Island	서핑샵(강습/의류판매)	서핑샵(서프가든)	신축	2013
B-B'	19	인구중앙길 65	PATAGONIA	판매(의류)	주거	리모델링	2014
	20	인구중앙길 67	Tyler Surf Shop	서핑샵(강습/식음)	주거	리모델링	2014
	21	인구중앙길 69-2	와우마이치킨	식음(치킨)	주거	리모델링	2018
	22	인구중앙길 79	Surf Dog	식음(양식)	사우나/찜질방	리모델링	2016
	23		PIBING Lounge	식음(양식)			2018
	24		백정함재율	식음(한식)			2019
	25		JOA SURF	서핑샵(강습/식음/숙박)			2017
	26		GS25	판매(편의점)			2017
C1-C1'	27	인구중앙길 29	세공실 29	판매(악세사리)	주거	리모델링	2019
	28	인구중앙길 37	현남슈퍼·문구	판매(문구)	-	-	2010이전
	29	인구중앙길 39	수협	은행	-	-	2010이전
	30	인구중앙길 43	황금성	식음(중식)	식음(선혜식당)	-	2010이전
	31	인구중앙길 47-1	둘리미용실	판매(서비스)	-	-	2010이전
	32	인구중앙길 49	하이타이드	식음(태국)	식음(치킨)	리모델링	2017
	33	인구중앙길 53	의류상점	판매(의류)	-	-	2010이전
	34	인구중앙길 57-1	월화여인숙	숙박	주거	신축	2017
	35		SCHURRER'S	판매(의류)			2017
C2-C2'	36	인구중앙길 40	물마루	판매(악세사리)	주거	리모델링	2020
	37	인구중앙길 44	고향집	식음(한식)	식음(서울식당)	리모델링	2020
	38	인구중앙길 46	인구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	리모델링	2011
	39	인구중앙길 48	태양부동산	공인중개사	식음(삼호식당)	리모델링	2011
	40	인구중앙길 52	인구마트	판매(마트)	공인중개사	리모델링	2015
	41	인구중앙길 52-1	Guesthouse 만월도	숙박	당구장	리모델링	2013
	42	인구중앙길 54-1	현남건재철물	판매(철물)	-	-	2010이전
	43	인구중앙길 54	영광수퍼	판매(마트)	-	-	2010이전
	44	인구중앙길 56	인구브루잉	식음(카페)	판매(마트)	리모델링	2019
	45	인구중앙길 56	리버마우스	판매(의류)	판매(마트)	리모델링	2019
	46	인구중앙길 46-31	STONEFISH	식음(주점)	주거	리모델링	2014
D-D'	47	새나루길 27	EAST SHORE	숙박	식음(천호수산)	신축	2017
	48	새나루길 11-10	SURFRISE	서핑샵(강습)	식음(해변횟집)	리모델링	2012
	49	새나루길 31	화이트샌드펜션	숙박	-	-	2010이전
	50	새나루길 33	솔티캐빈	판매(의류/커피)	식음(백년횟집)	신축	2019
	51	새나루길 31-1	(공사중)	-	식음(BHC Chicken)	신축	-
	52	새나루길 37	동해민박	숙박	주거	리모델링	2013
	53	새나루길 39	길수산	식음(회)	주거	신축	2017
	54	새나루길 43	카레양양	식음(일식)	주거	신축	2019
	55		ALOHA WAVE	식음(주점)			2017
	56		서프오션	서핑샵(강습)			2017

	57		AL coffee	식음(카페)			2017
	58		CU	판매(편의점)			2017
	59		프롬세븐펜션	숙박			2017
	60	새나루길 45	해변민박	숙박	숙박(시온횟집)	리모델링	2018
E-E'	61	인구길 28-9	파스텔펜션	숙박	-	-	2010이전
	62	인구길 28-11	양양펜션엔	숙박	-	신축	2012
	63	인구길 36	karuna	숙박	-	신축	2019
	64	인구길 36	karuna cafe	식음(카페)	-	신축	2019
	65	인구길 28-15	SURFARI	서핑샵(강습)	-	신축	2014
	66	인구리 640-1	인구시장	식음(주점)	-	신축	2020
	67	인구길 28-21	양리단길 게스트하우스	숙박	숙박(어메이징모텔)	리모델링	2020
	68		SURF CLIFF	식음(주점)	식음(죽도횟집)		2020
	69		SURF SIDE	서핑샵(강습)	식음(죽도횟집)		2017
	70	인구리 636-5	PLEASE WAIT	식음(카페)	-	신축	2018
	71	인구길 28-25	솔게스트하우스	숙박	숙박(보나타스파펜션)	리모델링	2018
	72		청시행	식음(주점)			2018
	73	인구길 28-27	JADA펜션	숙박	-	신축	2019
	74		PLEASE WAIT SURF	서핑샵(강습)			2019
	75	인구길 28-29	L9펜션	숙박	숙박(IN9펜션)	리모델링	2019
	76		L9 CAFE	식음(카페)			2019
	77	인구길 56-5	버디책 다이브리조트	스쿠버샵	-	신축	2014
	78	인구길 28-35	FLOWBEACH 펜션	숙박	-	신축	2018
	79		GS25	판매(편의점)			2018
	80	인구항길 4-8	BARREL	판매(의류)	-	신축	2020
	81		BARREL Surf School	서핑샵(강습)			2020

Jan Gehl(2003, 113)은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행동반경이 한번에 400-500m 정도이며 다른 사람이나 이벤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20-100m 범위로 한정된다고 했다. 연구대상지의 주요 가로들은 모두 400m 이내의 길이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서핑샵을 중심으로 해당 가로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의 건축물 용도는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로가 가진 개방감과 경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변 가로와 마을 내부의 가로도 건축물 용도와 규모, 가로수 조성 환경 등이 확연히 다르기에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해 왔다. 따라서 크게 죽도해변/인구해변/인구리 마을 일대로 분류 가능한 3개의 주요 공간이 연계되어 있고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서로 다른 경관과 특성, 분위기를 가지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지이용과 건축물 높이에서 확인한 바, 인구해변 일대는 도시계획에 의한 일반상업시설로 개발되었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에 다른 공간감을 갖게 되었다고도 설명될 수 있다.

2. 지역 경관의 변화 양상

죽도·인구 해변은 약 10년에 걸쳐 서핑을 중심으로 관광지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경관도 변화되어 왔다. 풍경은 바깥부터 장식하는 것이 아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표출된 것이다(Yoshida Shingo 2007, 10). 건축 양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주민 서퍼들의 취향과 이국적인 특색, 서핑문화와 지향하는 가치를 행사와 활동 등으로 표출하면서 지역의 경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표 4-2]를 통해 2010년도 죽도·인구 해변의 경관과 2020년의 경관을 보면 분위기가 첨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비교 사진은 2010년도 카카오맵 로드뷰와 2020년 수 차례 답사를 통해 연구자 본인이 촬영한 사진을 최대한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각도로 비교한 것이며,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파사드의 변화가 매우 크고 가로 환경과 분위기 또한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지의 계절별 경관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겨울에는 해변과 가로가 모두 한적하며 모든 서핑샵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대부분의 편의점과 카페, 음식점은 영업을 2월 말까지 중단한다. 반면 여름철에는 모든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가득 차고, 해변에는 입문자 서퍼들로 가득하며, 수많은 서핑객과 캠핑객으로 해변과 해변에 면한 가로들은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차 통행의 안전문제와 서핑객 밀집과 파도타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핑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할 정도로 방문객 포화가 심해진다. [표 4-3]을 통해 겨울과 여름의 경관이 대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경관 변화의 대략적인 흐름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건물이 리모델링 혹은 신축되며 입면이 정돈되고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농어촌마을의 한적한 경관에서 다소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해왔다. 둘째, 인간 활동이 도로까지 점유해 이뤄지며 가로 경관이 풍성해졌다. 셋째, 오래된 가옥이 화려해지고 개성 있어지며 지역의 경관이 밝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이 지역 전체에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어지는 세부 절에서 경관의 변화 양상과 자세한 변화 요인을 살펴보았다.

[표 4-2] 연구대상지 경관의 변화, 출처:카카오맵 로드뷰(2010)/본인 촬영(2020)

2010	2020
2010.4.	인구중앙길 죽도해변 앞쪽, 2020.9.10.
2010.4.	새나루길 죽도해변 앞쪽, 2020.8.24.
2010.4.	인구항길 일대, 2020.8.24.
2010.4.	인구길 인구해변 앞쪽, 2020.8.24.
2010.4.	인구중앙길 마을 일대, 2020.2.22.

[표 4-3] 연구대상지의 계절별 경관 형태, 출처:필자 촬영

겨울	여름

3.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변화

대상지는 도심의 고밀 개발된 골목상권, 상업 밀집구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저밀 개발된 농어촌지역이고, 해변 바로 앞에 발달한 상권이기에 바다를 향해 개방적이고 여유로운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죽도·인구 해변의 가로 환경은 도심의 좁은 골목상권과 달리 개방적인 입면과 해변을 향하는 개방된 1층부와 테라스를 활용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로의 일부까지 확장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서퍼들의 개성이 표출된 샵의 풍경과 가로의 활용이 어우러지며 지역 경관의 변화를 주도했고, 지역을 브랜드화 했으며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일조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세부 절에서는 건물의 개방감과 건물의 경계 공간이 가로와 맺는 관계에 주 관점을 두고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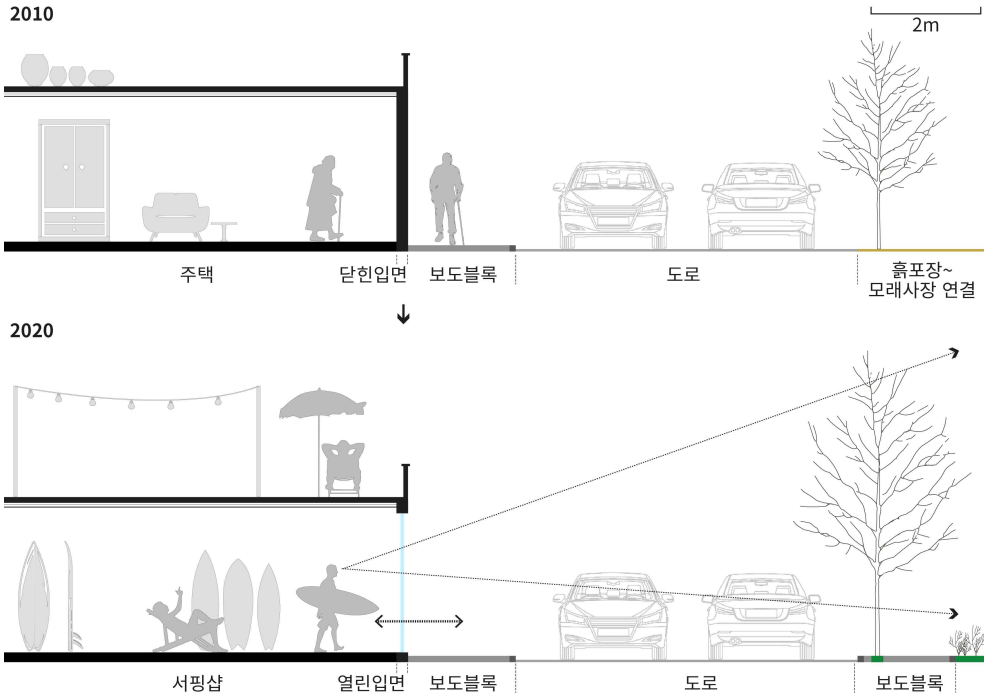
건물 내부 공간과 가로라는 외부 공간의 경계면으로서 건물의 입면은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건물과 가로의 관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안과 밖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접점인 벽이야 말로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며, 공간이나 용도의 요구가 충돌하는 내부와 외부의 접점에서 건축이 생겨나게 된다. 또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벽을 건축이라고 볼 때,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갈등과 해법을 공간에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overt Ventury 2004, 189). 따라서 건물의 입면은 불투명하게 처리해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사적인 성격을 강화하기도 하고, 투명한 입면을 구성해 외부와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며 내부로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시각적인 인지와 접근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죽도·인구 해변에서 나타나는 건물과 가로의 관계는 대부분 건물의 1층을 개방적인 입면으로 처리하여 내외부가 쉽게 관계맺으며 건물 내부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서퍼들의 특징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서퍼들은 독립적인 것 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도시공간이 아닌 해안지역에서의 여유로운 비치라이프를 바라며 지역에 정착해 로컬로서 살아가며 지역을 가꾸어나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개방된 입면과 건물과 가로의 경계 주변부에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서퍼들끼리 더 쉽게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각자의 개성과 취향을 가게에 표현한 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데 어색함이 없기 때문이다. 죽도·인구 해변 경관 변화 분석을 통해 분석한 가로와의 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된다.

3.1. 닫힌 입면의 소거를 통한 투명한 입면 구성

첫째, 닫힌 입면을 소거해 투명하게 한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경우 벽을 허물고 유리창으로 된 벽면과 출입구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거나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접근과 이용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러한 입면의 소거와 투명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외부에서는 공간의 인지 뿐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을 얻게 된다. 또한 내부의 사람들은 실내에서도 가로의 상황을 경험하고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림 4-10] 리모델링 건물에서 닫힌 입면의 소거 단면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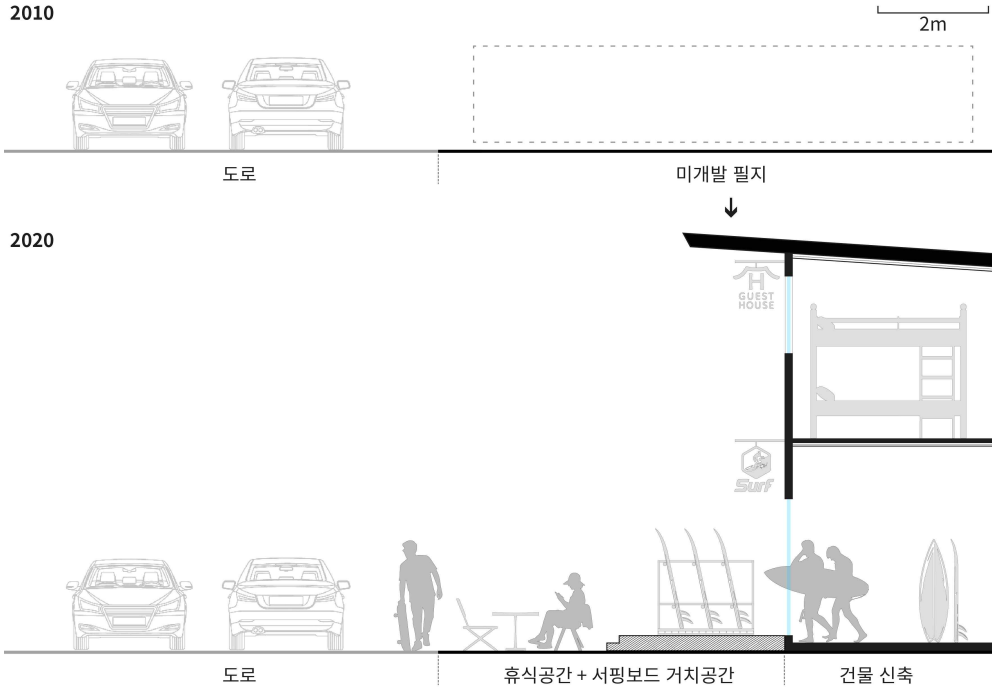
[그림 4-11] 리모델링 건물에서 닫힌 입면의 소거, 출처:필자 촬영

3.2. 건축물 전면 공간의 확보와 전이공간으로 활용

둘째, 전면 공간을 확보하고 전이공간으로 활용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대부분 1층부에 테라스 공간을 확보하거나 건축선 후퇴 후 몇 미터의 공간을 마련해 서핑보드를 거치하고 세척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앉아서 쉬거나 취식하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 전면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능적인 용도와 휴식용도로 겸용함으로써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개별 가게의 소품이 외부 공간에 전시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됨으로써 평범한 가로에 활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공간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전면을 최대한 개방된 입면으로 개조해 상시 열어둘 수 있는 개방감을 강조

한 가게 풍경을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핑샵의 특성상 서핑보드를 건조하거나 사람들이 젖은 상태로 대기 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필요하기에 건물 전면의 외부공간을 확보하거나 개방된 입면을 갖춤으로써 가게 내부와 가로 사이의 전이공간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이공간은 주된 목적 외에 평상시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테라스 좌석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부공간의 용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테라스 좌석의 사람들은 지나는 보행자와 간접적 접촉을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며 가로공간까지 자신의 활동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김신성 2013, 87).



[그림 4-12] 신축 건물에서 전면 공간의 확보 단면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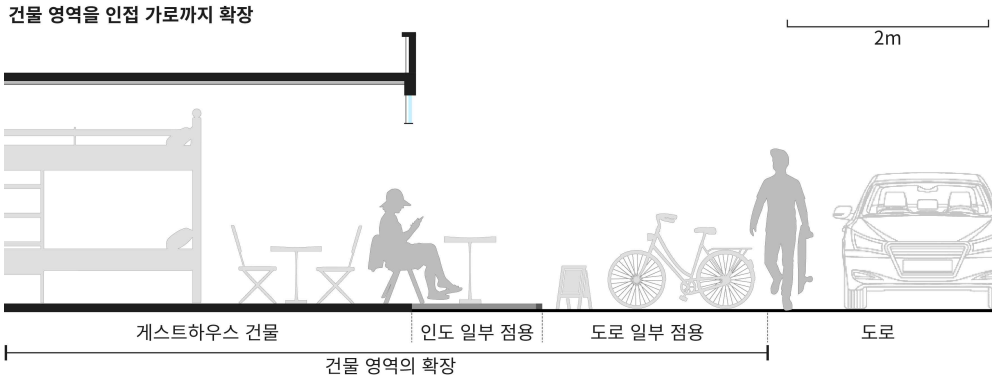
[그림 4-13] 신축 건물에서 전면 공간의 확보, 출처:필자 촬영

3.3. 건물 영역을 인접가로와 건너편 가로까지 확장

셋째, 건물 영역을 인접 가로와 건너편 가로까지 확장한다. 건물 전면부 개방감과 더불어 건물과 가로의 경계부와 도로의 일부, 혹은 가로 건너편의 일부 공간까지 개별 가게의 서핑과 관련된 보드 거치대, 야자파라솔, 테이블과 의자 등을 배치해 가게에서 확장된 인테리어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로의 경관과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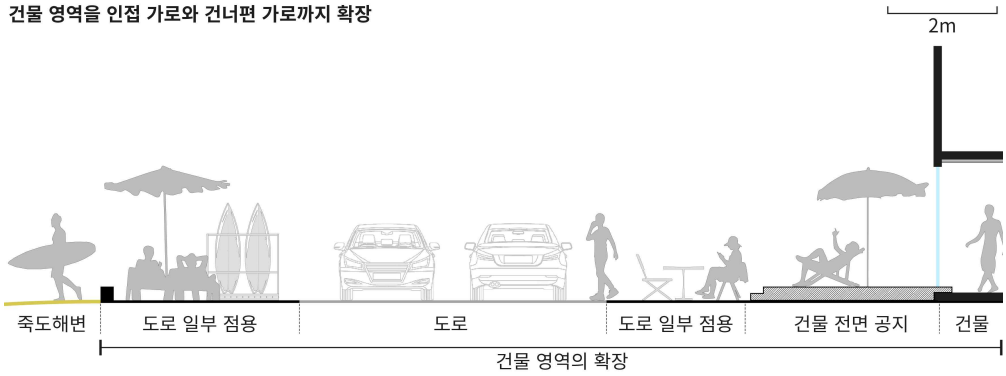
샵의 영역이 가로까지 확장됨으로써 외부공간의 시각적 다채로움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활동을 유발한다. 또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배치되면서 보행자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자동차의 속도가 조절되며, 가로 공간이 자동차가 우선인 도로이기 보다는 보행자와 방문객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다. 경계공간(edge)에서의 활동이 공공공간의 중심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그림 4-14] 건물 영역의 인접 가로까지 확장 단면 다이어그램

[그림 4-15] 건물 영역의 인접 가로까지 확장, 출처: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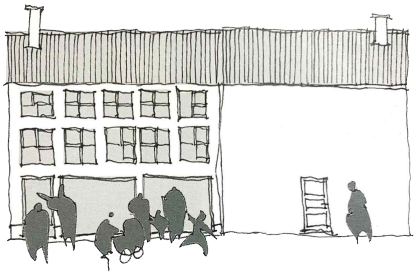


[그림 4-16] 건물 영역의 건너편 가로까지의 확장 단면 다이어그램

[그림 4-17] 건물 영역의 건너편 가로까지의 확장, 출처:필자 촬영

건물 용도 변화와 공간의 변용으로 인해 불투명했던 입면이 개방되었으며, 야외에 활동공간과 쉴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는 등 가로와 건물의 관계변화가 생겨났으며, 지역의 방문객과 주민들 사이의 직·

간접적인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켰다. 이는 소프트 엣지(Soft edge)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13]. 소프트 엣지를 가진 열린 파사드가 많은 건물에서의 활동이 하드 엣지로 구성된 건물 앞에서의 활동보다 7배나 많게 나타난다(Jan Gehl 2010, 79). 다시 말해 열린 입면으로의 변화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과 다양한 활동의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 활동, 이벤트, 영감, 자극 이 모두가 공공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Jan Gehl 2003, 23), 사람이 많이 있고 무엇인가 실시되고 있으면 더욱 많은 사람과 이벤트가 거기에 합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활동은 그 범위와 지속시간이 모두 확대되는 자기 증식 프로세스(self-reinforcing process)를 갖는다(Jan Gehl 2003, 100-101).



[그림 4-18] 건물의 입면과 이용 행태 관계(Jan Gehl 2010, 79)

죽도·인구 해변의 건물과 가로의 경계부 혹은 테라스 공간에서 서퍼들간의 교류나 물물교환의 창구, 상품 판매 창구, 방문객끼리의 만남 등 다양한 접촉,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핑문화의 자유로운 특징과 개방적인 문화가 경계가 소거된 가로 환경에서의 교류와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의 존재 여부는 사람들이 계속 합류하게 되면서 활동의 규모와 시간이 확대되어가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개방된 입면과 확장된 소품들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사람들과 행위들이 더해지면서 경관의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여 지역의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제인 제이콥스는 보도

13) Soft edge는 샵들이 줄지어 있고, 투명한 입면을 갖추고 큰 창과 열린 입면 구조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Hard edge는 긴 벽에 문이 거의 없는 구조를 일컫는다.

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우연적이며 사소해 보일지라도 모두 합치면 전혀 사소하지 않으며, 지역 차원의 사람들 사이의 이런 일상적인 접촉이 합쳐지면 사람들 사이에 공적 정체성의 정서와 공적 존중과 신뢰의 망이 생겨난다고 했다(Jane Jacobs 2010, 89-90). 죽도·인구 해변의 가로는 시각적으로 서핑 문화와 정서가 반영되고 덧대어진 가로 환경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연적인 접촉과 교류가 쌓여오면서 서핑이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한 공적 정체성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 입면 환경의 변화

4.1. 상점주 서퍼의 개성 표출

지역의 경관이 건물을 개방하고 가로를 활용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바뀌어 온 것에 더해서, 경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했던 요소 중 하나는 개별 서핑샵에서 서퍼 개인의 개성이 드러난 인테리어의 표출과 가로에서 보여지는 건물 내부이다. 모든 개별 건물의 서핑샵들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서퍼 개인을 중심으로 강습을 주로 하며, 동시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식음료를 판매하기도 하는 소규모 가게이다. 또한 죽도·인구 해변에 정착한 일반음식점과 카페의 경우에도 점주가 서퍼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에 인테리어 또한 서퍼인 상점 주인의 취향과 지향하는 바, 주로 사용하는 실제 서핑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여행 소품 등에 따라 독창적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이는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가로 환경과 지역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사람들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 있을 때 그 동네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어반플레이 2017, 98), 모든 서핑샵과 식음시설이 각자의 개성으로 다른 풍경을 연출하는 것은 지역의 매력을 배가시킨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다채로운 개성이 드러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저렴했던 임대료이다. 앞의 [그림 3-14]에서 볼 수 있듯, 연구대상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2010년대 초반에서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저렴

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구리의 대형 숙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핑샵과 음식점들이 2017년 이전에 많이 생겨났는데, 이 시기에는 저렴한 자본으로도 창업이 비교적 쉬웠던 시기이다. 또한, 죽도·인구 해변 지역은 대형 건물 입지를 통한 관광지로 개발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필지가 소규모였으며, 소규모 필지에 저렴한 지가가 합쳐져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을 할 수 있어 많은 서퍼들이 쉽게 정착해 나갈 수 있었다. 필지 규모가 크고 대형 자본이 필요한 지역은 모험이나 특이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 반면 필지가 작고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지역은 새롭고 도전적인, 독특한 시도를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죽도·인구 해변 지역은 서퍼들의 개성을 자신의 가게에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었다. 물론, 대형 자본이 유입되면서 형성된 상업시설은 서퍼 개인의 개성과 무관한 일반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평범한 나무보드나 페인팅, 동남아시아를 연상시키는 소재들의 활용 등 다소 일반적인 모습을 띄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개인의 지역 경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인 시도이든 대형 자본에 의한 시도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개별 샵들이 다채로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경관적 다양성이 증대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의 장소가 주목받는 과정에는 몇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데 첫째가 '개성 있는 문화 인력, 상점들이 구시가지 골목에 자리 잡을 것'이다(어반플레이 2017, 70). 죽도·인구 해변에서 이러한 첫 번째 조건은 파도를 찾아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착한 서퍼들의 개성과 가치의 표현으로 인해 지역 분위기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며 충족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지역의 경관은 서퍼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이 드러나며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다시 말해, 죽도·인구 해변의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서핑이라는 스포츠 문화 자원과 이를 통해 형성된 정체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림 4-19] 서퍼의 개성이 표출된 인테리어, 출처:필자 촬영

4.2. 인구리 마을 주택 입면의 변화

해변가 위주로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인구리 마을 내부의 가로환경도 변해왔다. 인구리 마을 구간을 걷다 보면 건물 입면에 서핑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작가와 제작연도가 명기되어 있다. 평범했던 마을 내 벽과 주택 입면을 활용해 벽화를 그리는 활동이 2017년 '그랑블루 페스티벌'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역 대학생들과 서퍼 예술가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마을 내 작은 골목까지 담장과 건물 입면을 활용한 벽화들로 채워졌고, 1970~80년대에 지어진 평범하고 무난했던 주택과 벽의 입면이 다채롭게 채워지면서 가로와 골목길의 경관이 풍부해졌다.

앞서 3장에서 상업화의 흐름이 아직 인구리 마을 내부까지 적극적으로 미치고 있지 않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역을 가꿔나가고 마을 주민들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해온 로컬 서퍼들은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서핑으로 인한 상업화를 겪지 않은 마을 내부의 낙후된 주거지까지 다채로운 경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림 4-20] 인구리 마을 내 경관의 변화

[그림 4-21] 인구리 마을 내 벽화 조성 현황, 출처:필자 촬영

제2절 지역에 나타난 서핑문화와 이슈

제1절에서 서퍼들의 개성을 바탕으로 여러 물리적인 변화가 이뤄지면서 경관이 재구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주민 서퍼들의 특성과 서핑문화에 기반한 물리적인 변화와 함께, 서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위들과 이벤트, 프로그램들 또한 지역성과 경관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의 활동은 경관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황기원, 2011)이기에 지역에 나타난 문화 활동의 분석을 통해 경관 변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서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태들과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면서 지역에 나타난 서핑문화와 이슈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보면서 지역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인 특성과 내재된 이슈를 파악한다.

1. 경관 구성 요소로서 서핑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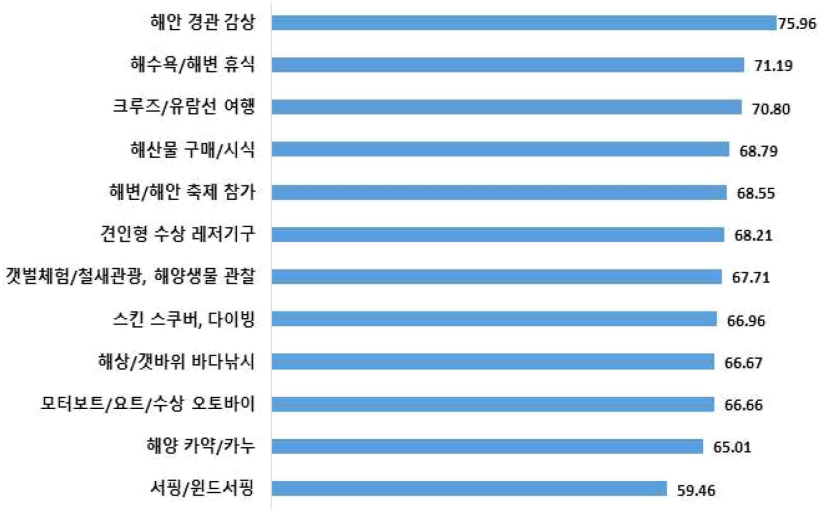
1.1. 주요 행태

- **서핑**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는 단연 서핑이다. 지역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파도를 쫓아 정착한 서퍼들이 라이딩을 즐겼지만, 지역이 유명해지면서 서핑 입문자들의 수가 기존 서퍼들의 수를 넘어서면서 바다는 입문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강습 형태는 강사 1~2명, 강습생은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보통 실내 안전교육과 모래사장에서의 기초 교육을 받은 후 입수하여 실제 파도를 타는 순서로 이뤄지며 총 강습시간은 3~4시간이 소요되며, 가격은 평균적으로 8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죽도·인구 해변 일대를 걷다보면 서핑수트를 입고 보드를 들고 해변으로 향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며, 해변의 모래사장은 강습을 받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죽도·인구 해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림 4-22]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서핑

그러나, 서핑은 파도가 없을 경우 만족도가 급감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고, 2010년 이래 해양레크리에이션을 즐기려는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핑에 대한 만족도는 56.46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장원 외 2019, 3). 그러나 대부분의 서핑샵이 현재는 인문자 강습이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단발성 체험으로 인한 만족도는 높지 못한 상황이다.



[그림 4-23] 해양관광 활동 유형별 만족도, 출처:KMI동향분석 122호(2019. 6)

- **캠핑**

캠핑은 기존의 주거지가 아닌 야외에서 체험 가능한 활동으로서,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로써의 인간을 확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업무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치유할 수 있는 여가의 속성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는 여가의 한 종류이다(이주혁 2014, 14-15). 신체적 활동을 통해 자연의 일부로써 인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활동으로 자연을 즐기는 스포츠인 서핑과 접점이 많다. 캠핑과 서핑의 활성화는 관련이 깊은데, <바다가 들린다, 2019> 예능은 캠핑카를 타고 동해안을 여정하며 서핑을 즐기는 것이 컨셉이였으며, 서퍼 전은경씨는 서핑이 유명해진데 캠핑이 큰 몫을 했음을 언급했다.

"여름이 되면 앞쪽 모래사장까지 텐트를 엄청 많이 쳐요. 서핑이 유명해진데 캠핑도 한 몫 했어요. 캠핑이 한 3년 전쯤부터 유행하면서 캠핑 온 사람들이 서핑이랑 잘 어우러 졌죠." <문지방> 5회(2018. 8. 6.), 강릉:MBC강원영동.

지역이 서핑으로 유명해지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노지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이 생겨났고, 현재 서핑 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활동이다. 과거 캠핑활동은 산악활동을 중심으로 한 친목도모를 위한 구성원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캠핑활동 구성원에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지인, 친구보다는 가족단위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주축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주혁 2014, 38). 이에 따라 기존 서핑이 20-30대 젊은 층에 의지해 발전한 면이 크다면 캠핑은 가족단위 방문객을 지역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역 방문객 연령층 및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림 4-24]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캠핑, 출처:필자 촬영

- **스케이트보드(카버보드[14])**

스케이터(skater)는 스포츠 분야에서 서퍼(surfer)와 스노우보더(snowboarder)와 같이 다루어지고 스타일과 사고방식에서 늘 관련되어

14) 스케이트보드의 한 종류로서, 1955년 설립된 'Carver Skateboards'사에서 제작하는 스케이트보드를 일컫는 용어이며, 기존의 스케이트보드와는 움직임이 다른, 물결에서 턴을 할 수 있는 느낌을 내게 하는 유연한 스케이트보드이다.(출처:무라사키스포츠)

왔으며(Amy & Cathie 1996, 12-13), 서핑이 어려운 날 육지에서 자세 연습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해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화해 나갔음을 앞선 2장의 서핑문화를 서술한 부분에서 언급했다. 이렇듯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 스케이트보드이지만 그 시작은 서핑에서 출발했으며, 서핑 자세나 기술 연습을 지상에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서핑과 밀접한 공유지점을 갖는다. 죽도·인구 해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죽도·인구 해변 지역의 도로는 자동차 도로이지만 보행자가 많고 다양한 만남과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살펴본 바 있는데, 스케이트보딩 역시 그 중 하나이다. 많은 서퍼들의 인터뷰를 보면, 카버보드는 서핑 중급자 이상이 턴 연습 및 실력 향상을 위해 효과를 느낀다고 인터뷰를 하였으며[15], 실제 도로와 주차장 일대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행위 중 하나가 카버보드를 타는 것이고, 그 모습은 죽도와 인구 해변 지역의 가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핑을 하는 모습과 가게마다 전시된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스케이트보딩 행위는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행위로 기능하고 있다.

[그림 4-25]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스케이트보드

• **파티 문화**

서핑샵들이 강습과 바비큐, 숙박까지 묶어서 상품화 하면서 레슨과 숙박을 제공하던 서핑샵들의 차별화된 모객 요소로 바비큐를 제공했으며, 이와 함께 해변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파티가 성행하기 시작했

15) WSB FARM(2019. 7. 16.). *서핑 프로에게 물어봐, 문정락*. [유튜브영상].
WSB FARM(2019. 7. 23.). *서핑 프로에게 물어봐, 김민승*. [유튜브영상]. 등

다. 특히 인구해변 일대는 가장 최근에 개발되면서 차별화요소로 파티를 도입했고, 일대의 숙소 건물 1층은 밤이 되면 큰 음악이 나오고 술을 마시며 즐길 수 있는 파티를 하는 샵으로 바뀐다. 또한 인구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행사용 천막을 이어붙여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영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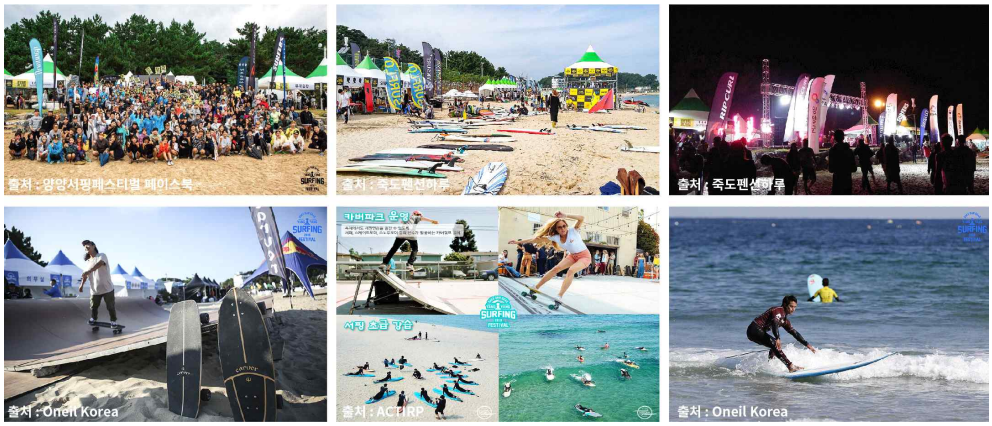
밤 분위기는 특히 죽도해변과 인구해변이 다른데, 죽도해변은 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술을 판매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각 샵별로 조용하게 모임을 갖고 캠핑장도 고즈넉한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구조이다. 반면 인구해변은 술과 음악, 파티를 늦은 시간까지 즐기는 샵들이 많기 때문에 밤이 되면 다른 장소로 변한다. 이러한 대비되는 분위기는 지역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선택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활력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나, 숙박객 만족도 문제, 주폭으로 인한 치안문제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그림 4-26] 죽도·인구 해변의 주요 행태_바비큐 및 파티, 출처:필자 촬영

요컨대, 죽도·인구 해변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행태들은 서핑과 관련된 여러 행태들이 분화되면서 발생되었고, 도로와 해변, 가게 앞 등에서 행해지며 지역만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또한 다양한 행태들이 지역 전체의 다양성과 매력을 상승시켰으며, 여러 문화행위들이 지역에 생겨나면서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1.2. 주요 이벤트

- **양양서핑페스티벌**



[그림 4-27] 양양서핑페스티벌 현장 사진, 2018-2019

양양서핑페스티벌은 2014년 1회를 시작으로 2020년 COVID-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기 전인 2019년까지 총 6회를 개최하면서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에 더해서 양양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았다. 대한서핑협회(KSA)와 강원도서핑협회(KGSA), 양양서핑협회(YSSA)가 주관하며,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최한다. 대회는 매년 10월 중순에 3일정도 죽도해변에서 진행하고, 서핑 컴피티션과 비치클린 캠페인은 매일 진행되는 메인 이벤트이며 뮤직 페스티벌, 버스킹 및 야간 행사가 함께한다. 행사는 서퍼들만을 위한 경쟁 대회가 아닌 페스티벌을 지향하여 대중의 참여를 지향하기에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의 참여로 양양 지역 서핑을 알리고 양양군을 서핑 도시로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 **그랑블루 페스티벌**

2017년부터 영화감독 이현승씨의 주도로 진행되어 온 그랑블루 페스티벌은 매년 여름(7~8월) 중 4일간 행해지며, 연구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그랑블루페티벌 기획단이 주최하며 강원도와 양양군, 강원영상위원회가 공식 후원한다. 선셋/재즈공연, 선라이즈 요가, 마을극장 영화상영, 마을벽화제작, 비치클린 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컴피티션보다는 해변 영화제 공연,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 ‘그랑블루 비치 씨어터’를 오픈해 여름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상영하고, 비치클린 행사를 진행하고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며, 플리마켓과 비치푸드바 등의 행사도 함께한다. 그리고 마을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마을 벽화를 칠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그림 4-28] 그랑블루 페스티벌 현장 사진, 2017-2019

• **서프보드 스왑(Surf Board Swap) 행사**

2015년에는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Patagonia의 주최로 양양 지역 환경 개선 프로젝트 ‘파타고니아 에코 페스티벌 인 양양’의 일환으로 중고 서핑 용품 및 보드를 교환하는 서핑 중고 장터 ‘새터데이 서프 스왑(Saturday Surf Swap)’을 죽도해변에서 실시했다. 재활용과 물물 교환을 장려하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중고 장터의 의미를 넘어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핑 관련 용품을 꼭 필요한 제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서퍼를 위한 커뮤니티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홍진욱, 2015). 또한 인구항길 약 100m 구간을 차량 통제하여 보드스왑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핑매거진 WSB FARM과 LINEWERKS SEOUL이 협력하고 여러 서핑 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며 죽도 지역의 샵들이 후원한 행사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으며, 취지는 버려지는 보드의 교환을 장려하고 서퍼들을 위한 커뮤니티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으며, 마을 원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기획되기도 했다.

[그림 4-29] 보드스왑데이 현장 사진

• **새해 일출 서핑**

2016년 1월 1일 강원서핑협회를 주축으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죽도해변에서 처음 시작했다. 새해 첫 서핑을 통해 사계절 스포츠인 서핑의 매력을 알리고, 해양스포츠의 근원인 바다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매년 1월 1일에 계속되고 있으며, “Trash Free Seas”, “Love Our Planet”, “Save Our Seas”등의 환경 메세지를 매년 전달해 오고 있다. 이 행사는 죽도해변으로부터 낙산, 기사문 해변 등으로 확산되어 매년 초 각 해변에서 서핑문화의 확산과 환경보호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양양 지역 서퍼들간의 단합과 겨울 서핑에 대한 홍보,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행사로서 일출서핑은 짧게 진행되지만 동해안 지역, 특히 양양 지역의 서핑문화와 관련된 여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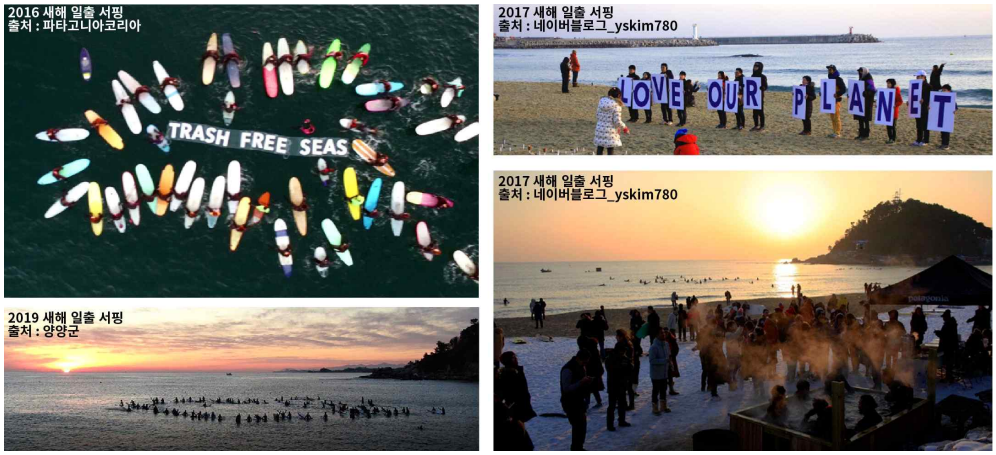
• **비치클린(Beach Clean)운동**

비치클린은 대부분의 서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이다. 많은 서핑샵들이 강습을 진행할 때 서핑 후 해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작은 양의 쓰레기라도 함께 치우는 일을 설명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단

합하여 주기적으로 비치클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앞서 2장의 서핑문화에서 살펴본 바, 서핑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그것은 고스란히 서핑 문화에 환경보호라는 가치관으로 반영되어 표출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퍼들이 이를 인식하고 홍보하며 구체적인 환경활동으로 이어 오고 있다. 서퍼들은 해변에서 주로 활동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쾌적한 서핑활동을 위해 자연스럽게 해변과 대양에 대해 생태적 인식을 자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Paul 2018, 262). 따라서 비치클린 활동은 서핑 스팟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며, 이벤트나 행사에도 항상 동반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출판된 『서핑교과서』에서 서퍼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열거한 '서퍼 행동강령(Surfer's Code)'에서 여러 기본적인 서핑 룰과 함께 "서핑을 마치고 버려진 플라스틱을 3개 이상 주워서 나오는 'Take 3'운동을 실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서퍼들에게는 일상적인 행위이다.

요컨대 죽도·인구 해변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은 모두 '환경 보호'라는 서핑문화가 지향하는 중심 가치를 확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서핑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관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며, 서퍼들 간의 단합과 서핑문화의 일반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림 4-30] 새해 일출 서핑 현장 사진

[그림 4-31] 해외와 양양지역 서핑 스팟 비치클린활동

2. 지역의 환경변화와 대응 노력

앞서 다양한 활동 중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고 비치클린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행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서퍼들의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지만, 양양지역의 해양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특수한 대응 움직임이기도 하다. 본 세부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활동이 생겨나게 된 내부적인 환경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 작은 환경활동들이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한다.

2.1. 지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서퍼들이 파도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모든 감각을 이용하여 바다를 느끼면서, 오염된 해양 환경을 극명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오롯이 대면할 수 있기(Paul 2018, 251)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행동하게 된다.

지역 서퍼들이 느끼는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모래유실 문제이다. Interviewee A는 “제가 처음 정착했을 때 보다 해변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라며 변화를 체감한다고 했고,

Interviewee B 는 죽도·인구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해변에 대한 체감되는 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갯마을해변이 5년 전에는 엄청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벽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점점 서핑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었죠.” 양질의 파도는 양양 바다의 최대 경쟁력이며, 서퍼들이 타기 좋은 파도의 질은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 해저 지형의 모양이 좌우하기 때문에(이승대, 2017),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서핑을 가능하게 하는 파도의 생성에 변화를 야기하여 점점 서핑을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림 4-32] 갯마을해변의 과거와 현재 모습

모래가 유실되는 것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해변의 도시화에 따른 하천으로부터의 모래 공급이 감소되는 것, 너울성 파도와 해류 발생으로 인한 연안모래의 이동, 방파제 설치로 밀썰물 흐름 차단에 따른 해변 모래의 방파제 앞쪽으로의 이동 등이 있다. 하지만 모래 유실과 관련하여 방파제 건설 이슈는 서퍼들이 생각하는 지역 환경 변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서 어촌계와 의견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이슈이다. Interviewee F는 “어촌계 입장에서는 10년 숙원사업이라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계속 물속에 수장되어버리는데도 계속 하는” 사업이라고 언급했고, Interviewee C 또한 “방파제가 늘어나면 해변 환경이 또 바뀌어요, 그렇지만 어촌계는 방파제를 계속 늘려달라는 입장이에요. 본인들은 생업이고 우리는 레저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생업인데...” 라며 어촌계와 서퍼가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고 갈등이 존재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지역 전체의 활성화와 발전 측면에서 합당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하수처리와 바다 수질 오염 문제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부분 바다 환경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음을 체감했으며, 특히 Interviewee D는 본업이 건축가로서, 2001년 인구 해변 일대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획을 정비할 당시 계획된 정화시설의 용량이 현재 개발 밀도가 엄청나게 확장된 이후에 하수 처리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바다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정화되지 못한 양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나와 오염된 것을 목격한 날이 많음을 언급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하수 정화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리노베이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용적률을 커버하다보니, 비만 오면 정화 안 된 양이 넘쳐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하수관으로 처리를 하는데, 현재 기능은 과포화 된 거죠. 저도 조사하면서 굉장히 암담한 심정이었어요. 이 환경오염문제는 시한폭탄이고 곧 터져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서 오염된 바다를 복원하려고 하겠죠. 이건 단순하게 비치클린의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Interviewee D(2020. 9. 18.).

면장으로서 공직생활을 했던 Interviewee F는 "이 지역이 무엇 때문에, 왜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야 해요. 지금 이런 패턴 말고 근본인 바다 환경을 멀리 보고 생각해야죠. ... 무엇을 선택할지의 문제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라며 현재 진행되는 개발 방식과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지적했다. 양양군은 5년 단위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필요할 시 계획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며, 양양군 내 지역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연구대상지에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임을 언급했다.

2.2. 지역 내 자체 환경 활동

모래유실과 바다오염에 대해 서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퍼들은 개별 노

력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Interviewee C는 “서퍼들이 ‘바다에 쓰레기 버리지 말아 달라’, ‘담배는 다른데서 피워달라’ 하면 일반인들이 반발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비치클린 하는 거에요.”라며 인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Interviewee A는 “공터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라며 지역 내 쓰레기 투기가 난무하며 작은 노력이 변화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 환경 변화를 체감하던 서퍼들은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었다. Interviewee A는 여름에 몇 주간 해변 쓰레기를 모아서 쌓아두는 활동을 통해 실제 쓰레기가 적어지고 지역에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6주동안 바다에 있는 쓰레기 가져오면 Patagonia 옷을 공짜로 드리는 행사를 했어요. 쓰레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구나’, ‘버리지 말고 주워와야겠구나’ 느끼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한 2년 지나서 쓰레기장에 분리수거함이 생겼고 ... 올해부터는 집앞에 쓰레기를 두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었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큰 변화로 이어진 좋은 사례였죠.” Interviewee A(2020. 9. 5.).

Patagonia RE:RE: 리사이클 캠페인 포스터, 출처:Patagonia Korea, 2015

Patagonia RE:RE: 리사이클 캠페인, 출처:Patagonia Korea, 2015

리사이클 캠페인 기간 수집된 플라스틱 쓰레기, 출처:양양서핑학교 블로그

[그림 4-33] 바다의 쓰레기와 의류 교환 캠페인

또한 Interviewee C는 페스티벌 개최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시락과 생수를 제한하고 배식과 정수기로 대체하며 스폰서에게도 환경적인 대책을 고려한 스폰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양양서핑페스티벌에서 원래 도시락을 제공했어요.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배식제도 하고, 생수 쓰레기도 때문에 정수기도 사용해보고. ... 스폰서들을 구할때도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요. 처음부터 환경적으로 접근하고, 텀블러 들고 오게 하는 등의 문화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환경적으로 의식을 갖고 문화를 가꿔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거고, 행사를 하고 놀고 마셔도 피해를 안주고 쓰레기를 줄여자는 노력의 일환인 거죠.” Interviewee C(2020. 9. 10.).

또한 서핑관련 미디어를 제작하는 Interviewee B는 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영상제작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팀, 뉴스 등에 본인들의 근해 촬영 영상 제공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저희는 미디어니까 조금 달라요. ... 저희가 직접 환경단체가 될 수 는 없으니까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중이죠. 삼척의 모 대학 연구진이 연락 와서 저희의 근해 촬영 데이터를 제공해드려서 연구에 도움 되게도 하려 하고, 태풍 같은 재난상황에도 해변 영상을 제공해드려서 JTBC뉴스에서도 이번에 활용하셨고요. 그런쪽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Interviewee B(2020. 9. 10.).

이에 Interviewee F는 아래로부터의 작은 움직임들과 인식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제스쳐로서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해 활동하며 저변을 넓혀가는 것을 서퍼들에게 제안했다.

“지금 죽도에 의식있는 1세대 서퍼들이 밑에서부터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양군에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를 분야별로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의식 있는 친구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받아서 아예 거기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활동을 하라고 제안해줬어요. 작지만 그런 행동들을 그 틀에서 하다보면 점점 입지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고 확산해나갈 수 있는 거죠.” Interviewee F(2020. 9. 18.).

하지만 Interviewee A는 지역 내에서 서퍼들이 “그런 식으로 작은 아이디어와 변화들은 계속 하고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지만, 중요하고 큰 변화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력감이 있어요.”라며 아래로부터의 노력은 많지만 큰 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제3절 서핑관광에 따른 특성

서핑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태와 프로그램들이 자리잡고, 사적 공간과 공공 공간에 서핑문화가 정착되고 표출되면서 지역의 경관은 농어촌 마을에서 서핑관광지로 재구성되었다. 서핑관광에 따른 경관 변화와 문화적 특성을 종합하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핑이 가진 이미지와 엮어 파티문화를 접목시키며 지역의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 활용되어왔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있어왔던 현상이며, 3장의 분석 내용과 함께 생각 해 볼 때, 인구 해변에 서핑샵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차별화요소로서 파티를 도입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Interviewee A는 “파티문화를 주도하는 곳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인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파티에 서핑의 이미지를 접목시킨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서 여러 점포를 냈죠.”라며 인구 해변의 파티문화를 주도하는 그룹이 있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인구 해변의 파티문화는 주도하는 그룹이 이끌면서 거리 전체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양리단길’로 불리기 시작했고, 서핑과 연관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둘째, 가로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공적 활동이 이뤄지며 서핑문화가 가로 환경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앞서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 연구대상지는 수 년에 걸쳐 밀도 있는 개발이 진행됐고, 해변을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이 극히 적다. 이에 따라 개별 상점은 가게와 가로의 경계 공간을 활용해 가게 안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휴식과 교류의 전이공간으로 사용하는 한편 다양한 용도를 가진 공공공간으로 전용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가로의 건너편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서핑문화의 한 갈래로 파생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공공공간도 부족했기에 도로와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벼룩시장과 각종 지역 내 이벤트들을 개최하는 주된 장소도 도로가 되었다. 이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적 한계와 개발 양상, 서퍼들의 공간 활용이 맞물리면서 연구대상지의 가로는 다양한 서핑 관련 공적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서핑문화가 가로 환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공간이 되었다.

셋째, 자체적인 환경활동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환경활동은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서핑문화의 일부이지만, 연구대상지에서는 초창기 정착했던 서퍼들이 형성한 자생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활동과 개별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또한 서핑 매거진과 매체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의해 인식을 확산하고 양양군에 등록된 시스템을 활용해 저변을 넓혀가는 등의 자발적인 시도를 하고 있으며, 중재자와 서퍼들은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고 지역 내 자체적인 문화 행위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다.

요컨대, 서핑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화 활동들이 지역 내 가로, 건물 내외부, 해변 등 곳곳에서 행해지면서 지역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기능해왔으며, 서핑이라는 스포츠의 수입을 넘어서 그것에 기반한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발전시켜가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아직 일반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문화는 그것을 생산하는 예술가들에 한정되지 않고 시민들과 도시의 여러 행정가, 정치가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더 큰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김정빈 외 2020, 74), 지난 10년간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서핑문화와 서핑관광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뤄지며 지역의 서핑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서핑관광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본 논문은 양양 지역, 특히 죽도·인구 해변의 변천 과정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대응한 하드웨어 사업이 무비판적으로 수행되며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현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되었다. 지역은 형성-발전-쇠퇴의 일련의 생애주기를 갖기에 구체적인 관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이 요구되지만, 현재 지역 내의 주요 사안에 대한 깊은 연구는 미흡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에 따른 물리적인 변천, 사회문화적인 과정과 이슈에 집중하여 공간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죽도·인구 해변의 서핑관광지화 과정은 4개 단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는 죽도해변 일대의 점적인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서 스노우보더들이 서핑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서핑샵을 중심으로 후배들이 양성되며 죽도해변에 매년 1-2개 정도의 서핑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서퍼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며 서퍼가 운영하는 서핑샵, 음식점 등이 생겨나며 점적인 변화가 인구리 마을까지 확산된 시기이다. 주로 리모델링을 통해 샵을 오픈했고,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인테리어와 파사드를 만들면서 지역의 경관을 재구성해나갔다. 트렌드세터들이 서핑을 알리며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주차장과 캠핑장 등의 인프라가 신축되었고 캠핑 방문객이 서핑을 함께 즐기면서 캠핑과 서핑이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주민들은 지역 정착을 위해 원주민과 다양한 소통 노력과 활동을 했고, 이주민 서퍼들은 연합회 구성을 통해 페스티벌과 비치클린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을 가꿔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서퍼들은 수도권 접근성, 해변 이권이 적고 선배 서퍼들이 노력으로 만든 정착에 유리한 인문적 환경, 해변 선택 다양성 등의 요인으로 지역에 정착했으며, 토박이 서퍼 중재자의 도움으로 이주민 서퍼들의 정착에 유리한 마을 환경이 갖춰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는 죽도해변 포화에 따른 인구해변 공지에 신축 건물이 다수 건설되며 지역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핑의 표면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파티, 바비큐 문화 등이 지역에 생겨났고, 다양한 방문층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했다. 또한 중재자로서 (전)○○○면장이 부임하면서 군청, 의회 등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서퍼들의 요구를 전달해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는 서핑이 대중화됨에 따라 대기업이 서핑의 이미지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 자본이 지역에 유입됨에 따라 상업적 다양성이 증대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여러 방송 매체에서 지역과 서핑을 다루면서 일반에 인식이 확산되었고 방문객 급증에 따라 기반시설이 더 확충되었으며,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생활이 어려워진 원주민과 1세대 이주민 서퍼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종합하여 10년에 거쳐 현재 지역에 나타난 경관 변화에 대한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간 개발과 차량 관련 시설이 밀집되면서 지역 경관에 대한 재고 없이 개발 방식이 점점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환되며 기존에 지역이 갖고 있던 오래되고 한적한 경관에서 신식의 다채로운 도시화된 경관으로 변모해 왔다. 지역이 상업화 되어 가면서 죽도해변/인구해변/인구리 마을 일대는 가로 경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원주민과 1세대 정착민들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시작되며 현재 지역 활성화의 정점 근처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서핑이 가진 자유로운 이미지에 편승한 파티문화를 접목시키며 파티는 지역의 서핑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로서 활용되어왔다. 후발 주자 서핑샵의 기존 샵과의 차별화 요소로서 파티를 도입한 것에서 시작하여, 인구 해변의 파티문화를 주도하는 그룹이 있었으며 거리 전체가 유사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양리단길'로 불리기 시작했고, 서핑과 연관된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러한 유명세는 지역 방문객 증가를 가속시키며 지역의 상업적 다양화를 견인했다.

셋째, 가로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공적 활동이 이뤄지며 서핑문화가 가로 환경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연구대상지는 수 년에 걸쳐 밀도있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이 극히 적은 상황이고, 개별 상점은 가게와 가로의 경계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전이공간이자 공공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핑문화의 한 갈래로서 스케이트보드와 벼룩시장, 각종 이벤트들도 도로와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적 한계와 개발 양상, 서퍼들의 공간 활용이 맞물리면서 연구대상지의 가로는 다양한 서핑 관련 공적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서핑문화가 가로 환경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넷째, 자체적인 환경활동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초창기 정착했던 서퍼들이 형성한 자생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활동과 개별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매체를 통해 일반에 인식을 확산하려는 노력과 양양군에 등록된 시스템을 활용해 저변을 넓혀가는 등의 자발적인 시도를 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고 지역 내 자체적인 문화 행위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죽도·인구 해변은 서핑관광으로 인해 단계적인 상업화와 발전을 거치며 농어촌 마을에서 서핑관광지로 지역성과 경관이 재구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주민 서퍼들의 공동체 활동과 지역 정착 노력, 그리고 중재자들의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역 내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응해왔다. 또한 지역만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아직 일반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지역의 발전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내 환경적, 경관적 이슈 등이 등장하면서 지역의 개발 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제2절 시사점과 한계점

지역활성화의 정점 근처에 도달한 죽도·인구 해변은 실적 위주의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넘어, 양양의 대표로 자리 잡은 서핑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을 위한 인문사회적, 공간환경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연구대상지는 이주민 서퍼의 유입으로 상향식 활성화되었으며, 이들은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경관과 문화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온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활동해 온 지역 활동가들이기에, 지역 내 활동주체들과 공동체, 그리고 서핑관광의 역량이 유지, 보완,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인문사회적 차원에서는 첫째, 행정과 서퍼의 중재자로서 매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중재자와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은 지역 개발 및 도시재생의 다양한 전략 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바이며(김연진, 2015; 오동훈 외, 2018; 김보미 외, 2019; 차주영, 2010; 등), 연구대상지의 발전 과정에서도 (전)○○○면장 등의 중재자의 존재와 역할을 통해 지역 활동가들의 요구를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효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부재함을 확인한 바이다. 지역의 단기적인 부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서핑관광지로서 기능하기 위해 지속성이 부족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사업이 아닌, 매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서퍼들의 수요와 관광객 수요를 수렴하는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내 자생적인 공동체 문화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해 나가도록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지역의 핵심이 되는 것은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이며,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 자신이기 때문이다(김정빈 외 2020, 33). 지역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생겨나 지역의 서핑환경과 마을환경 개선 및 유지를 위해 활동중인 공동체가 존재함을 확인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행정이 새로운 공동체를 조직하기보다는 기존의 자생적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지역의 공동체문화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反)젠트리피케이션 정책이고, 공동체문화가 강한 상권에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공공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모종린 2017, 7-8).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보다는 지역 내의 공동체 문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임대료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공간환경적 측면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지 전체를 한 판으로 바라보고 개발 방식의 재검토 및 경관적 지향점 수립이 필요하다. 계획과 지향점 없이 점적으로 수행된 개발로 인해 죽도·인구 해변이 가진 고즈넉한 경관적 매력에서 점점 도시화된 일반적인 경관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요에 대응해 해변에 면한 국유지에 주차장이 입지하면서 경관적으로 해변으로의 개방감이 저하되고, 해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저하되는 한편, 모래사장과 강 하류를 덮고 개발함에 따라 모래 유실과 해안 지형의 변화 또한 진행되고 있기에 주차 인프라의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죽도·인구 해변의 초창기 변화와 경관적 매력을 창출한 요소로서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과 서퍼의 개성이 담긴 소자본으로 시도 가능한 작지만 새로운 시도들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주류문화가 아닌 대안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라이프스타일로서 서핑과 서핑문화로 인해 재구성된 경관에 끌린다. 또한 양양의 중심 가치와 소비문화는 서울의 그것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어야 하며, 더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경관적,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창출할 수 있어야 사람이 몰리고 자원이 유치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역 경관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대형 개발은 여타의 지역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경관을 창출하며 지역 본래의 매력과 특색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의 개발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에 기반한 경관적 지향점과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해변 개발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 환경의 변화와 오염 등에 대한 대응 노력이 서퍼들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지역 활

성화를 견인한 서핑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은 서퍼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10년간의 급격한 개발을 겪으며 해안의 모래사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하수처리 용량의 초과로 인한 수질 오염 이슈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결국 지역 활성화의 근본 요소였던 서핑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서핑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 있다. 경관적으로 정돈되고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본질인 서핑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면 지역은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죽도·인구 해변 공간생태계의 변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를 위한 시사점을 검토한 바이다. 본 연구는 지방 해안 지역에서 서핑관광지화에 따른 과정과 이슈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다른 해안 지역에서 유사한 과정을 겪을 때 실질적인 참고자료로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간의 물리적, 경험적 변화의 특성과 요인을 통해 서핑관광지의 관리 및 발전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도시 및 농어촌 외부공간의 미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추구하는 조경학 본연의 학문적 연구 성과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의의도 갖는다.

한편, 본 논문은 앞서 논의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함의를 도출하였지만, 두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죽도·인구 해변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분석했기에 다른 서핑관광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변천과 내부 상황에 맞는 분석과 함의 도출을 통한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이며, 그 분석의 틀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서핑관광지로 기능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향후 죽도·인구 해변 일대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면서 지역주민과 이주민, 공간적 변화와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실천적 공간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문헌 자료]

권동희(2013), “동해안 낭만가도의 바위지형경관 특성과 활용방안”, 대한지리학회지 48(6), pp.803-818.

김낙중, 『해양레저스포츠관광론』, 파주:대왕사, 2010.

김보미, 손용훈, 이동근, 이현진 (2019), “도시재생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이화동 벽화마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7(3), pp.1-11.

김성귀, 『해양관광론』, 서울:현학사, 2010.

김신성(2013), 『문화소비공간의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지의 변화 특성연구 :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진,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 도입방안 연구』, 서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김정빈, 어반트랜스포머, 『플레이스메이커스』, 서울:픽셀하우스, 2020.

노재현(2019), “양양 죽도의 장소성과 지형경관의 지명 고찰 및 비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7(3), pp.37-48.

농림수산식품부(2017),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세종:농림수산식품부, 발간등록번호:11-1543000-002292-01.

모종린, 『라이프스타일 도시』, 서울:Weekly BIZ books, 2016.

모종린, 『골목길 자본론』, 파주:다산북스, 2017.

박태인, “양양의 서핑 산업”, 배득종, 윤대영(편), 『지역산업 기업자(起業者)의 한일비교』, pp.183-210,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8.

어반플레이, 『아는동네 아는연남』, 서울:어반플레이, 2017.

어반플레이, 『아는동네 아는강원 1』, 서울:어반플레이, 2019.

엄철호(2019), 『스포츠관광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인식 :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동훈, 황준기 (2018), “이화동 벽화마을과 캐나다 슈메이너스 벽화마을 사례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5), pp.207-234.

오형은(2015), “구면소재지 장소성에 기반한 지방 소도시 재생계획 :

거창월천권역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5호, pp.139-160.
윤경희(2017. 7. 5.), "서핑은 스포츠? 아니다, 서핑은 패션이다", 중앙일보.
이규현, 『서핑에 빠지다』, 서울:황금시간, 2012.
이승대, 『서핑교과서』, 서울:보누스, 2017.
이재정, 박은경,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서울:예경, 2004.
이주혁(2014), 『캠핑활동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읽기』,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주영(2010), "공간디자인 리포트 : 도심재생에 있어 공공의 역할", 도시문제 제 45권 504호, pp.52-55.
최정훈(2019. 7. 8.), "서핑붐 어떻게 만들어졌나?", 현대해양.
최호수(2016), 『서핑관광객 특성, 체험동기, 서핑리조트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관광공사 홍보팀(2019. 7. 10.),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테마별 취향저격 해수욕장", 한국관광공사.
홍장원 외(2019),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KMI 동향분석 제122호, 부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원, 『경관의 해석』,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Su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New York:The Overlook Press, 1996.
Buckley, R.(2000), "Neat trends: Current issues in nature, eco-and adventure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6), pp.437-444.
Buckley, R.(2002), "Surf tour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Pacific Islands. I. The industry and the island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pp. 405-424.
Fluker, M.(2003), "Riding the Wave: Defining Surf Tourism", C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Council of the Counil for Australian University Tourism and Education(CAUTHE).

Jan Gehl, 『삶이 있는 도시디자인』, 김진우 외 옮김, 서울:푸른솔, 2003.
Jan Gehl, 『Cities for People』, London: Island Press, 2010.
Jane Jacobs,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옮김, 서울:그린비, 2010.
Martin, S. A., & Assenov, I.(2011), "Beach and coastal survey of Thailand: What future for surf tourism", Journal of Tourism, Hospitality & Culinary Arts, 3(1), pp.77-87.
Paul David Larcombe, 신두호(2018), "스포츠 활동과 환경인식 : 서핑의 해양생태문화로의 가능성 고찰", 문학과환경 17(3), pp.247-277.
Ponting, J.(2008), "Consuming Nirvana: An exploration of surfing tourist spa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Rovert Ventury,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옮김, 서울:동녘, 2004.
Yoshida Shingo, 『경관법을 활용한 환경색채계획』, 이석현 옮김, 서울:미세움간, 2007.

[웹사이트]

정부24[웹사이트], (2020.7.15.), URL : https://www.gov.kr/portal/main
국토정보맵[웹사이트], (2020.4.3.), URL :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웹사이트], (2020.9.17.), URL : http://www.realtyprice.kr/
밸류맵[웹사이트], (2020.9.17.), URL : https://www.valueupmap.com/
브이월드[웹사이트], (2020.9.17.), URL : https://map.vworld.kr/map/maps.do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웹사이트], (2020.9.7.), URL : https://newslibrary.naver.com/
카카오맵[웹사이트], (2020.7.10.), URL : https://map.kakao.com/
네이버지도[웹사이트], (2020.11.15.),,URL : https://m.map.naver.com/
구글트렌드[웹사이트], (2020.3.15.), URL : https://trends.google.co.kr/
양양군 홈페이지[웹사이트], (2020.9.8.), URL : https://www.yangyang.go.kr/
강원통계정보[웹사이트], (2020.5.17.), URL : http://stat.gwd.go.kr/

Abstract

A Study on the Landscap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with Surfing Tourism in Yangyang

Jungtae Kim

Advised by Professor Wookju Jeo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stems from the awareness that Yangyang and the Jukdo and Ingu Beaches, an area with a booming surfing tourism industry, suffers from uncontrolled, top-down, and development-driven hardware projects, and a lack of consideration for sustainable surfing destinations. Each region has its own lifecycle ranging from

formation, development, to deterioration and, for this reason, requires plans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seldom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key issues currently affecting the aforementioned are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ecology of space in-depth, with focus on local revitalization driven by surfing tourism in Yangyang, the original formation and physical changes of surfing tourism attractions in the area, and the relevant sociocultural processes and issue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seeks to propose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surfing destinations.

The transformation of the Jukdo and Ingu Beaches to surfing destinations can be summarized in four stages. The first stage, which lasted from 2010 to 2012, represents the beginning of gradual changes in and around the Jukdo Beach. With snowboarders beginning to surf on the beach, one or two new surfing shops were established on the beach each year. In the second stage betwen 2013 and 2015, surfers in Busan and Jeju moved to the area, resulting in surfing shops and restaurants run by surfers, and thse changes spread to the village of Ingu-ri. Most of the shops were established by remodeling existing buildings, and changed the local scenery with their unique interiors and facades. New infrastructure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and camp sites were built to accommodate increasing visitors. Newcomers communicated with existing residents in various ways to settle into the area, and surfers formed an association for joint activities including festivals and beach cleaning, thereby changing the local environment. Surfers' settlement into the area was facilitiated by the area's accessibility to the Seoul Capital Area, the small number of interest rights on the beaches, and the conducive environment fostered by the efforts of the surfers who settled into the area first.

Surfers outside the area enjoyed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ir settlement fostered with the help of local surfers who served as mediators.

In the third stage from 2016 to 2018, multiple new buildings were built on empty lots around the Ingu Beach after the saturation of the Jukdo Beach area, which sparked full-fledged commercialization of the area. An increasing number of newcomers settled in solely for economic gains, and local community activities began to dwindle. The cultural atmosphere of the area changed in a way that appropriates the stereotypical images of surfing, represented by parties and barbeques. (Former) chief OOO, after his inaguration, served as a mediator with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opened up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council. He conveyed surfers' demands to the authorities, thereby allowing surfers to voice their opinions on local projets. The fourth stage, which lasted from 2019 to 2020, is represented by the popularization of surfing, which resulted in large corporations taking interest in surfing and appropriating its images to promote proudcts. The inflow of massive capital increased commercial diversity in the area. Media coverage of the area and surfing in general expanded the area's recognizability, and the resulting growth of visitors led to the construction of even more infrastructure facilities. These changes resulted in a steep increase in local property prices, and many residents and surfers left the area due to financial distress.

Based on these changes, the changes in the area and its landscape can be characteriz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ly, with the concentration of private development projets and vehicle-related facilities in the area, the development patterns transitioned from remodeling to new constructions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size

of development projects. This replaced the old and idyllic sceneries of the area with modern and colorful urban sc eneries. Secondly, the changes came with the dissemination of a 'party culture' that exploited the images of surfers as free spirits, and used parties as an element that represents the surfing culture in the area. A specific group led the popularization of parties around the Ingu Beach. The atmosphere affected the entire street, which came to be called as Yangridan-gil based on a similarly named street that became popular among younger generations. Thus, parties came to be associated with surfing by the public.

Thirdly, various public activities are performed using the spaces around the street and, as a reslt, the street environment strongly incorporates elements of the surfing culture. After years of dense development, public spaces dwindled while individual shops used the boundary spaces between the shops and the streets to expand their programs and use them as transitional/public spaces. The local landscape was reconstructed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 surfing culture, driven by the spatial limitations of the area, local development patterns, and surfers' use of local spaces. Fourthly, these changes are characterized by spontaneous environmental and awareness-raising activities. The spontaenous local communities formed by surfers who first came to the area still engage in various endeavors including environmental activities, and these conscious efforts are evolving into a culture unique to the area.

Thus, the Jukdo and Ingu Beaches have gone through gradual commercialization and growth driven by the surfing tourism industry, and the nature and landscape of the area have transformed into those of surfing a destination. In the process, surfers and residents work together to address social and environmnental issues in the area with

support from mediators. The area has entered a stage where it fosters its own culture. However, the culture has yet to gain widespread popularity. In addition, local growth accompanied by gentrification and the emergence of environmental and landscape issues in the area suggest that the area reached the peak of local revitalization. The Jukdo and Ingu Beaches need new directions for development that depart from number-driven development project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vance a sustainable surfing tourism industry based on Yangyang's local surfing culture. The local revalization in the area of research took the form of bottom-up revitalization led by surfers from outside the area who contributed to the fostering of the local landscape and culture as local activitists. As such, future developments need to be accompanied by policies that support the competency building and maintenance of the relevant individuals, communities, and surfing tourism entities as well as physic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the engagement of expert mediators, the reinforcement of spontaneous community cultures, reconsideration of the local development pract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s of the local landscape, as well as the need for central government-level efforts to study and develop measures to exact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carried out an in-depth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marine environment, and spatial ecosystem of the Jukdo and Ingu Beaches, reviewed implications for building a sustainble surfing destination, and elucidated the process and issues of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astal area as a surfing tourism spot, thereby providing information useful for other areas expected to go through similar

experiences in the future, as well as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behind the physical and experiential changes in the area with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surfing tourism spots. Further,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building academic knowledge for the discipline of landscape architecture, which pursues the promotion of aesthetic,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of urban and rural spaces.

---

keywords : Yangyang-gun, Jukdo and Ingu beach, Surfing, Surfing tourism, Sustainable development

Student Number : 2019-26328